

THE COMET

# 코메트

空軍本部政訓監室發行  
(續紀四二八七年四月九日)  
(第三種郵便物取扱認可)

韓民族의 民主精神의 史的考察...李 丙 燾

特輯 韓國民主主義 再建運動의 方向

反 共 · 經 濟 · 教 育 · 社 會  
文 化 · 勞 動 · 體 育

이것이 이나라를 民主主義로 成長케했다

- ◇ 英國의 國民性      ◇ 프론티어와 美國
- ◇ 獨逸의 科學性      ◇ 佛蘭西의 創意性

蘇聯과 蘇聯人

日本記者가 暴露  
하는 最近의 土  
庫 内部의 眞相

☆ 케네디의 新國防政策과 그 展開

☆ 東 西 核 戰 爭 의 焦 點

特輯 共產主義와 오늘의 世界

- ◇ 共產世界 内部의 軋轢 篇
- ◇ 共產主義 世界 侵略 篇

☆ 民主主義 原理세미나.....①

☆ 共產主義 세미나.....②

내가 마지막 본 모스크바

제 48 호



# 김 총장 방중 스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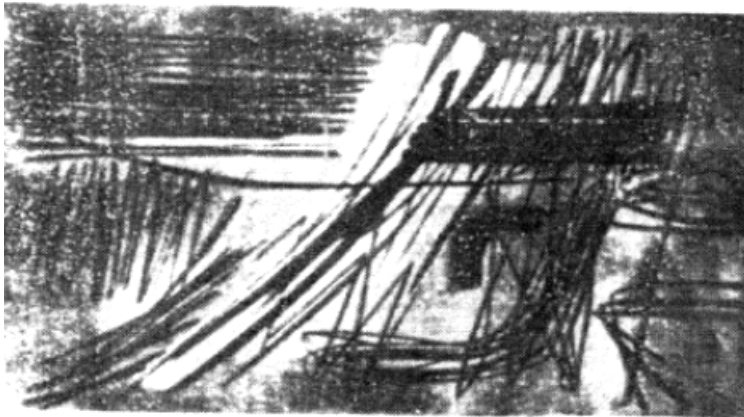
그믐달의 일초소에서  
북풍이 대륙을 바라보고 있는 김 총장 모습.



공산독재 하의 본토인들에게 자유와 희망의 상징인 중화민국 국기를 풍선에 달아 띄워 보내고 있는 광경.(김 총장이 기를 들고 있다.)



「아루 · 고아」 회화 <1955>



「아루통」 회화 <1951>

##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사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를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코메트 · 제48호 목차

표지(表紙) . . . . . 민철홍(閔哲泓)

〈현대(現代) 미술감상(美術鑑賞)〉  
 전후(前後)의 선상회화(仙象繪畫)에 대하여 . . . . . 목차이면(目次裏面)  
 〈권두언(卷頭言)〉 언(言)과 행(行) . . . . . 주정호(朱貞鎬) (2)  
**화보** | ★김총장(金總長)의 방중(訪中) 스냅 (표지(表紙) 2·3면(面))  
 ★백림(伯林)은 증언(證言)한다(折込)

한민족(韓民族)의 민주정신(民主精神)의 사적(史的) 고찰(考察) . . . . . 이병도(李丙燾) (4)

이것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民主主義)로 성장(成長)케 했다

영국(英國)의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국민성(國民性) . . . . . 정인섭(鄭寅燮)(16)  
 프린티어와 미국(美國)의 발전(發展) . . . . . 이보형(李普珩)(19)  
 불란서(佛蘭西)의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그 창의성(創意性) . . . . . 손우성(孫宇聲)(22)  
 독일(獨逸)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그 과학성(科學性) . . . . . 김정진(金景鎭)(25)

특집(特輯) 한국(韓國) 민주주의(民主主義) 재건(再建) 운동(運動)의 방향(方向)

〈반공(反共) 피상적(皮相的)인 운동(運動)을 지양(止揚)〉 . . . . . 이철주(李喆周) (29)  
 〈경제(經濟) 자립(自立) 의식(意識)의 확립(確立)〉 . . . . . 박동묘(朴東昴) (32)  
 〈교육(教育) 혁신(革新) 운동(運動)의 방향(方向)〉 . . . . . 이종록(李鍾祿) (35)  
 〈노동(勞動) 실질적(實質的) 노자(勞資) 협조(協助)의 길로〉 . . . . . 이규철(李圭喆) (38)  
 〈문화(文化) 문학(文學)·예술(藝術) 운동(運動)의 방향(方向)〉 . . . . . 김종문(金宗文) (41)  
 〈사회(社會) 복지(福祉) 운동(運動)의 방향(方向)〉 . . . . . 탁희준(卓熙俊) (44)  
 〈체육(體育) 네 가지 기본자세(基本姿勢)〉 . . . . . 김두평(金斗坪) (46)  
 케네디 신(新) 국방(國防) 정책(政策)과 그 전개(展開) . . . . . 이윤희(李允熙) (64)  
 동서(東西) 핵(核) 전략(戰略)의 초점(焦點) . . . . . 진봉천(陳奉天) (74)

소련과 소련인 . . . . . 외지(外誌)에서 (52)

★일본 조일신문의 저명한 기자가 오랫동안 소련에 체재하면서 저널리스트의 예안으로 절의 정막 배후의 진상을 포착한 인상 및 체험기

슬픈 귀향(歸鄉) 어느 화교의 뼈아픈 수기 . . . . . 외지에서 (55)  
 ☆ 대량위갈(大量威喝)이란? . . . . . (79)  
 ☆ 자유 아니면 죽음을 . . . . . (163)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해설(解說) . . . . . 신찬(申瓚) (166)

특집(特輯) 공산주의(共產主義)와 오늘의 세계(世界)

소(蘇)·중공(中共)의 알력(軋轢) . . . . . S·자고리아 (112)  
 폴란드와 유고의 불화(不和) . . . . . 아담·브롬크드라비코비치 (128)  
 북괴(北傀)의 최근(最近) 동향(動向) . . . . . 한재덕(韓載德) (101)  
 동독(東獨)의 꿈 . . . . . 김규환(金圭煥) (96)  
 동구(東歐)[동유럽]가 적화(赤化)되기까지 . . . . . 조순승(趙淳昇) (106)  
 공산주의(共產主義)와 중동(中東)의 가는 길 . . . . . 김광섭(金光涉) (86)  
 쿠바는 공산화(共產化) 할 것인가? . . . . . 방필주(方弼柱) (91)  
 중공(中共)의 동남아(東南亞) 정책(政策) . . . . . 양흥모(梁興模) (81)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공산책동(共產策動) . . . . . 김창순(金昌順) (118)  
 소련(蘇聯)의 선전(宣傳) 술책(術策) . . . . . 김기점(金基漸) (122)  
 연구(研究) 냉전(冷戰)(하(下)) . . . . . 이창순(李昌淳) (142)  
 군인(軍人)의 사기(士氣)와 전력(戰力) . . . . . 이강화(李康和) (148)

내가마지막본모스크바 . . . . . E·무례게지한기욱(韓基旭)역(譯) (152)

★소련으로부터 학비를 지급받고 모스크바에 체류한 아프리카의 한 젊은 학생이 자기가 국제공산주의의 도구로서 이용됨을 깨닫고 모스크바를 탈출한 실기

☆ 민주주의(民主主義) 원리(原理) 세미나 ① . . . . . 김낙봉 (133)  
 ☆ 공산주의(共產主義) 세미나 ② . . . . . F·버어멧트 이동현(李東賢) 역(譯) (158)  
 ☆ 본호(本號)의 특집(特輯)에 관하여(편집후기(編輯後記)) . . . . . (174)

## 방 첩

1. 비밀 사항을 가족 친구에도 말하지 말 것
2. 비밀문건을 절대로 휴대치 말 것
3. 비밀 사항을 수첩에 기록하지 말 것
4. 비밀 사항을 전화로 말하지 말 것
5. 공문서나 공문휴지 소지치 말 것
6. 휴지는 반드시 소각하고 매몰치 말 것
7. 주색이나 식욕에 끌리지 말 것
8. 사무실을 열어놓고 비우지 말 것
9. 편지에 비밀 사항을 기입치 말 것
10. 편지는 반드시 군사 우체국을 이용할 것
11. 불평불만을 하지 말 것
12. 자기직무에 충실하고 남에게 유혹되지 말 것
13. 제 규정을 이행할 것

## 〈현대미술 감상〉

### 전후의 추상회화에 대하여

1949년부터 파리에서 발행되는 미술전문지 「금일의 예술」과 건축잡지 「금일의 건축」은 최근에 와서 금일이라는 제호 아래 종합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미술가들은 새로운 현실 새로운 공간이라는 미술전과 조각전을 조직하고 있다. 이것이 전후의 추상파를 대표하는 모임이라 하겠다. 이 추상예술운동의 모태가 된 것은 1945년 드로안 화랑에서 개최된 구체예술전이라 하겠는데 이것은 전후 최초의 추상예술의 전람회였다. 이것이 발전된 것이 새로운 현실전이며 처음에는 8, 90명이 참가하였으나 3년후인 48년에는 16개국으로부터 400여점이 모였던 것이다.

이 회화는 기하학적 추상이라는 점이 유일한 조건이며 이 원칙에 입각한 작품이면 모두가 진열되었다. 따라서 숫자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활발했으나 질적으로는 낮은 편이었다. 그러자 53년에 이르러 내부의 의견대립으로 전후 최대의 논쟁의 하나라고 알려진 이른바 냉추상 한추상의 양파로 분립을 보게 되었으나, 이 같은 혼란기를 넘어서 추상예술은 오늘의 새로운 영역을 확립하게 되었다. 여기에 각국에 있어서의 공통된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애브스트랙트 아티스트라는 추상예술가단체가 있다. 이들의 지도자들은 대전전(大戰前) 구라파[이하 유럽]에서 망명해온 작가들이다. 이태리[이하 이탈리아]에서는 53년 공간파들이 미래파 이래의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전(戰前)부터 유니트 원이란 추상예술운동이 있었는데 현재 약간의 열추상파가 활약하고 있다. 독일은 아직 회화운동 완전히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하겠으나 최근 신세대작가들에 의해서 추상회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 화퍼 토크[이후 토크]이 키오후다



동독공산정권에 의한 동서 베를린 경계의 붕괴로 인하여 헤어지게 된 동서 베를린의 어린이들이 소꿉장난의 즐거움을 회상하며, 철조망 너머로 이별을 애석해 하고 있다. 언제나 다시 만나게 될는지……. 잔약한 공산주의자들의 멸망을 다시 한 번 빌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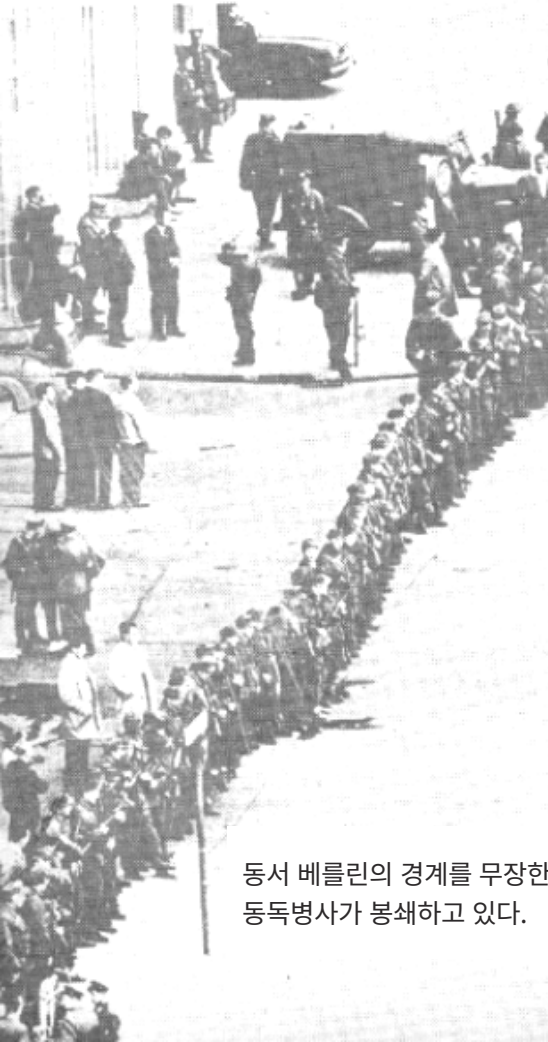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던 1945년 봄, 독일의 엘베 강가에서 미소 양군이 상봉하였으며, 오늘날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베를린의 위기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 베를린의 동서 경계선을 경비하는 미군병사, 도로 건너편의 동독 측에 소련군병사가 보인다.



동독인의 서 베를린으로의 탈출을 막기 위하여 동독공산정권은 동서경계선을 콘크리트 담으로 봉쇄했다.



베를린의 동서경계선을 철조망으로서 봉쇄하고 있는 동독 병사. →

서 베를린 시민의 경계선 봉쇄 반대 시위에 대하여 대기중인 공산군의 물탱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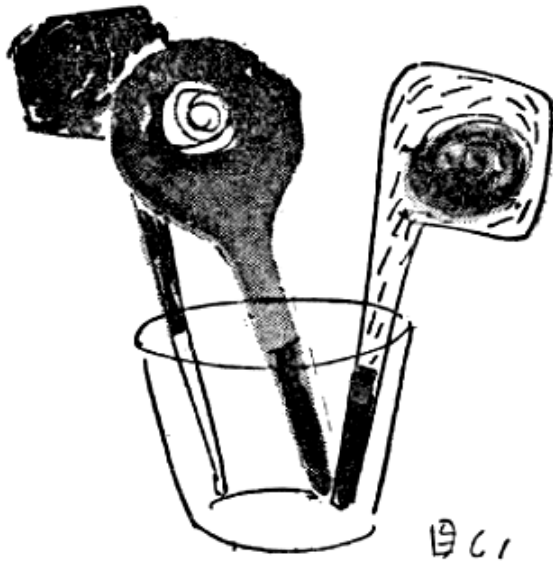
동서 베를린의 경계를 무장한 동독병사가 봉쇄하고 있다.



건물의 창을 넘어 서 베를린으로 탈출하는 동독피난민.

코메트  
THE COMET

第 4 8 號



표지 컬……무한한 창공을 웅비하며 공산주의를 제압하는  
공군의 기상을 상징 <민철홍(閔哲泓)>



서 베를린의 미군수비를 증원하기 위하여 동독공산지역을  
통과 육로로 도착한 미군전투부대의 지휘관과 서 베를린  
을 방문중인 존슨 미 부통령이 만나고 있다.



서 베를린의 미군 수비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도착한 미군  
전투부대를 서 베를린 시민이 환영하고 있다.



## 언과 행

정훈감 주정호(朱貞鎬)

지금도 세계의 지붕인 노바야 젤랴로부터는 대기권을 타고 죽음의 선물, 방사능진이 인류의 심장을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평화의 사도를 자칭하면서 인류의 해방을 누구보다도 떠벌리는 후루시초프와 그의 일당은 일로(一路) 신장되어 가는 자유세계의 번영에 초조한 나머지, 고질인 세계적화의 미몽으로 하여 스스로 평화의 도전자, 인류의 도살자로 끝내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뿐이라. 또한 이 시각에도 소위 사회주의건설이니 남반부해방이니 하는 미명 아래 말 아닌 사람에게 천리길을 채찍질하는 금수의 세계가 우리와 지척의 상거를 두고 공공연히 존재한다.

말과 행동이 같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나의 스승이다:라는 말대로 이렇듯 간교한 적과 대치해서 싸워 오는 동안 우리는 한 가지 귀중한 진리를 터득 하였다.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였다가는 오히려 그들의 농간에 속임을 당하여

큰 코를 다치기가 일수라는.

그리고 백 마디의 헛된 말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문제라는.

다행히 5·16 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국정에서 개개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이념과 실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기풍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그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던 모든 폐단의 원인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실천력의 결핍에서 연유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언과 행의 사이는 합치면 하나이지만, 갈라설 때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엄청난 공간-천국과 지옥의 구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하겠다.

토머스 칼라일은 일찍이 영웅이란 민중보다 한 걸음 앞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중이 다 말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한 걸음 앞서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웅이다”라고.

우리는 지금 승공태세를 정비하면서 참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분골쇄신하고 있다. 우리가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이렇듯 남보다 한 걸음 앞서서 자기의 지(知)와 언(言)을 실천할 수 있는 각오가 서야 하고 또 그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웅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면 우리의 민주 국력도 그만큼 충실히 지는 것이다.

이 앞장서는 한 걸음- 여기에 우리의 빛나는 내일이 약속되어 있다.

## 한민족의 민주정신의 사적 고찰

이병도(李丙燾)

### 1. 한민족과 민주정신

우리 겨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역사 공동체적 생활을 영위하여 온 지 그 연대 이미 유구하였으며 그동안에는 수많은 되풀이 되는 내우외환 중에서도 민족원이 잘 단합하고 협력하여 환난을 극복하고 민족사를 유지 발전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발전과정을 밟아오는 중에는 주위의 여러 민족들과의 접촉으로 하여 혈연 및 문화적으로 외래의 요소가 다소 혼합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의 근간 요소는 언제든지 뚜렷하고 자약하고, 우세한 것이어서, 때로 다른 요소가 가입되어도 이것을 곧



코메트  
제 48호

흡수하고, 융합하고, 동화하여 혼연한 일체를 이루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대체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풍속이 같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을 단일민족이라고도 하는 것이며, 또한 단일민족적인 공동체 통일체이기 때문에 우리 겨레의 생활과 역사를 통하여서는 항상 공통된 정신이 관류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제도문화도 유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중에도 우리의 민족사를 장식하는 민주정신은 원시 민족사회 시대부터 구미의 민주제도가 수입되기 전인 근조선의 말기까지 이 불멸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물론 다른 민족사회에 있어서도 원시시대에 있어서는 그 민주적인 관습이 행하여졌음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대개는 중간에서 소멸되어 그 유형을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지녀오는 민주정신은 비록 외래문화의 역센 영향과 내부적인 격심한 변동을 겪는 중에서도 시대를 따라 약간 형태의 변천은 있을지언정, 사회적으로 그 풍광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마음 든든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기서 우리 민족사 상에서의 민주정신이 발현되고 계승되어 온 사실들을 더듬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흔쾌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 2. 고대의 선거제도

우리 겨레의 원시 민주제는 역시 다른 민족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예와 같이 씨족을 중심으로 한 원시집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겠다. 원시사회는 물론 씨족중심 또는 부족중심 사회이었던 것이며 거기서 다시 여러 부족이 연결하여 보다 큰 동맹체 즉 종족사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각 씨족 각 부족 기타동맹체에는 각기 회의기관이 있어서 선거 쟁의 기타 중대사를 토의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던 사실들 중에서도 내외의 사서를 통하여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선거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삼국유사」에 실린 신라와 가락의 건국사회에 의하면 우리 고대삼국의 하나인 신라가 처음 6개의 부족으로 나뉘어 있을 때 6촌 즉 6개 부족단의 장은 6촌을 통솔할 군장을 선거하기 위하여 각기 부족들을 이끌고 알천 애상(崖上)에서 회의를 열고 혁거세를 선거하였다고 하며 또 가락 9촌의 장인 구간은 중석 2-300인으로 더불어 구지봉 위에 올라가 대회를 열고 가락을 통솔할 군장으로 수로왕을 맞이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고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족장 또는 동맹체의 군장을 회의에 의하여 선거하던 민주적 제도의 일단을 말하여 주는 기록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왕 즉 부족 연맹의 장을 선출하던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나중 국왕이 그 지위를 세습하게 되면서는 국왕 대신 국상을 선거하는 데에 전용하게 되었다. 즉 같은 「삼국유사」에 실린 사화(史話)에 의하면, 백제의 수도 부근에는 정사암이란 바위가 있는데 선출에서 재상을 선출하려면 거의 오늘과 같은 투표형식을 취하여 그 후보자 중에서 가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 밑에 날인 밀봉해서 이 바위 위에 놓게 하여 최종적 결정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역시 우리 고대사회에서 행하여지던 민주주의 선거방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재료인 것이다. 또한 이들 사화(史話)중에서 회의장소로 보이는 알천, 구지봉, 정사암 등이 모두 건조물의 실내가 아닌 자연의 냇가, 산 위, 바위 위 등을 택하였다는 것은 다른 민족사회에서도 행하던 것이지만, 저 뒷날 신라에서 대사를 의논하려면 대신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결정하던 사령지로 동의 청송산, 남의 우지산, 서의 피전, 북의 금강산이 있었다는 기록과 함께 역시 원시시대의 유제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삼국지」에 의하면 부여에서는 국왕 밑에 마가, 우가, 첨가, 구가 등 가축의 이름으로 불리는 대신들이 있고 이들 여러 가는 각기 사출도를 맡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왕을 중심으로 하고 여러 가가 사출도를 주관하는 제도는 한국 고래의 유희인 윗의 말판으로 남아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일이다. 어쨌든 이들 여러 제가(諸加)는 역시 부족장 격으로서 회의체를 조직하고 국왕의 선거 등 중대한 국정을 토의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흥년이 들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서 왕을 갈아야 한다느니, 심지어는 죽여야 한다고까지 하였다는 사실로도 증명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정치조직은 처음 소노, 절노, 순노, 관노, 계루부 등 5부족의 연맹체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삼국지」에서는 죄인의 형벌은 부족장의 평의에서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모든 중대사를 부족장회의에서 결정하던 사실의 일단을 말한 것이며 또 「주서」에서는 국사를 총지(總知)하는 대대로는 왕의 임명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고구려에서도 국상이 부족장회의에서 선거에 의하여 추대되던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삼. 무을과 두레

이상은 내외의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대의 특별회의 또는 군왕 및 국상의 선거사실의 일면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민주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문헌을 통하여서는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몇 가지의 잔존한 우리의 민속유물에서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이니, 그 하나는 자연발생적으로 씨족정치 군민행정을 주재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회의기관으로서의 무을의 유제요 하나는 인위적인 순수한 정신적 결사로서의 두레의 조직을 들 수 있다.

무을 즉 원시사회에 있어서 씨족정치, 촌민행정 등을 위한 회의기구의 유제로서는 지금 함경도 지방의 도청 서울 및 근교 기타 향촌에 남아 있는 공청과 전라도 지방의 동리 숲속 및 큰 나무 밑에 있는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도청, 공청, 제정 등은 지방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그 명칭과 건물구조의 양식은 조금씩 다른 바 있지만 다 같이 원시시대의 집회장소의 유제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은 대개 연령 계급에 의한 성인남자단의 집합생활을 위하여 생겨난 성인남자가옥(Manner haus)에서 출발하여, 그 후 차차 변천하여 전족원, 전 촌민이 집합 협의 또는 예배 기타 제사를 거행하는 공공건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시집회소의 유제의 명칭이 지금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청, 공된 또는 제정 등으로 불리지만 원래의 명칭은 우리말의 촌락 또는 관부의 청인 마을 즉 마을과 동일하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즉 『양서』 「신라전」에는

‘그 풍속에서는 성을 건모라(健牟羅)라고 부른다.’

라고 하였는데 이 건모라는 곧 우리말 큰모르, 큰물 즉 대촌 대읍이라는 말의 사음이었던 것이며 또 고구려 광개토왕 비문 중에 보이는 백제 지명 중의 구모로성, 고모루성 등이 역시 우리말 물, 모르로 불리는 곳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 와서 토지의 공유제도가 무너지고 사유장원제가 생긴 다음 토지관리인을 우리말로 물읍이라 부르고 한자로 사음(舍音)이라고 썼는데 여기의 물읍의 칭호는 곧 집회소 또는 촌의 장의 의미인 물읍의 잉칭(仍稱)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시사회에 있어서 부락 촌읍의 민중들이 모여 모든 일을 민주적으로 토의 결정하던 집회소의 명칭이 원래 우리말로 마을, 모을 혹은 모르였는데 이 집회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즉 부락 촌읍까지도 그와 동일하게 일컫게 되고 나아가서는 후일의 관부까지도 그 이름을 답습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 우리의 민주정신을 조장 유지하여온 조직체로서는 각 촌락중심의 두레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두레란 말은 농촌의 공동경작 또는 여자들의 공동마적에만 남아 있지만, 이는 상당히 오랜 기원과 공고한 조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종래 한자의 사를 두레라고 혼하여 오고 또 그 어원은 위요, 원주의 뜻인 둘레, 둘러에 있으니만큼 두레는 곧 결사를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또 이 두레라는 말은 한자어의 도, 접, 계 등과도 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레와 상통하는 한역어들 중에서도 가장 오랜 옛날부터 사용되던 것으로는 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위지』에서 진한인은 “서로 모두 도라고 부른다.” 하였다고 한 것을 위시해서 신라시대의 원화도 화랑도 및 향도 등과 같이 널리 불렸다.

이 두레는 대개 향촌에서 상호규찰, 상호부조를 주로 하여 향촌의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협동자치단체로서 촌락단위로 조직되었는데 그 두목을 근세에 와서는 좌상 혹은 영좌라 하고 그 밑에 실무를 맡아보는 공원이 있으며 단체마다 그것을 대표하는 기가 있고 또 소속 악대가 있어 공동작업이나 명절에는 촌락들의 성대한 유흥도 있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적인 전통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또 촌락민들의 공동 협력의 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두레에는 또 남자 두레와 여자 두레의 구별이 있는데 여자 두레는 주로 공동마적을 목적으로서 저 신라 대촌의 여자들의 가배절에 한 달 앞서부터 마적을 경기하여 팔월 보름에 그 성적을 고사하여 진편이 주식을 내어서 큰 연회를 베풀고 유흥하던 것은 가장 성대한 행사였다. 또 신라사회에서는 이 여자 두레의 가배절(嘉俳節) 놀이와 함께 약자(若者) 두레 청년 두레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화랑도의 생활양식이 높이 평가되었던 것이다. 화랑도의 조직은 곧 원시 두레에서 유래 발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도의정신을 서로 도야(陶冶)하는 것이라든지, 가락으로 상호 환락하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교유하는 그들의 생활양식이야말로 현실을 중히 여기던 원시 신라의 두레의 전통정신을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의 직능의 하나인 인물의 추천 같은 것은 원시 민주제의 유흥을 그대로 잘 승습한 것이라 하겠다.

### 사. 남당과 화백회의

원시시대의 씨족이나 부족사회는, 상호간의 대립항쟁과 정복관계에 의하여 차차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가진 정치적 사회로 변천하여 왔다. 또한 이에 따라 지배부족의 회의기관은 그대로 정치사회의 정청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초기 정청의 모습은 백제와 신라의 남당 도당제로 전하여진다. 남당의 일명인 도당은 지금까지 전래하는 부락집회소의 변형인 도청 공청의 의미와 상통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남당으로 된 것은 아마도 그 위치가 군왕의 거소 남측에 있었으므로 해서이었던 것 같다.

초기의 남당은 부족집회소의 직접적인 후인이었던 만큼 군장과 각부출신 관리들이 모여 정사를 논의하고 처리 집행하였으므로 그 성격은 원시집회기관과 거의 비슷하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면 초기의 남당은 회의기관

도 되고 실무집행기관도 되는 국가생활의 중심적인 정청이었으며 또 종종 의식과 행사를 거행하는 원시집회소 이래의 중요임무를 모두 그대로 상속하였던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남당의 명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백제에서는 제8대 고이왕 서기(234-285)시대, 신라에서는 제12대 첨해왕(서기247-261)시대로부터인데 그 후에 보이는 기록들에 의하면 이 남당은 대개 군왕의 청정과 중대사가 있을 때의 군신회의 및 양로연, 군신연 등의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시사회의 구각이 벗겨지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갖추어짐을 따라서는 이 남당에서 친정, 회의 및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 군왕과 대소 관원들의 좌석제(座席制)도 확립되었던 것이니 저 신라에서 국가체가 이루어지고 국제무대에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던 제17대 내물왕 시대(서기356-401)부터는 왕의 칭호도 이 남당에서의 왕좌 궤표의 칭을 따라 마립간 또는 누한으로 내외에서 불렸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고대국가체제의 수립과 함께 원시 민주집회소는 정치사회의 정청인 남당으로 바뀌어졌으며 회의의 주재자로는 세습의 군왕이 대개 주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당회의에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민주정신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즉 『수서』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대사가 있으면 군신을 모아 상의하여 결정한다 하였으며, 『당서』에서는 모든 일을 여러 관원들과 함께 의논하며 이것을 화백이라 하는데 한 사람의 이의가 있어도 파의하고 만다 하였다. 이 두 기사는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신라의 화백제도 즉 남당회의에 관하여 각기 표리 하여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즉 여기에 의하면 화백이란 곧 대사건이 있을 때에 개최하는 것, 또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통 인민이 아닌 군관이었던 것이니 다시 말하면 후세의 백관회의, 군신회의와 같은 성질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 화백회의의 특징은 저 『당서』에서 1인이즉과(一人異則罷)라는 것이다. 즉 화백회의의 결의는

요즘의 민주사회제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수결이라든가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식의 것이 아니요 반드시 한 사람의 이의도 없는 의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서만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체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결의제도는 그것이 곧 신라사회에서 일찍부터 있어오는 6촌 회의제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오. 의합과 봉박 서경

신라시대 화백회의의 만장일치 의결방식은 그대로 고려시대에서도 계승되었다. 즉 고려시대에서는 국가의 중대사를 의결하는 기관으로 도병마사(뒤의 도평의사사) 회의가 있었는데 이 도병마사사는 제주 양부 즉 문하성과 추밀원의 고관들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였다. 도병마사의 직은 처음에는 국방 최고위원회로 출발하여 지방병마사에 대한 통제, 변경지대의 성축 군사훈련 등 국방에 관한 일을 관할하였는데, 후에는 그 권한이 차차 확대되어 국경 전반에 걸친 중대사항들을 의결하여 왕에게 주청 재결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도병마사사는 그 회의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입장 착석에서부터 안건의 결정을 보기까지 모두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엄정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토의사항은 반드시 '정우일(定宇一)한 뒤 시행 즉 전원의 의견일치를 본 다음에야 시행한다는 것으로서 이것을 의합이라 하였다. 이 의합이나 신라의 화백은 모두 우리의 고대사회에서 얼마나 국사를 다루는데 신중을 기하고 또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던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서 오늘의 민주정치체제하에서도 좋은 참고가 되는 일이다.

다음 고려조의 정치제도상에 있어서 왕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가하여져 있었음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리인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느니만큼 민주사회는 물론 군주정치체제하에 있어서도 군왕 일인의 독재와 전횡에 맡기어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군주정치체제가 이미 확립된 고려조이었지만 그 제도상에 있어서 왕권에 대한 종종 의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한 일인 것이다. 그러면 그 제약의 규정들은 어떤 것이 었던가?

그것은 곧 언관의 봉박과 간쟁 및 서경에 의한 견제였다. 언관이란 대간을 말하는 것으로, 즉 감찰기관인 어사대와, 간쟁 등을 맡은 문하성의 낭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중에도 문하성은 군주의 조칙을 맡아 공포 시행하는 기관이지만, 실지 문하성에서는 그것을 무조건 봉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칙을 심의를 가하여 그대로 공포하고 불가하다고 인정되면 어떠한 조칙이라도 이것을 도로 군왕에게 봉환하였는데 이것을 봉박이라고 하였다. 또 청장년의 중품관리로 충당된 문하성의 낭사들은 군왕의 과오와 비행을 솔직하게 간쟁하는 권한까지도 가졌던 것으로서, 그들의 자유롭고 올바른 언론이 그 정치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역할한 바는 컸던 것이다.

다음 서경이란, 관리임명에 대한 최종결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권한은 역시 대간에게 있었던 것이다. 즉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관리임명제도는 원칙적으로 문관은 이부에서 무관은 병부에서 보직자의 신분, 이력, 재능 등을 심사하여 국왕에게 주청하면 국왕은 그 결정임명의 비목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임명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요. 왕이 문안서류와 함께 보직자의 고신 즉 임명장을 대간에게 보내어 그 서명을 얻어야 비로소 취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서경이라고 하였다. 이 고신 서명에 있어서도 대간은 엄밀한 심사를 가하여 부적하다고 인정되면 서명하지 않으며 그러면 그 임명장은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던 것이다. 고려 일대를 통하여서는 이 서경 문제로 하여 국왕과 대간사이의 충돌이 비밀비재였으며 또 국왕의 권력으로도 대간에게 서경을 강제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대간은 관리임명에 대한 최종결재인 서경의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신정 및 개정 등에 대하여서도 그 최종적인 서명결재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의첩서경이라고 하였다.

#### 육. 근조선의 회의제와 만인소

근조선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타 모든 부문이 대개 고려적인 기반 위에서 서서히 개혁과 재조직(再組織)을

실시하여 왔던 것이니만큼 고려조에 있어서의 도병마사사 회의라든가 대간의 서경제도 등이 비록 다소의 변형은 있을망정 그대로 계속되었다.

처음 의정부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고려조의 도평의사사와 문하부를 합한 것으로서 영의정과 좌우의정이 있어 국정을 협의하여 왕께 품달하며 또 왕의 결재를 받아 각사에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후 제 13대 명종 10년(서기 1555)에 왜구의 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변사를 설치하니 이것은 마치 고려조의 국방총합기구로서의 도병마사사의 창설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임진, 병자의 양대 전란을 겪는 동안 그 직능은 점점 확대되어 국방관계 뿐 아니라 모든 국정상의 중대 문제를 토의하게 되었으며 그 구성원도 의정을 위시한 문무고위층을 망라하게 되었으니, 고려시대의 도병마사사의 5판과 같이 되었다. 또 대간의 직으로는 시정을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 교정을 임무로 하는 감찰기관의 사헌부와, 왕명에 대한 간쟁 논치를 임무로 하는 사간원이 설치되어 서경 등의 일도 맡았었다. 그런데 이중 비변사회의에서는, 지난 날 도병마사사 회의에서의 의합제도가 거의 없어졌으며 대간이 맡아 하는 서경의 범위는 당하관 임명에만 국한되어 제도상으로는, 고려조시대에 비하여 민주적 정신이 적지 않게 감퇴된 감을 주게 한다.

그러나 근조선은 이태조의 건국과 함께 유교의 민본주의에 근거하여 중민정책을 썼던 만큼 이 방면의 새로운 시설과 발명도 있었다. 예를 들면 태종대왕이 민중의 원익한 일을 직접 임금에게 상소하는 방법으로서 신문고제도를 창설한 것이나 세종대왕이 국민산업인 농업에 영향을 주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로 측우기를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두어 이용하게 한 것 같은 일은 모두 민중을 위한 또는 민중과 고악을 같이 하려는 치자계급(治者階級)의 성의의 소치였던 것이다. 또 저 세종대왕이 국문을 제정한 이유로서 “우부우민이 할 말이 있어도 그 심중을 표현치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한 것을 보아서도 그 얼마나 민중을 위하고, 민의를 청취하고 존중하려는 정신이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여기서 민중의 의사는 정치에 잘 반영되고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었던 것인데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실례로는 권문회회의와 만인소의 사실을 들 수 있다. 국가의 중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국왕

은 원로회의, 군신 등 각종의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로 및 백관들의 격의 없는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회의 중에서도 궐문회의는 가장 범위가 넓고 또 원시 민주적 회의였던 것으로서 왕이 친히 대관문에 나와 앉고 도성 및 향촌의 사(士) 서인(庶人)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그들의 의견을 널리 물어보았으며 또 왕은 여기서 진술되는 민중의 의견들을 그 어떤 중대 문제를 결정 처리 하는 데의 중요한 참고로 삼았던 것이다. 저 영조대왕이 당시 평민층의 무한한 고통이 되던 양역의 폐해를 고치고 균역법을 실시하려 할 때에 대신과 사류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구구하여 결정을 보지 못하게 되자 친히 두 차례나 홍화문에 나와서 재조 제신과 사서군민들을 모아 대화의를 열고 중의를 들었던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일이다. 이런 회의의 방식은 물론 원시적인데 가까운 느낌도 있지만 군주정치체제하에서는 매우 희귀한 민주주의적 방식인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부터 있어오던 지식층의 상소제도는 유교를 숭봉하고 사림을 우대하는 근조선으로 들어오면서는 한층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즉 국왕이나 정부의 비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식분자들은 누구나 상소하여 그 시정을 요청하며 또 국정에 대한 건의도 자유로이 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을 앞두고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던 울곡(栗谷) 이이(李珣)나 중봉(衆峰) 조헌(趙憲) 같은 유현들이 시정의 득실을 논하고 국방대책을 건의한 상소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인조 이후로는 재야 사인들의 연명상소가 성행하여 한 소에 연명한 지식분자가 혹 수백인, 혹 수천인 내지 만인에 도달하였으며 이 연명상소가 정치면에 반영되는 바도 많았다. 특히 영남사인들 중에 이러한 기풍이 대단하여 국왕 또는 정부나 대신들의 비행을 지적 탄핵하여 상소하는 일이 많았으며, 또 이 연명 상에는 반드시 학식과 기개가 특출한 인물이 소수 즉 대표자로 추대되었는데, 사인들 간에는 이러한 소수가 되었던 인물을 두고두고 명현 대신집 이상으로 염청하여 왔음을 볼 수도 있었다. 최근 세에 와서 김홍집 일파의 개화친일정책을 규탄하던 영남인들의 만인소(소수 이만손)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특진관 조병세, 시종무관장 민영환 등이 전후하여 소수가 되어 조약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장을 올리던 일은 너무도 유명하다. 대개 우리 민족사회의 정치는 오랜 옛날부터 회의와 이론을 중히 여기어 왔던 만큼 그 민주정신

과 민주제의 유풍은 뿌리 깊게 남아서 군주정치가 장기간 실시되는 중에서도 연면하게 계속되고 때로는 강렬하게 발휘되었다. 또한 이러한 민주정신과 민주제도가 정치면에서 잘 실현되고 운용될 때에는 국가가 부강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민중생활이 행복하고 번영하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반대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국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오늘의 우리도 이러한 민족전통의 민주정신을 다시 살리고 크게 발휘하여 새로운 민주복지 사회의 건설을 기필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筆者)·사학자(史學者) 전(前) 서울대학교(大學校) 대학원(大學院) 원장(院長))

### ☆시간의 가치

웰링턴 공작이 어느 날 시청의 고급관리와 런던교 근처에서 만날 약속을 하였다. 그 시각에 시청관리가 가보니 웰링턴은 이미 와 있었는데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면서

“5분이나 지각일세……”라고 불쾌한 어조로 말하였다.

“각하 불과 5분정도 늦은 것이니 그리 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과 5분이라고? 그 사이에 나의 군대가 패했을 지도 모를 일일세.”라고 정색을 하면서 나무랐다.

그런 뒤 다음번 약속에는 이 관리가 웰링턴을 골려 줄려고 일찍 나가서 기다렸다. 과연 웰링턴은 얼마 뒤에 왔다.

“어떻습니까? 각하 제가 5분 빨랐습니다.”라고 말하니 그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자네는 시간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군! 나는 꼭 제 시각에 온 것일세. 5분을 낭비하다니 아깝기 짝이 없는 일이야!” 이 말에 그 관리는 어찌 할 바를 몰랐다.

### ☆독설화

극작가이자 시인이며 평론가이기도 한 벤·존슨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가도 내놓는 음식을 비평하고 욕하는 것이 버릇이었다. 더구나 굉장히 투덜대기 때문에 그 집의 주부는 완전히 기분을 잡치고 식탁을 같이 한 사람들은 식욕을 잃게 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어느 때 초대된 집에서 훗치פות치를 내놓았는데 이것을 돼지죽 같다고 투덜댔다. 그런데 이것은 그로서는 커다란 실수였다. 그 말을 들은 주부는 비꼬는 말로

“참말 그러시다면 한 접시 더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라고 말하였다.

그때부터 벤 존슨은 자기의 이제까지의 독설을 한결 제어하게 되었다.

## 이것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民主主義)로 성장(成長)케 했다

### 영국(英國)의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국민성(國民性)

정인섭(鄭寅燮)

영국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오늘날의 영국 민주주의는 단시일에 성립된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으나 지금의 애런[이하 아일랜드]의 선조인 케르트 족과 지금은 서쪽에 현존하고 있는 우웰스 족 및 북방에 있는 스코틀랜드 민족들이 일시 영국본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후에 덴마크 지방에서 들어 온 스칸디나비아 족속의 일부분이던 앵글로 족과 색슨 족, 쥬트 족이 이들을 정복하고 비로소 영국을 건설하였다. 원래 이들은 남의 영토를 침입하던 계족에 불과했지마는 현명한 왕과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노력으로 가장 점잖고 예의가 깊고 극단을 피하면서 올바른 전통과 새로운 장점을 잘 조화시켜서 오늘과 같은 자랑할 만한 영국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 그렇지만 긴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란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정치권리를 위하여 반대자를 무참히도 사형에 처하며 혹은 왕의 계승자인 어린 왕자들을 암살에 가두어서 사망케 한 일도 있으며 그 사실은 오늘날 런던시 템스 강변에 있는 런던탑을 구경하면 그 성벽에 둘러싸인 감옥의 마당 한가운데 그 때의 단두대 자리도 남아 있고 공포의 방이라고 하여 어린 왕자를 없애게 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또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마담 투소 박물관에는 영국 역사의 주요한 인물과 장면을 밀(蜜)로써 모형틀을 만들어서 보이고 있는데 거기 도 그들의 비민주적인 시대가 전시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참혹한 형벌을 받는

백성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런던 본부 바로 옆에 있는 세계에서 유명한 대영박물관이다. 그 안에는 특별한 귀중도서를 보여주는 별실이 있어 유명한 종교가, 정치가, 예술가들의 필적을 보여 주는 별실이 있고, 바로 그 옆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방이 있는데 들어가면 우편에는 세익스피어가 돈에 궁해서 자기 집을 저당 잡힐 때 집문서에 서명한 문헌이 있고 그 옆에는 영국이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이 나란히 있으며 돌아가서 좌측에는 3개의 유리상자가 있는데 그 속에는 오늘날 영국의 헌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가 소중하게 보장되어 있어 그 위에 덮여있는 커튼을 베끼면 역력히 그 문구를 볼 수 있다. 이 마그나 카르타의 하나는 작은 백지 한 장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밀(蜜)로써 만들어진 그 당시 임금의 도장이 적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런던시의 큰 화재 때 입은 흔적을 남겨 한쪽이 좀 타고 누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 백성의 권리를 돌보지 아니하였던 부패 잔인한 왕을 일부 신하들이 의론하여 런던시내 템스 강 가운데 있는 섬에다가 감금 해놓고 백성들의 권리를 존중하리 한다는 글이 써진 이 마그나 카르타를 들이밀어서 거기에 응낙하게 하고 서명을 시킨 것이다.

그 후로부터 영국은 소위 민주주의가 배태되었으며 그것이 발전하여 여당으로써 토리당 즉, 오늘날의 보수당이 생겼고 거기에 대립하는 야당 즉, 처음에는 자유당(리베럴 파티)이 생겨서 국회를 마련했던 것이다. 제1차 대전 후에는 노동당(레이버 파티)이 생겨서 야당의 행세를 하게 되었다. 자유당은 일종의 중립주의로서 소수당으로 떨어져 오늘날 몇 석을 차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립된 영국의 국회도 그 발달사를 보면 처음에는 부정선거가 많았고 선거인을 매수하며 부패된 일이 비일비재 하였으며 어떤 때는 의회 속에 뱀을 던지고 병을 던지는 일종의 난투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에 와서 왕을 그대로 모시고 있으면서 국회의 개회나 폐회는 상원과 하원이 합쳐서 반드시 왕의 출석과 선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백성들이 왕을 국가의 상징으로 받들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다른 독재적인 군주국가와는 달라서 신비로운 권력도 아니요 오로지 웃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자기들의 국가와 역사를 자랑하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민이 왕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이러한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다. 특히 옛날 영국이 여왕시대에는 언제든지 반창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받들어 국민이 총동원하여 영국의 명예와 번영을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견 전통을 극히 소중히 하는 민족이라 하겠지만 그 반면에는 가장 진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에는 놀고먹을 수는 없지마는 거기까지도 매주 생활비를 정부에서 받고 있고, 또 양로원제도도 발달하여 자식이 책임지지 아니하는 60세 이상 노부모는 전부 국가에서 수용하고 죽을 때까지 안전한 생애를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제도도 말하면 의사가 사리사욕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찰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약도 어떤 병이든지 1실링 이상의 값은 국가에서 지불하되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치과 의료도 처음에 1파운드만 내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평생 국가의 비용으로 치료 받을 수 있고 안경도 마찬가지다. 큰 사업은 국영이지마는 개인 기업도 존중하고 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모두 싫어하고 있는데 그 일례를 들면 영국에서 제일 큰 하이든 파크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별별 연설꾼이 나와서 정치연설까지 하지마는 청중들이 다만 남의 의견으로만 듣고 자기들로서는 하등의 공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리에서 여하한 시위운동이 있어도 그들은 일절 본 척 만척하여 자기들의 할 일만을 지키고 있다. 그 때문에 시민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끝을 맺는다. 이상 말한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정치의 하나는 종합적인 건설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니 그들이 자랑하던 그 많은 영토, 즉 대영제국의 영토에서는 태양이 질 때가 없다고 자랑하던 그들의 식민지에게 대부분 오늘날 자유를 인정하여 독립 혹은 자치를 하도록 하여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라 소위 공동권의 콤파스 웰스(COMMON WEALTH)라는 테두리 속에서 서로 웃는 낮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민주주의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일례를 들면 현재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으로 취임하던 대관식 때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는 물론이요 기타 아프리카, 아메리카, 태평양 대서양에 산재한 옛날의 모든 식민지주권자들이 같은 행렬에 참가하여 소위 영국정치가 폭이 넓다는 것을 과시하였던 것이다. 아직도 그들이 세계에서 정치를 제일 잘 한다고 자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화폐제도를 논한다면 영국의 화폐단위 가치처럼 복잡한 것이 없다. 1화빙이 1페니가 되고 12페니가 1실링이 되고 20실링이 1파운드가 되고 또 그 이외에 1파운드 1실링을 1진이라고 계산한다. 이것은 미국이나 기타의 십진법에 비하면 계산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거대할 때도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들은 이것을 여전히 고집하고 그러한 전통 테두리 안에서 콤파스 웰스 모든 지역을 한 세력권으로 하여 소위 영국의 화폐 스틸링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과 건설을 잘 조화시켜서 점진적인 영국의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교육제도를 말하면 가정적 교도(쿼터 시스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할 때는 먼저 그룹으로 되어 있는 기숙사를 작정하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 밑에서 1년을 지낸 후야 자기 집이나 하숙에 갈 수 있는데 특히 옥스퍼드와 캠브릿지가 그러하다. 또한 과목을 많이 주는 것 보다는 소수의 필요한 전공과목에 몰두시키며 인격도야(人格陶冶)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는 식당에 서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잡담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무척 귀중히 여기고 있다. 어떤 대학에서는 연한만 채워서 출석하면 그것으로서 졸업자격을 인정하며 시험은 쳐도 좋고 안쳐도 좋다. 다시 말하면 그 학교에 적만을 두어도 그 학식과 인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즉 좋은

전통을 이어 오는 동시에 남의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자기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기를 목적하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찻집에서 차나 점심을 먹더라도 각자 자기의 값을 각각 치른다. 이것은 남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동시에 자기의 인격을 보장하자는 데에 그 저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우월감도 필요 없지마는 구태여 남에게 대하여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건전한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례를 들면 상품 중의 일등 고급품은 전부 수출하고 국내 소모품은 그 이하의 상품으로서 만족하고 있으니 국가 수지를 위하여 국민이 전부 협력한다는 산 증거인 것이다. 영국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사교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기차나 전차 내에서 큰 소리를 치며 떠드는 소리를 못 들었으며 내가 여러 해 있는 동안에도 거리에서 싸우는 광경이나 발걸하는 것까지도 못 보았던 것이다. 소위 신사 숙녀들은 언제든지 비에 대비하여 우산을 지팡이로 삼고 다니며 여름에는 셔츠 바람으로 거리를 헤매는 예를 보지 못했다. 비록 적은 섬이지만 북극의 사나운 물결을 이기고 세계의 항구에 진출하여 나라를 부강 시키려는 그들의 정신과 노력은 애란(아일랜드)을 독립시킨 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쉽게 말해서 한 손에 펜을 쥐고 또 한 손에 주판을 들고 이 두 가지에 영혼과 물질,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키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과 민주주의가 그들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필자(筆者)·중앙대학교(中央大學校) 대학원장(大學院長))

## 프런티어와 미국(美國)의 발전(發展)

이보형(李普珩)

북미대륙에 영국인이 처음으로 식민지를 마련한 해는 1607년이였다. 그 뒤 19세기에 이르기까지의 3세기에 걸친 미국사의 큰 줄거리의 하나는 서부개척의 일대 멜로드라마였다. 이 동안에 미국인은 동서로 약 13,000리, 남북으로 약 1,500리의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였다. 식민 시대에는 이들은 대서양 연안으로 부터 불과 100리 내지 200리 내륙으로 진출한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지역은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 정복된 것이었다. 이들은 그 때까지 서부 진출의 하나의 장벽이었던 애팔래치아 산맥을 넘어 미시시피 강 대평원 지대를 거쳐 다시 험준한 록키산맥을 넘어 19세기 중엽에는 벌써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서부 진출은 직선적 운동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 오하이오 강 미주리 강 사이의 중서부 지방을 개척한 뒤 서북으로는 미주리 강을 따라 태평양 연안의 오래된 지방으로 들어가고 미시시피 강을 넘어서는 서남으로 텍사스의 넓은 지역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대서부, 야만과 문명이 교착하는 변경-프런티어에서는 미력한 인간의 대자연에 대한 도전이 날이 전개되고 있었다. 미국의 거대한 부력(富力)과 생활양식화한 민주

주의는 바로 이 도전의 산물이었다. 그러면 미국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부를 개척하여 갔는가. 우선 들소와 사슴이 염분이 들어 있는 수원지를 찾아 서부로 간다. 이 뒤를 아메리카 인디언이 쫓아간다. 다시 이 뒤를 인디언이 잡는 들소와 사슴의 모피를 사들이는 상인들이 따라 간다. 동시에 미국인의 수렵업자들이 직접 모피를 얻기 위하여 따라 간다. 그러나 이들 모피상인 수렵업자는 아직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개척민은 아니다.

이들은 문명의 침병으로서 뒤에 물이 밀듯이 밀려오는 개척농민의 길잡이의 일을 보게 된다. 서부에 가면 비옥한 농가가 무한히 있고 그러므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무한히 있다는 것이 동부에서 과히 햇빛을 못 본 사람들. 또 유럽대륙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서부로 가는 촉진제가 되었다.

자력(實力)이 없는 사람은 도보로, 있는 사람은 말 또는 마차를 이용하여 서부로 갔다. 그러나 누구든지 라이플총과 도끼와 옥수수는 꼭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라이플총은 사냥을 하는 데만 소용된 것은 아니었다. 인디언과 또 서부에 홀려온 무법자와 싸우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하였고 되도록이면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어야 했다. 도끼는 처녀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옥수수는 그들 및 가축의 식량으로서 필요하였다. 더욱이 옥수수는 경작하기가 편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개척농민이 서부로 온다.

어떤 농민은 약간의 처녀지 개간하고 통나무집을 지어 사람이 살만한 최저 한도의 터전을 마련하면 그 보다 뒤에 오는 새로운 개척농민에 그 터전을 넘기고 다시 서부로 이주하였고 어떤 농민은 그대로 정주의 뿌리를 처음 온 장소에 내렸다.

이러는 동안에 교통의 요지에는 잡화상, 마구상, 대장간, 주막, 학교, 교회 그리고 주택이 있는 서부의 전형적인 마을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여기 서부에 문명은 이식된다. 그러나 서부로 이동한 사람들은 물론 모피상인, 수렵업자, 개척농민만은 아니었다. 럭키산맥 일대를 무대로 한 광부들, 대평원을 무대로 한 목축업자-카우보이들 역시 서부를 개척한 사람들로서 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서부의 개척이 미국을 물질적으로 번영시키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질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부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다대(多大)하게 기여한 점이다.

우선 서부는 새로운 국민인 미국민의 출생지가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앵글로 색슨 계의 민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유럽의 각종민족이 이주하여 옴으로서 건설된 국가이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들은 완전히 구대륙의 전통 관습으로부터 탈피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척이라는 동일한 경험을 겪는 과정에서 민족적 차별과 같은 것은 서서히 없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고장을 그들의 손으로 스스로 마련하였다는 하나의 자부심은 구대륙의 고향 보다는 새로운 이주지에 대하여 강렬한 애착심을 갖게 하였다. 더욱이 유럽에서 학대를 받은 사람일 수록

이러한 감정은 강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미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자각이 또한 만들어 졌다. 실로 서부는 각종의 민족을 혼합하여 미국인으로 제조하는 하나의 도가니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둘째로 서부에서의 생활은 강력한 평등사상을 길러 주었다. 앞서 지적한대로 민족의 차별이 자연적으로 소멸하여 가듯이 서부에서의 생존조건은 빈부의 차라던가 교육의 유무라던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 하는 일이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곤란의 극복 여부가 문제이지 과거의 신분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하는 것을 따져 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므로 '만인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상이 하나의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재로서 개척민에게는 느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평등사상과 더불어 서부에서는 개인주의사상이 또한 발전하였다. 서부에서는 과거의 전통 관습에 의지할 수 없듯이 타인의 힘에도 의지할 수 없었다. 당면한 곤란한 과제는 그때마다 각자가 해결해 나가야 했다. 각자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표준이 되었다. 각자는 독립독행이어야 하며 또한 타인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곤란을 극복하여 나감으로서 서부의 사람들은 강한 자부심과 자신을 갖게 되었다. 서부의 사람들은 개척초기의 누구든지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았음으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또한 개인의 인격을 상호 존중하는 기풍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졌다.

이미 본 바와 같은 세 가지 점, 역사와 전통을 달리하는 모든 이주민의 아메리카화 평등사상 개인주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정치체도로써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종래 미국의 서부는 정치체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항상 선편(先鞭)을 잡은 것 같이 생각되어 왔다. 물론 이 면에서의 중요한 업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898년에 주로 승격한 와이오밍 주는 성년부인에 참정권을 부여한 최초의 주이며 또한 오레곤 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발의권을 제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치체도의 민주화는 사실은 대서양 연안의 동부 제주(諸州) 또는 이미 개척을 끝낸 중서부지방에서 항상 추진되어 가고 여기서의 결실이 서부에도 이식되어 갔다. 다만 이와 같은 민주화의 제도가 서부에서는 곧 실시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들은 세 가지 점이 그들의 체질 속에 완전히 소화되어 그것과 상반하는 생활이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양식화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서부의 생활은 이 외에도 미국민의 국민성을 형성하는데도 기여한 점이 많다. 미국민의 소탈하고 평민적 성격, 타인이 하는 일에 대한 좋은 의미에 있어 서의 무관심, 실용적 사고방식과 생활태도, 정력의 팔시 '명일은 금일'과는 다르다라는 항상 미래에 희망을 찾는 낙천적 인생관은 모두 서부에 있어 서의 개척생활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서부 즉 프런티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국가적 발전에 다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너무 이것만의 의의 강조하는 것은 미국사를 옳게 보는 견해는 아니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부 즉 프런티어적인 환경은 결코 미국

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지도를 펴보면 러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곳에서도 프런티어는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곳에서는 프런티어가 미국에 있어서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곧 프런티어에만 어떤 절대적 의의를 발견하려는 이론을 부인하는 손쉬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의 발전에 있어 프런티어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요소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는 민주적 정치 관념과 또 하나는 자본주의적 경제 제도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프런티어가 전진하고 있을 때 이 두 요소도 또한 전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프런티어 민주적 정치관념, 자본주의적 경제제도의 세 요소는 항상 병행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동적 성격, 정체도 없고 침체도 없고, 항상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계속하였다는 것이 오늘의 미국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이미 미국에는 프런티어는 없다. 그것은 과거에 있어 미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무한한 토지, 무한한 자원, 무한한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런티어의 유산은 미국민의 마음과 뼈속에 하나의 전통으로서 스며들어 있다. 이 전통이 미국의 새로운 전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불란서(佛蘭西)의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그 창의성(創意性)**  
손우성(孫宇聲)

유럽인의 기질은 그 본성이 전투적이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며 인간으로서 남에게 예속되기를 거부하는 기질 속에 민주주의의 근원이 있다고 본다.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의 위치에 처해서 서구에서 가장 먼저 희랍, 라마의 문화에 물든 다음에 중세기 민족 대이동의 전란을 겪으며, 외래의 정복민족이 늘 지배자로서의 계단을 차지하여 왔으나 토착민족인 골로아 족은 아직 여러 부족이 분립하여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면서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정복당하였을 때에는 전 민족이 단결해서 그들의 재간껏 끝까지 싸웠다는 추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므로 지배자는 이분자라는 의식은 언제나 민중의 마음속에 살아서 항상 울분과 질시와 야유의 눈으로 위정자의 하는 일을 감시하는 눈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정복자들이 몇 번이고 민중을 무찌르고 지나가는 것을 당하며 때로는 몽고족이나 회교군의 잔학한 침략을 막아 내었다. 지배자에게 억압을 당하면서도 민중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들의 잃은 권리를 찾으려고 지배계급의 허를 노린다.

자기의 권익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이 투지는 중세기에는 제후들 사이의 끊임 없는 투쟁과 그리고 지배자의 가렴주구에 대한 반항, 그리고 중앙집권, 전제제도 확립 이후에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꾸준히 표현되어 왔다.

이 반면에 서구에는 희랍, 라마, 문화에 물들기 이전부터 개인주의와는 정반대

인 촌락공동생활체(Communaute) 정신이 깊이 뿌리박혀서 이것을 생활감정으로 살아왔으며 카이사르의 침입 때에는 이 정신으로 미개한 골로아 족 20만 대군이 발달된 라마의 강력한 무기 앞에 대항하며 부서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에 있어서는 개인의 권익과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관념이 병행하였으며 수많은 민중의 반란도 이 정신으로 지배자의 옳지 못한 처사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용이하게 서구 전역에 전파된 것도 초창기 기독교 사상에 지배자의 부정에 대한 반항과 그리고 만민은 평등이라는 계급무시의 관념이 그 골자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서구 토착민의 부락공동생활 관념과 정복자 지배자에 대항하려는 의욕에 은밀히 부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그런데 조직체는 무조직(無組織)에 이긴다. 라마의 강대는 이것으로 이루어 졌으며 기독교의 전파력도 그 신도들의 강열한 신념과 아울러 청명한 전도자들의 교포 정치한 세포조직체에 의하였으며 1,000여년을 계속한 봉건제도를 부시고 세워진 루이 14세 태양왕의 위세 높은 전제군주제도도 이 조직력에 의거하였다.

조직체는 대개 지배자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리고 다른 조직체도 그 존립의 계속을 원하려면 불가피적으로 지배세력의 의사에 구합한다. 그래서 유럽의 정신적 지배체인 기독교는 언제나 세속정권에 영향하며 그 결과로 개인사상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래서 군주제도하에서는 정권과 교권은 항상 민주주의의 적이 되었었다.

부락공동생활체 정신은 그 자체가 조직력을 가진 만큼 기독교와 아울러 정권의 조직체에 이용당할 약점이 있으므로 서구인은 강력한 자기 주장력에도 불구하고 전제 제도하에서 민주주의 정신이 질식하였을지도 모른다. 여기는 지성인의 역할이 컸었다. 대체로 민주주의의 발상은 서구인에 있지 않고 희랍, 라마의 고대에 실천된 사상이다. 그들의 문화는 독제에 대한 민중의 투쟁에서 일어났고 정복자의 방대한 권력 밑에 압살 당하였다. 그러나 공공정신과 완전히 결합된 민주정신은 문헌으로 남아서 도서관 등의 서고 속에 깊이 사장되어 있던 것이 15, 6세기 문예부흥시대의 고대송상 사조를 타서 학자들에 의해서 탐독되어 자아의 각성과 인간 자유의 정신이 팽배하게 일어나며 이 문예부흥 시대에 잠깐 지성은 17세기 전제군주제도를 확립시켰음과 아울러 이 전제제도와 기독교리의 엄격한 사상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제도와 기독교제도의 기초를 비판정신으로 파고들어 드디어 프랑스 대혁명으로 거대한 이 두 건축을 전도시키고 말았다. 그렇다고 인간성의 본질의 일면을 파악한 기독교의 사상적 심도와 전제제도의 위대성에 대한 민중의 흠모의 이념은 이 두 거대한 역사적 존재를 완전히 박멸시키진 못하고 기독교는 가도력(加徒力)의 정신적 매력으로 여전히 민중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전제주의 사상은 그 제도가 민중의 골수에 맺힌 원한과 :증오의 대상이었으므로 이 제도는 대혁명 후에도 몇 번 고개를 쳐들다가는 완전히 타도되고 말았다.

지배자에 대한 경계심은 프랑스 민족심에 뿌리박은 전통이다. 지배자가 강력한 때에는 직접의 탄압을 피하는 풍자로서

대항하였다. 그것은 권위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이다. 거기는 냉철한 감시의 눈이 번득이니 그것은 비판력을 필연적으로 발달시킨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예민하고 세련된 지성이다.

예민은 경계심의 소산이며, 세련은 전제도의 호화로운 문화생활의 덕택이다. 그러므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올바른 소리가 나오면 탐하듯이 귀를 기울이며 지배계층이 권위를 세우며 내리는 말에는 점잖은 대구로 바늘 끝을 감추고 흘려 넘긴다. 그것은 반드시 민중뿐이 아니라 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귀족이나 상류계급부터가 그렇다. 몽테뉴는 출생으로 사람에게 칭하가 생기는 것을 의심하였고 왕서(王嬭)의 사부이던 라브뤼에르는 왕족의 우둔을 목격하고 은근히 귀족계급을 풍자하였다. 16세기에 상류계급 지식층이 모든 신사상을 환호한 것은 이 경향의 발로이다.

그것은 세상을 비꼬아 말하는 것을 듣는 재미에서 비꼬아 세상을 보는 악취미로 들리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남이 하지 않은 말을 하기와 듣기를 즐기는 데서 의외로 발자(潑刺)한 창의성을 북돋아 갔다.

세상을 비꼬아 보는 취미만으로는 진실한 창의는 나오지 못하고 다만 작위적이며 기교적인 언어기술의 발달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묘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즐겁음으로서 세련된 감수성은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엄청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는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영국인이 이미 실천하고 있던 정치제도에서 그 속에 새로운 형태의 정치의 원칙을 발견함으로써 세계에 새로운 정치제도의 방향을 잡아 주었다. 스위스 태생의 한 떠돌이 소년이 무질서한 방랑의 끝에 파리에 나와서 저술을 하나 내니 그 참신한 학설이 프랑스의 온 상류 계급을 매료하며 이 사상은 맹위를 가지고 전파되어 마침내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된다. 이것이 반 불량아 루소의 경우이다.

이 넉넉잡은 인물의 적나라한 인간성의 체험에서 우러난 자유, 평등사상은 먼저 가식의 사회 기구 속에 질식하던 프랑스 지성에게 새 활기를 불어 넣었고 이어서 근대의 모든 혁신운동의 사상적 원천이 되고 있다. 지배계급의 권위에 대한 반발과 개성의 존중에서 프랑스 학계는 언제나 제자백가의 각인각설이 난무하는 사상적 혼란의 소용돌이를 이룬다. 그리고 세계는 언제나 그 속에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을 찾아 가는 것이다.

역시 신기 또는 진기를 좋아하는 취미 속에 그들은 늘 진실한 새로움에 대한 감수성을 세련시켜 갔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놀라운 천재가 많이 나오며 그 반면에 모두가 개성적 특징을 가진다. 이 개성의 존중, 개인 자유의 존중은 프랑스 대혁명 이래의 국시로 되어 있다.

이 개인적인 창의는 그것이 반드시 못쳐서 국가의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지성은 국가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더 국민의 자유가 억압됨을 경계한다. 국가가 강하여짐은 원하는 바이지만 개인 자유의 희생에는 반발한다. 여기서 정치사상의 혼란이 일어나며 특히 외환에 부딪치는 경우에 프랑스란 나라는 그 국가의 위대성에 비해서 의외로 취약한 면을 노정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는 그 표면적인 혼란에 비해서 그 실질

면, 즉 국민생활의 면은 언제나 견실하게 안정되어 있다. 그것은 태고적부터 그들의 피에 물려받은 부락공동생활체 정신, 즉 공공정신이다. 그들은 악착같이 때로는 경박하게 악법과 싸움을 자랑으로 삼는 반면에 그들은 엄격하게 법을 지킨다.

그들은 인간행복의 실질을 놓치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종교세력과의 투쟁은 대혁명 이래의 세속정권의 국시와 같이 되어 있으면서 기독교가 남긴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존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더 주력하며 기독교적 도덕은 국민생활을 지배한다. 사상적으로는 가장 새로우면서도 생활면은 보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국회는 의회정치적 결합의 표본 같이 되어 있으나 그 국가의 행정과 국민 생활의 안정에는 요동이 없다.

〈필자(筆者)·성균대교수(成均大敎授)〉

## 독일(獨逸)의 민주주의(民主主義)와 그 과학성(科學性)

김정진(金鼎鎭)

서독은 1945년, 과거 히틀러 독재의 악몽에서 깨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찬 발걸음을 내어 디뎠다. 서독은 국제도시 서베를린까지 넣어서 도합 10개주의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류프케씨 과거에 농상) 밑에 행정수반으로서 연방제상(아테나우어씨 기독교민주당출신)이 실권을 장악하고 이상적 정당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큰 정당으로는 기독교계통의 CDU(기독교민주당 1945년 설립)와 CSU, 그리고 사회주의계통의 SPD(독일사회민주당 올렌하우어씨가 당수) 그 밖에도 FDP와 BHE(동독피난민정당일구 1952년 창립) 등이 군림하고 있다. 그리하여 입시수도 본에는 서독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서 연방의회가 설립되었다. 4년마다 한 번씩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서독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치를 실현하게 되기까지는 급세기 초기 카이저의 제국주의, 1차 대전 때 독일제국이 패망한 후에 에버트의 공화국 정치, 그리고 1933년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독재전제노선 등 여러 가지로 정치의 면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필자는 이제 서독이 참으로 모범적인 민주체제를 확립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게 되는데 대해서 그 요인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려고 한다.

### 1. 애국심

게르만 민족의 애국애족심은 예부터 세계에서 관절(冠絶)하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서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 독일 사람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전통으로 계승되었다.

독일에는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도 애국 철학자와 애국 시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은 근대의 스파르타라고 하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질실 강건한 민족성은 열렬한 애국심과 더불어 철석 같이 견고한 신체를 단련하였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 다만 2차 대전 때에는 히틀러라는 악마에게 흘렸기 때문에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사람에게 오해와

비난과 빈축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전후 서독은 완전히 개과천선하여 자유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독일 사람은 협동정신과 공덕심이 대단하다. 예부터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따라 라인 강변의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우연한 기회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각자의 애국심이, 어디까지나 과학을 기초로 하여, 근검저축의 정신과 합치조화된데서 나왔다.

거기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과 게르만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 근로사상

독일 사람의 근로사상은 세계에서 탁월하다. 물론 동양에서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부지런하다고 하지만 독일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 류가 아니다. 노동에는 귀천이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다면 어느 노동이고 신성시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을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만하고 인생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향락할 줄 모르는 우둔한 백성 이라고 비방한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후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서 자유세계 둘째가는 달러보유국이 된 것은 순전히 그들의 근로사상의 소산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또한 피땀 흘려 근로하는 민족성과 아울러 물자를 아끼고 저축하는 덕성이 뛰어났다. 그들은 사치를 모르며 튼튼하고 실질적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들은 허식을 피하고 실용에 취한다. 그들은 종이 한 장, 연필 토막, 성냥 한 개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밤에 방을 비우고 나갈 때는 단지 2, 3분 동안이라도 반드시 전등을 끄고 나온다.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필기하는 노트는 앞뒤 장을 잔글씨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가득히 채운다.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아무것도 쓰지 않은 흰 종이를 쪽 찢어서 코를 팽팡 풀어서 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우리들은 보통 연필을 2/3나 3/4쯤 쓰고서 그대로 버리지만 그들은 왜 연필이 짧아서 못쓰게 되면 보조축을 사용하여 3/3이나 4/4까지 쓴다. 잉크도 수위를 조절하여 최후의 한 방울까지 찍어서 쓸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성냥 한 개피에 불을 붙여서 4, 500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광경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상술한 예는 그야말로 그들의 생활의 일단면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 각자의 근검저축하는 덕성이 쌓이면 무서운 위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한강변의 기적도 길은 가까운 곳에 있으며 우선 국민 각자의 자각과 결심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 3. 과학정신

독일은 원래 과학의 나라다. 모든 교육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과학과 실업에 치중한다. 이와 같이 자연과학과 실업기술을 존중하는 정신,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사상, 일인일기의 교육 방침이 구체적으로 오늘날 서독의 부강을 가져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대학이나 고등학교처럼 법정계나 인문계가 범람하는 것은 국가의 빈약과 현실과 맞지 않는 교육의 파탄을 초래할 뿐 이다. 특히 서독에서는 초등학교(8년제)

나 중고등학교(9년제)를 통해서 철저적인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 대해서 관찰력을 기르고 취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지도한다. 같은 장학생도 과학 실업계에 대해서 가급적 우선권을 준다. 그리고 모든 직업은 예외 없이 최저생활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무리해서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서독에서는 대개 국민학교 8년을 졸업한 다음 직업학교나 실업 학교를 단기 1, 2년간 이수한 다음 실사회에 들어 간다. 참으로 머리가 좋고 소질과 적성을 가진 사람만이 대학에 진학 한다. 이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적재적소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지향하는 것이며 절대 필요 불가결한 일이다. 또 서독에서 2차 대전 후 미국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독일의 민족성과 풍토성에 맞도록 고려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무턱대고 선진국의 교육제도라고 하여서 서독이나 미국의 그것을 맹목적으로 이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서 취사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 합목적적이며 또 효과적이다. 전후 서독은 미국의 원조 달러를 고스란히 공장건설에 충당하였다.

공장은 대규모의 건물이지만 반대로 관청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서독은 생산 제일주의다. 생산, 생산만이 민족을 살린다. 그들은 또한 생활의 합리화를 연구한다. 국산품은 그 실용성, 견뢰성에 있어 서 외래품을 능가하니 구태여 비싼 외래물을 살 필요조차 없다. 일반적으로 독일 여성은 미국 여성이나 프랑스 여성처럼 짙은 화장을 하지 않는다. 아니, 거의 화장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건강미는 세계제일이고 모두들 현모양처형이다. 급년도 세계미인 대회에서 미스 저머니가 제 1위였다는 점을 부언해 둔다.

## 4. 사회보장제

저 유명한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 뒷받침이 된 것이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은 누구나 질병, 상해 그 밖에 불의의 사고나 노쇠에 대해서 항상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선진국가에서는 국민의 불의의 피해와 불안을 일소하기 위해서 사회정책 수립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을 기한다. 미국, 서독, 일본을 위시하여 구미각국의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고도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참말로 이 제도가 아쉬운 곳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니할 수 없다.

서독에서는 국민은 누구나 그 직장의 소득에서 매월 약 1할에 가까운 금액을 적립식으로 저축하여 만 60세까지만 부지런히 노동하면 노후에 자손에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노부부가 안락하게 살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과잉한 국민 소득을 보류 흡수하여 유용한 국가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일례를 들면 대학생도 년 2회의 등록 때마다 약 30마르크씩 대학생 의료보험기금에 납입하면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실비 이하의 진단, 치료, 수술 기타 시약을 기대할 수 있다.(서독에서 의약은 완전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독에서는 국민생활에 보협과 안정감이 생겨서 모든 일의 능률과 성과가 오른다.

그 밖에 직장과 노동자에 대한 보험제도

농촌협동소비조합제도, 탁아소, 양로원, 맹아학교, 정신병원 등의 시설과 동독피난민 구호책과 임산부 연소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완벽을 기하고 있다. 2차 대전 때의 상이군인에 대한 원호대책도 만전에 가깝다. 국민학교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아동들의 발육을 위해서 우유와 빵을 간식으로 무료급여하고 있다.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특히 체육에 많은 시간을 배당한다.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두통꺼리의 하나인 노사관계도 서독에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원만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노동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로서 그 구매력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 오는 피난민의 행렬이 그칠 새가 없었다.

필자는 이상과 같이 서독이 오늘날 부강하게 된 원인이 될 만한 요건을 열거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가를 재건하는데 있어서는 서독의 라인강변의 기적을 선례로 삼아 한강변의 기적을 이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백척간두 진일보하는 결심과 바위를 산정으로 굴러 올리는 시지퍼스의 노력이 필요하다. 목적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고 확언한다.

(필자·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교수)

### ★중·남미의 공산세력

미 국무성 및 상원외교위원회(上院交委員會)의 집계에 의하면 중·남미의 공산당원 총수는 22만 내지 23만 명 내외로 알려졌다. 현재 중·남미 20여 개국 중 가장 많은 공산당원을 가진 나라는 아르헨티나의 8만 명이다. 그러나 현 정권을 전복시킬 만한 세력을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다. 하이티 같은 나라에는 불과 몇 명밖에 없고 문제의 쿠바는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을 직전에 1만 2천명의 공산당원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 중·남미 각국의 공산당세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미 국방성 및 상원외교위원회의 통계)

▲미국=1940년대에 약 2만 5천이 있던 것이 56년 9월의 당서기장이 발표한 숫자는 2만 1만 5천명이다. 미국의 총인구는 약 1억 7천만 ▲쿠바=전기한 이외에 최근의 통계는 알 수 없다. 총 인구는 약 6백 40만 ▲아르헨티나=약 8만 총 인구는 2천 5백만, 58년의 총선에서 2.4%의 득표율을 보였고 주로 학생간에 뿌리를 박고 있다. ▲볼리비아=약 6천명, 총 인구 3백 27만. 56년의 총선에서 1.8%의 표를 얻었다. 그런데 그들은 좌파혁명당, 혁명운동당, 공산당으로 삼분되어 있다. ▲멕시코=약 5천명의 공산당원들이 노동당 인민당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총 인구 3천 150만. 정부는 59년에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철도파업을 탄압하고 소련대사관원을 퇴출한 바 있다. ▲브라질=당원 약 5만, 총 인구 6천 130만. 이 나라에서는 1947년 이래 공산당은 불법화하여 타당 명의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 제국 중에서 소련과 가장 통상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통상한 커피는 이 나라의 경제를 매우 불안하게 하였다.

## 한국(韓國) 민주주의(民主主義) 재건운동(再建運動)의 방향(方向)



특집(特輯)

〈반공(反共)〉

### 피상적(皮相的) 운동(運動)을 지양(止揚)

이철주(李喆周)

반공운동은 현 시기 국제적인 한 조류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어 있다.

사활적이라는 것은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이면서도 5·16 군사 혁명 이전 시기까지는 반공사업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또한 어느 의미에서는 정상배에 의한 정치적 이용물 밖에는 되지 못하였으니 통탄 아니 할 수 없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토록 반공운동을 경시하고 민주발전을 자연 추세에 맡기고 방임한다면 우리나라는

조만간 북한 공산괴뢰집단에게 유린되리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와 그들의 파괴행위가 자연성장성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고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여 일사정연, 그리고 입체적이며 집중적으로 계속 부단히 조직적으로 침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집단은 자기들의 침투를 위하여 금력, 인력과 모든 매스커뮤니케이션을 동원하고 그 희생성과 무관하게 무관하여 만약 성과가 있다면 그 곳에 최대의 대가를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로 되고 있다.

공산주의집단 자체 생활 실정은 여하튼 간에 공산두목들은 소위 마르크스 레닌 주의의 교리 원칙에 따라 착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괴뢰만 예를 들어도 북한괴뢰가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을 골간으로 하여 남한까지를 공산화하기 위한 혁명 소위 조선혁명이 그들의 최대 최고 목표이며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제도를 강화하며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고 북한 동포들을 개인 의사와는 달리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 동화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볼 때에는 소련이 종주국으로 되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극히 약한 고리로부터 점차적인 방법으로 적색 제국주의화하기 위하여 회유, 공갈 수단으로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야망으로 불타고 있는 것은 최근 베를린 사태와 핵실험재개에서도 재론의 여지를 없게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주·객관적 정세에서 볼 때 우리 혁명정부가 반공만이 우리 조국의 계속적인 존립을 가능케 하는 길이며 또 그것이 민주주의에로 발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고 이 반공운동을 격조 높게 들고 나온 것은 가장 정당하며 역사발전의 정확한 판단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혁명정부는 반공운동을 모체로 하여 반공통일을 달성할 것을 중국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 국민과 전 국군장병들은 국가의 이 기본이념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거의 일부 위정자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하지 못했고 공산주의자에 대한 생리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마치 권위의 부차적인 문제처럼 취급하고 자연발생적인 반공운동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음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일부 국민 간에도 반공사업

이 우리의 사활적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폐단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항간에서 공산당이 왜 악덕하냐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즉 6·25 남침당시 공산군의 악독함을 몸소 체험했다는 것으로 자기를 마치공산주의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19 혁명 후 혁신세력에 의해 용공분자가 준동한 것을 본다면 상술(上述)한 국민의 인식은 이 초보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6·25 동란(動亂)이 미국의 사주(使囑)를 받은 대한민국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간악하게 뒤집어씌우면서 소위 조국해방 전쟁이라 하면서 조국해방 전쟁 기념관까지 건설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괴뢰들은 북한동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화를 입고 많은 동포가 살상되고 재산이 파괴된 것은 곧 미국의 침략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민주주의를 증오하도록 교양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괴뢰 뿐만 아니라 오늘의 중앙이 어찌서 삼십년간 국내전쟁을 야기하였고 소련이 어찌서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였으며 또 오늘도 북한이 무엇을 위해서 남한까지를 포함한 중국적인 적화를 수행하겠다고 떠드는지 그 본질적인 이념 즉, 공산주의의 기본 교리와 그들의 전략 전술 및 공산주의적 세계관의 모순을 입체적이며 체계적으로 폭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산주의의 정치이념,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전 분야에 걸친 그들의 이론의 모순, 그로 인해서 빚어진 현실 생활의 참혹성과 기만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분석 비판 폭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 이후로 반공운동은 종전과 같이 무계획적이며 산만성을 내포하고 또한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어서는 하등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공산집단은 공산주의적 침략과 침투를 위하여 당(黨)과 내각이 일치되고 있으며 그 정책 실현을 위하여 대중을 장악함에 있어 소위 노동조합단체, 여성단체, 민청단체, 문화예술단체를 일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일한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공산치하 전 주민을 엄격히 통 제하여 당세(黨勢)와 사회단체조직을 확대하며 당 생활과 규율을 확립하여 조직적으로 자기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혼연일치된 이 조직적인 도전에 대해 우리의 반공운동이 자연 발생적인 역량으로 대한다는 것

은 그 결과가 자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볼 때 전 국민적 반공운동은 그 얼마나 중요하며 긴급한가?

우리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행복의 영원성을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보다 굳건하고 자주적이며 통일된 반공조직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입체적으로 침투하는 괴뢰의 유형 무형의 정세(政勢)를 저지할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공산당의 모략 중상을 분쇄할 수 있으며 국민을 공산주의적 침투와 기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끝)

(필자(筆者) 내외문제연구소위원(內外問題研究所委員))

〈경제〉

## 자립의식(自立意識)의 확립(確立)

박동묘(朴東昴)

경제적인 혁명 없이 정치사회적인 혁명은 성취될 수 없다. 따라서 혁명정부의 성부(成否)는 경제혁명의 성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혁명의 성부는 경제제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제건의 방향을 뚜렷하게 내세우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혁명완수를 기할 수 없다.

국민경제제건의 궁극 목적은, 물론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할 경제제건의 방향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립경제의 확립이다. 자립경제의 확립단계까지는 우리가 목표한 최고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국민경제제건의 기본방향은 우선 단계적으로 자립경제 확립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정책과 수단이 이러한 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립경제의 확립을 규정지움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를 큰 지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대외적인 국제수지의 균형이고 또 하나는 국내적인 소득수준의 인상이다. 즉 국제수지가 확대균형이든 축소균형이든 간에 일단 균형 잡히고 국민소득의 수준이 최저한의 생활수준까지 도달한 상태를 자립경제라고 규정짓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자립 경제를 확립하도록 국민경제제건의 방향을 우선 잡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경제제건을 성취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정책에 따라 것인가 이것이 다음에 문제되어야 할 점이다.

자립경제의 지표의 하나인 국제 수지의 균형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와 수입 감소를 생각 할 수 있다. 전자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① 국제적인 분업에 따라 수출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수출산업에 치중할 것, ② 양적인 경쟁보다 질적인 경쟁에 치중할 것, ③ 원료공급이 국내인 수출산업에 우선순위를 둘 것, ④ 적극적인 정부보조를 할 것, ⑤ 해외시장을 분석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직이나 기관을 설립할 것, ⑥ 경제인의 국제적인 교류에 노력할 것, ⑦ 수출상품의 질적인 보장과 수출업자의 신용 확립을 법적으로 강화할 것.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수지의 개선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수출 증대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 감소로서 더욱 개선을 할 수 있다. 즉 수입 대체 산업을 적극 진흥시킴으로서 수입을 감소시키든가 국내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수입을 적게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물론 소비억제로서 수입을 줄이는 방법은 적극적인 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소망되는 것은 수입대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물론 수입물이 비생산적인 소비재인 경우에는 수입이 억제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수입 대체 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키느냐에 더욱 집중된다.

수입 대체산업의 발전은 수입의 감소라는 효과와 더불어 생산 확대에 의한 파급 효과를 크게 기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을 갖고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며 수입품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발견 선정하여 그것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또한 그것을 자극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수입 대체산업으로서 자립경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확인만 되면 조세, 금융, 기술 및 기타 경제적인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서 그 산업을 보호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자립경제 확립을 위해 대내적인 경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공업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농업 개발에 치중해야 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에 우선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공업화를 지향하게 된다는 점에서 별로 이에 관해서는 문제시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손쉽고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겠다.



공업에 치중하면서 경제개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망되지만은 이 경우에는 그 시장을 해외 또는 국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그래야만 공업을 위한 투자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서는 해외시장의 개척이 당장에는 어렵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개척에 우선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내 시장의 확대개척을 위해서는 농촌 개발이 선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론을 전제한다면 농촌 개발이 한국경제자립을 위한 기본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촌경제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되어야 할 중요점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농업혁명을 주장하고 싶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의 경제혁명은 농업혁명에 귀착된다고 본다. 그런데 농업혁명은 농업의 기업화로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다. 농업의 기업화는 경영규모 확대와 경영의 다각화로 촉진되어야 한다. 물론 기업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세농민을 농업노동자로 전환시키고 농장에 고용시키면서 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예컨대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법인기업화를 기도하여 대규(大規)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우리가 농업의 기업화를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이다. ① 농업에도 자본주의 경제법칙을 관철시켜야 한다. ② 농촌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④ 소농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발전을 기할 수 없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기업화하지 못한 영세농이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농촌실정으로서의 금융이 생산적인 것이 못되고 구제금융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으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리를 받을 수 있는 경제 바탕을 만들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금융이란 바라볼 수가 없다.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이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지니고 있는 한 농촌경제바탕도 이에 따라 개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의 기업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서 경제혁명의 기본바탕을 농업 혁명에 두어야 하고 농업혁명은 농업의 기업화로서 출발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전제로 하고 해외시장이 협소한 한국에서는 농업의 기업화 없이 경제적인 자립이나 소득의 균등성장은 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필자(筆者) 서울상대(商大) 교수(教授))

## 〈교육〉

# 혁신운동(革新運動)의 방향(方向)

이종록(李鍾祿)

### 1. 서론

교육은 의도적으로 어떤 결과를 맺으려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인간사회의 근원적인 기능이다. 그런 고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에 따라 교육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며, 또한 인간사회의 역사도 달라 질 것이다.

혁명정부는 구악(舊惡)을 일소(一掃)하고 혁신적인 시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먼저 인간의 개조 없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혁명의 근원적인 대상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 그 자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개조를 담당하는 사업은 교육방법 이외의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기에 역사적 변혁의 근원적인 힘을 길러 내는 교육의 불가침적인 영역이 마련되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교육은 인간 그 자체에 대결하여 그것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념적인 사업이다. 보통 타당성을 가지는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교육은 일정한 목적과 소신을 가지고 이념을 설정하여 주어진 사실에 변혁을 가하여 이념의 수준까지 높이는 작용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대상인 인간을 변개하여 우리의 이념에 맞도록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이념 하에 새로운 인간상을 목표로 하여 인간을 개조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혁명정부의 문교부가 인간개조를 그 슬로건으로서 내세운 것은 새로운 이념 하에 근본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우리는 생산이니 정신이니 건강이니 하는 것을 장학지도의 방침으로 내세우고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목표는 얼핏 보면 현 사회에서 지극히 매력 있는 술어인 듯하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에 맞고 적합한 술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과 실현방침이 그 술어들과 유대를 갖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때에는 소위 관념의 유희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러한 관념의 질곡(桎梏)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육혁신의 명백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인간을 이상(理想)의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인간개혁을 의미하는 것임으로 그 인간개조에 있어 어떤

목표와 영역을 설정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제설정에서 생상이나 건강 또는 정신이 하나의 영역을 지시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조각조각의 단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형태나 영역을 아무리 훌륭하게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에 적합한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목표 하에서 움직이도록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인간개조의 목표

인간은 우선 그 육체적인 존재다. 이 육체를 통하여 얻어지는 감각에 따라 우리는 사고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육체의 고장은 그 인간 전체의 고장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일이지만 발가락이 하나 깨어지면 정신이 정상적인 사고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육체는 우리의 존재양태에 있어 본질적인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하는 것이다. 만일 신체가 홀로의 목적만을 위해서 고려된다면 그 신체의 동작은 덕성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육체적 발달은 사고와 동작이 현실적으로 결합되는 습관의 교육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의 교육 즉 인간상과 결부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육체는 사고를 성실 근면하게 실천할 의도 하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 그 다음의 영역은 정신영역 즉 사고의 영역을 제시 할 수 있다. 사고는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지혜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지식의 체계가 활용되는 면을 중심으로 고찰되는 것이며 이 영역에서 이념-예를 들면 반공 및 국방사상(애국심)이라던가 국가사회에의 봉사 등이 도출되어 나온다. 그런 고로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지식교육은 어떤 사실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떤 목적에 이용하는가 하는 행동면에서의 교육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사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 혁신은 우선 교사양성제도의 혁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교사양성은 교사 개개인이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근면한 습관을 기르며 허영을 버리는 실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교육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상 우리의 교육은 그 대부분이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급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양성의 혁신 없이는 여하한 교육혁신도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

흔히 제도에 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그릇되게 하였다고 말하는데 이는 모든 일에 있어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원리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통하여 교육혁신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는 태도라는 술어로서 통합할 수 있음을 암시하여 왔다. 육체와 정신이 서로 습관을 통하여 결부될 때 거기에 태도가 성립한다. 이러한 태도는 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다. 사람의 지능은 행동과 태도의 면에서 조화되고 일치되지 아니하면 가치가 없다.

## 3. 생활인으로서의 교육

생활인은 지역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활동하면서 생활한다. 이러한 직업은 원초적으로는 모두 다 생산에 결부되는 것이다. 그런 고로 제1차적으로는 생산에 공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산적 기술인을 위하여 사무적으로 공헌하는 기술이 제2차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제2차적인 사무기술은 생산기술을 돕고 또 거기에 필요한 숫자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생산기술을 기초로 하지 않은 사무기술이 방대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면을 개조하기 위하여 정신면에 있어서는 성실한 근로의 습성을 기르도록 하고 육체 면에 있어서는 실제 적으로 생산을 이룩하도록 힘과 기능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과 신체의 양면에 걸치는 통합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인이 자가 소비할 만큼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해내는 것이 생활인의 교육이 노리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자기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국가의 빈곤의 원인이 있다. 이러한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생산능력을 가지고 국가부강을 위하여 근면하게 노력하며 절약하고 저축하는 생활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교육은 중국적으로 자기문제는 자기의 힘에 의하여 해결하는 인간이 되도록 지금 있는 사실적인 인간을 개조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혁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며 우리 교육혁신은

국가적인 혁신과 보조를 맞추어서 거기에서 목적과 수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필자(筆者) 전(前) 문교부(文敎部) 고등교육국장(高等教育局長))

<노동>

## 실질적(實質的) 노자(勞資) 협조(協調)의 길로

이규철(李奎喆)

원래 노동조합이란 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영속적인 단체 인 것이다.

노동자 자신의 자연발생적인 욕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동조합이 해방 후 혼란한 시대적 조류와 중요 기업체의 침투를 기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소위 전국노동조합평의회(이하 전평)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던 대한독립노동총연맹은 그 목적을 직장 내의 공산분자를 축출하고 전평을 말살하는데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타율적인 면에서 출발을 보게 된 한국노동운동은 반공전선 에서는 혁혁한 공적을 남기고 그 위세를 떨쳤던 것이나 이와 같은 정치인, 종교인, 청년운동자들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노동단체는 생리적 차이로 순수한 노동조합 운동을 지향하는데 있어서는 그 이질적인 구성과 목적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야 할 원인(遠因)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단계를 구분한다면 노동조합법 공포 이전 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4·19 이후 특이한 조합 활동의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법률 제280호로 노동조합법이 단기(檀紀) 4286년 3월 6일자 공포되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 노동운동 발전과정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는 폭력단체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초창기 있어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노동운동이 조합간부의 생각으로 대부분이 움직이고 기업주와 조합지도자간의 교섭단계에 있어 상호권리의 존중보다는 어제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일하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나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대표자 행세하는 꼴이 아니꼽다는 일부 몰지각한 기업주와 조합간부 간에는 항상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행동으로 노사 간의 협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한 책상이나 둘러엮고 기물이나 파괴하는 폭력적인 조합간부가 갈채를 받았으며 그 기세만을

밀천으로 자랑하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이 공포되어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조합간부가 될 수 없다는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배경을 힘으로 일하여 오던 사람들이 몰려나고 직장이 있는 노동자만이 조합간부가 될 자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순수한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운동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국영기업체를 위시한 실력 있는 민간기업체의 노동조합이 활발한 조합 활동을 전개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동 등으로 꾸준히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경제적 향상을 기하여 왔다고도 하나 극히 소극적이었으며 그 활동의 범위가 기업 단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노동법이 기업단위의 단위 노조중심으로 되었던 까닭에 노동자의 생명인 단결의 범위를 기업 단위의 극소한 범위 내에서 허용 하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4·19를 맞이하였다.

노동조합의 정치적 도구화를 기도하고 부단한 간섭을 일삼아 오던 자유당 때의 고경(苦境)을 겪어 오던 조합지도자나 주식회사·국회란 대명사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감투를 가진 기업주의 권력과 금력에 놀리어 있던 노동자들은 때는 왔다는 듯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표면적으로 노동조합의 전성기인 듯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릇된 자유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자유와 이익만을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의무의 이행은 안 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간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극히 위험한 사조에 몰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조는 비단 노동자만이 아니요 일반 사회적 사조로서 번져 나갔으며 국가안정이 염려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정쟁과 파쟁만을 일삼고 공산주의 앞에 제물화되어 가는 조국을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국가의 주권이 자유란 이름의 미명 아래 농락되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이 눈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민주적 방향을 논함에 있어 지난날의 걸어 온 길을 누누이 설명하는 것은 과거 땅에 떨어졌던 노동조합의 위신을 회복하고 진정한 노동운동을 지향하려는 우리들의 새로운 각오와 지난날의 모든 조직상의 결함과 비민주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충분한 보수를 받으며 필요에 의하여 사회의 보호시책을 받을 권리에 입각한 강력한 고도 민주적 노동운동의 확립을 기하고자 5.16 군사혁명 이후 8월 4일자 공포된 근로자 단체활동보장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전국 산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현실과 이론 면에 기초를 둔 산업별 단일조직체제는 과거 1,016개의 단위노동조합과 70여 개 연합체의 무질서한 개별적인 활동에 중지부를 찍고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철도, 섬유, 광산, 전력, 외국기관, 운수, 체신, 금융, 전매, 해상, 화학 금속, 부두, 출판 연합의 15개 전국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도 8월 30일 이미 그 결성을 끝마쳤다.

우리는 선진국의 강대한 노동조합들이 가진 고경과 투쟁과정을 겪어 오느니 진정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의 대변기관이요 권익옹호체가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과거의 조직상의 결함과 모순된 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제 원칙 하에 권력과 권력에 대항해서 노동자의 공동목표를 달성함으로써만이 노동자들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엄정중립으로 정당의 전위역할에서 벗어나고 재정적 독립으로 노동조합의 정상적 위치를 견지하여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문화, 교육, 계몽으로 지적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사회정세의 정확한 판단력과 자기위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반공의 선봉에서 산업의 역군으로서의 부과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의 민주화에서 진실한 노사 협조정신이 생겨나는 것이며 노사 협조정신에서 산업기구의 생산성을 양양(昂揚)할 수 있는 일이다.

혁명정부의 강력한 노동자 보호정책은 이미 8월 3일 공포된 노동자 단체활동보장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명시된 바 있다. 우리는 국법의 보호하에 단결하면서 빈곤과 무지를 극복하고 번영하고 안정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으며 부정부패를 물리치고 인간성의 존엄과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산주의를 멸망시키며 국토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역사적 총진군을 계속할 것이다.

(필자(筆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韓國勞動組合總聯盟委員長))



〈문화〉

## 문학(文學) · 예술(藝術) 운동(運動)의 방향(方向)

김종문(金宗文)

문학 또는 예술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창작으로서의 작품의 생산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삼스럽게 문학·예술운동의 방향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어찌자는 거냐 라는 반문이나 의혹이 없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다. 그런 반문이나 의혹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학이나 예술은 개인의 창작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문학자는 창작하는 사람, 예술가도 창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창작을 위주로 살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문학은 독자 없이는 성립되지 않으며 예술은 감상자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이 독자나 감상자는 누구일까?

그들은 시인 작가나 예술가가 항상 사랑하는 애인이요 친근한 벗이 아닐 수 없다. 만약에 그들에게 어떤 불행이 생겼다고 할 때에 그 불행은 그들 자신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시인 작가나 예술가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시인 작가 또는 예술가의 사회적 존재 이유가 어느 정도 엿보인다. 이 말은 시인 작가 또는 예술가의 예술 작품의 사회적 의의와 가치를 뒷받침으로 성립 되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문과 의혹이 있을 듯도 하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수많은 문학·예술단체가 있었고 이 단체는 그룹을 이루면서 문학·예술운동을 해 오지 않았는가 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문학·예술단체들이 성립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뒤를 잇는 동태를 볼 때 엄격한 의미의 문학·예술운동을 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문학단체요 예술단체였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문학단체나 예술단체는 시인 작가들의 또는 예술가들의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들의 공동적인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친목에 있어서나 권익옹호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느냐하면

그것조차 그렇지도 못했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문학·예술운동이란 말 자체가 막연하며 이에 대한 관념이 아직도 생겨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수 있는 문학·예술운동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망언은 아닐 것 같다. 선진국가란 말이 있다. 후진국가란 말도 있다. 요즘에 와서는 개발 국가니 저개발국가니 하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여튼 어떤 것이 선진 국가이며 어떤 것이 후진국가일까?

나는 문학·예술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이 뒤떨어진 국가는 후진국가라고 생각해 왔다. 한국에서는 ‘문약(文弱)으로 흐른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다. 다시 말하자면 문학·예술이라는 것은 문약으로 흐른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다.

외국의 예를 본다면 그 국가의 문학·예술은 그 국가의 전반적 발전에 대해서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 국가의 문학·예술은 문학·예술로서 그치지 않고 그 국가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개인의 생활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다.

그 국가의 시인·작가나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의 창작활동과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문학·예술운동으로써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치고 문학·예술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문학·예술은 독자나 감상자나 또는 정치, 경제, 사회 기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수한 예술작가이면 예술 작품일수록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면 간접적인 영향은 무엇이나 하면 그것은 즉 그 작품이 생산되어 공개되었을 때 보다는 흐르는 역사의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만 그 작품이 이해된다는 것이다.

시인·작가 또는 예술가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실

적으로 영합이 안 되는 작품을 제작하는 시인·작가 또는 예술가들은 그들의 운명인 그 길을 도피하는 한편 행동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시인·작가 또는 예술가들은 현실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창작정신을 그 행동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일반 대중에게 쉽사리 끼칠 수 없는 간접적 영향과 행동으로써 끼칠 수 있는 직접적 영향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즉 문학·예술운동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학·예술운동이란 말이 나올 때 직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중세기의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이다. 만약 그 당시에 이 문예부흥이 없었더라면 그 후의 역사는 어떻게 진전되어 왔으며 지금의 세계는 어떻게 변모 되었을까?

이 문예부흥의 운동은 이탈리아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는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의 시인 그리고 수많은 미술가, 프랑스에서는 라브레, 몽테뉴를 비롯한 수많은 문학자,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 베이컨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자가 휴머니즘 즉 인문주의라는 공동이념 아래 일으킨 구라과 [유럽] 전체에 걸친 운동이었다.

또 한 가지는 근자에 있었던 문학·예술운동이 생각난다. 그것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W B 예츠라는 시인을 중심으로 한 아일랜드의 예술가들이 일으킨 조국을 위한 문예부흥운동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학·예술운동은 공동이념 아래 성립되어 왔다는 것이다. 근자에 이르러 영국의 앵그리 연맹, 미국의 비트 제너레이션 또는 프랑스의 누벨 마크도 전위적인 그룹 활동으로서 가치 있는 운동이라고 믿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테마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이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5.16 군사혁명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학·예술작품은 저조하며 문학·예술단체는 부진 상태에 빠졌다는 정평이 없지 않다.

5.16 군사혁명 이후 모든 분야를 근본적으로 재건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예술·문화 분야의 재건도 요청된다고 아니 말 할 수 없다. 문학·예술·문화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관한 것은 문학·예술에 종사하는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문학·예술 분야에서 창작되는 작품이나 문학·예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학·예술운동이 모든 분야에 끼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생각할 때 문학·예술운동의 무게는 자명하다 아니 말 할 수 없다.

(필자(筆者)·최고회의(最高會議) 기획위(企劃委) 문사위원(文社委員))



〈사회〉

## 복지운동(福祉運動)의 방향(方向)

탁희준(卓熙俊)

오늘날 한국에서 선진국 사회복지제도 그대로를 구현하고자 구상 한다면 병자의 꿈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라면 영국 사회보장제의 입안자인 윌리엄 베버리지 경(卿)이 지적한 5대 사회악 즉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및 나태(惰怠)를 해소함으로써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국가복지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경제후진국에 있어서는 이 소위 사회악이 참으로 광범하고 양적으로도 막대하여 도저히 그것을 극복하고 국민 전체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만한 금력이 있을 수가 없다. 더욱이 경제후진국은 빠짐없이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외자마저 도입할 만큼 과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국민의 내핍생활을 강요하는 형편에 있느니만치, 이러한 면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의식적으로 수축시키지 않을 수 없는 요청을 받는다.

사회복지사업의 중심적 부분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는 영국의 현행 제도를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질병급여, 출산급여, 퇴직연금, 과부급여, 보호자수당, 사망일시금의 형식으로 국민보험을 확충하여 금전 급여를 행하고(국민보험법 1946년 8월), 산업 재해를 사용자 무과실 손해배상의 원칙으로부터 국가보장으로 이행하고(국민산업재해보험법 1946년 7월), 국민전체의 의료를 무료로 국가가 급여하고(국민보건사업법 1946년 11월) 2인 이상의 16세 미만의 가족 중 최연장자만을 제외하고 국가부담의 수당을 지급하고(가족수당법 1945년 6월), 부양자가 없거나 혹은 부양이 곤란한 양친의 아동을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거나 또는 적당한 가정에 위탁하여 부양하고(아동법 1948년 6월), 이상 제 조치로서 구체되지 않는 국민자에 대하여 종전 구빈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부조를 행하여 제도의 완비를 기하고 있는 것이다(국민부조법 1948년 5월).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노동당 출신 애트리 수상이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국 산업의 번영과 완전고용정책이 충분히 행하여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보아 온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후진국에서 경제상태는

산업혁명 전후 선진국에도 비할 바 못되고 철저한 봉건사회조차 거친 바 없어 시민사회로의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형편에 선진국의, 비단 이 분야에 한정시킴이 없이 제도와 경험을 그대로 받아드린다는 것부터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그 무모를 감히 하였을 경우에 도리어 극심한 경제적 중압을 국민 각층에 끼칠 것이 명백하다. 말을 바꾸면 잠재 실업까지 쳐서 노동력 인구의 3, 4할이 실업자이고, 최하 경제층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울의 경우 호별세 등급 5등 이하 면세 대상자가 약 6할, 대구는 약 5할) 선진국의 제도를 채택하였을 때 소수 중산층 이상에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동요를 유발 촉진시키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할 가망성이 큰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 민족적 과제로서 추진 중인 경제개발사업의 전면적 정지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제약을 받는 한국의 복지운동은 특이한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범위도 상식 이하의 선으로 압축되지 않을 수 없는 요청을 받는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이중성을 고려하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윤곽이나마 드러낼 수가 있다. 즉 제2·3차 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현재 한국 기업체 총수 약 25,000 중 선진국의 대기업과 비교할만큼 근대화된 것은 2, 30에 불과하다. 그리고 8할 이상이 수공업의 역(域)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기적(前期的)인 중소기업으로서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존조차 유지하기 곤란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밖에는 없는 것이다. 지나친 예로서 방직업 또는 일부 광공업 내에는 특히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월평균 15,000환 내지 20,000환의 수입이 일반화되고 그나마 일평균 12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의 중심적 과제를 이루는 사회보험은 특수한 최혜적(最惠的) 위치에 있는 경우에 한정시켜 비로소 실현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설사 국가, 사용자, 노동자의 삼자가 공동으로 각출하여 수집하여 풀을 만들고 필요한 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일종의 저축이라고 할 수 있으니만치 월수입 내에서 일정액의 정기적 각출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연 한국을 비롯한 경제후진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보편성 있는 일반화를 그 목표로 할 수는 없고, 나아가서 그것도 경제개발사업의 지장이 되는 사회적

정치적 동요를 방지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소극적 조치 밖에는 될 수 가 없다. 환안하면 장기적 보편성 있는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할만한 기반이 결여되고 있고, 또한 행정부도 그에 유의하여 적극성을 떨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상 보아온 바에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활동은 다음의 범위로 한 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전액 국가가 재정적 책임을 지는 사회부조제도를 중심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자인 불구, 정신이상자, 불치의 병자 등의 생활을 부조하여 기아를 면하게 하고 민간이 행하는 전쟁고아 또는 고령자의 구호사업을 조직 일원화하여 철저한 감독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경제 최하의 기아층 중 정치적 사회적으로 동요가 부절(不絶)하고 폭발요인을 조성하는 부층에 대하여 생존의 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국가적 공공토목사업을 계속 전개하는 도리 밖에는 없다. 말하자면 지극히 소극적인 조치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부내에 있어서는 관공사, 관공공기업체, 또는 대기업과 같은 임금의 지불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문에 한정시켜, 실업, 의료, 교육, 노령 등 또한 제한된 제도를 시행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회복지활동은 간단히 현재로는 최하 경제층의 생존의 위협을 해소하여 경제개발 사업추진의 기반조성의 정도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개발이 되는데 따라서 점 차 그 범위를 확대 보충하는 방향을 취하는 도리 밖에는 없는 것이다.

(필자(筆者) 중대(中大) 경제학(經濟學) 교수(教授))

## 〈체육〉

### 네 가지의 기본자세(基本姿勢)

김두곤(金斗坤)

#### (1) 체육운동에서 길러야 할 몸

첫째로 말 잘 듣는 신체라야 하겠다. 일찍 일어나야겠다, 가야 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적에 몸이 마음과 같이 움직여야 하지 마음은 마음대로 몸은 몸대로 움직이는 근골만 발달한 몸은 소나 말의 근골과 다를 것이 없다.

둘째로 몸을 기르는데 운동 아닌 체육활동을 요구하느니 만치 인간 생활에 필요로 하는 사람됨의 길을 찾는 데 체육의 목적이 있어야

하겠기에 같은 길을 걷더라도 올바른 길을 걷도록 기르자는 것이다.

셋째로 자기만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친구와 같이 나아가서는 동포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이끌고 가기도 하는 즉 자기를 위함과 동시에 남에도 이로운 생활을 도모하는 체육이라야 하겠다.

넷째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신심을 가지는 체육이라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룩되는 인생은 명랑하고 유쾌하고 행복하며 사회도 자연히 명랑해지고 건설적이고 협조적이며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즐겁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 (2) 체육은 장난이나 노는 것이 아니다.

구한국 시절에 프랑스 대사관에 한국 대신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테니스 하는 광경을 보이니까 ‘그런 땀 흘리는 일들은 종들에게나 시키면 안 되느냐?’ 하더라 말이 있다. 머릿속에 망진이 단단히 들어박힌 참 옛날의 사고방식이다.

요즘에도 ‘운동은 선수가 하는 것이고 아무라도 하는 것이 못 된 다;’ 또 ‘운동경기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다.’라는 사고방식이 혹 머릿속에 남아 있거나 않을까 모른다.

학교에서 주 3시간의 체육을 시키라고 구정권시대에 지시를 한 일 이 있는데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령에 주 1시간이니 하는 수 없다. 시간의 재량권은 교장에게 있다고 우겨대고 변명하고 하여 기어이 1시간씩 형식적으로 하거나 말거나 하는 식의 학교책임자도 있었다.

그나마 ‘그까짓 체육이야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침저녁으로 10리, 20리길을 걷는 것만 해도 충분히 체육한 셈이 된다.’는 분들도 있어 체육시간 빼 먹기가 일수였던 실례가 있다.

‘체육이란 노는 것’이란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 같다.

머리를 깎고 새 시대의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자나 그 옛날의 갓망진 쓴 구한국 시대의 사람들이나 사고방식에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체육은 참된 인간을 위한 국민교육이요 보건은 국민행복의 근원일진대 체육을 일부 특정한 선수들이나 특히 체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또는 학교체육시간에서만 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하루 속히 버리고 전 국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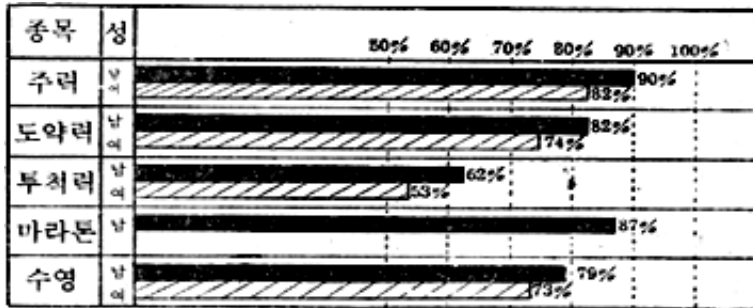
것으로 체육은 발전되어야 한다.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명량한 웃음소리가 울려 나올 적에 국민은 행복하고 민심은 순화되고 민족은 단결하고 새로운 민족의 힘이 샘 솟는 것이다.

### (3) 한국청년의 체력

청소년의 체격이나 체력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고서 지난날의 민생고와 기아에 시달린 엄연한 사실로 나타난 흔적이 뚜렷함을 엿 볼 수가 있으나 앞으로 국민의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여 이를 막아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여기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다음으로 세계선수들이 쌓아 올린 로마 올림픽 대회 기록을 100이라 하고 지난해 대전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 때의 기록과 비교해보고 주력, 도약력, 투척력 등에 있어서 우리 선수들의 체력이 미급한 중이라도 비교적 발달된 부위와 그 중에도 특히 미급한 부위를 알기 쉽게 그래프로 그려 보기로 한다.



이로써 보면 주력이 제일 낮고 도약력, 투척력의 순위로 되어 있다. 또 여자의 기록이 남자의 기록에 비해 각종목마다 10%의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더구나 여자의 투척력은 53%의 저율을 보이고 있어 여성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힘을 써야 하겠다. 이로써 한국청년 중에 운동량이 가장 또한 연령과 체격은 어떠한가 기술이 원숙하는 연령은 몇 살이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정책이 서고 교육방책과 연구가 생기게 될 것이다.

다음에 국제시합에 나선 우리 선수들의 체위를 하나 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종목	대회명	연령 세	신장 cm	체중 kg	흉위 cm
축구	한·백 친선	27.3	170	66	84
	말레이시아파견청소년대회	20.3	167.6	67.7	X
배구	(일)대학한일친선조도전대학	22	177	73	
	한일친선(대한중공업)	25	174	68	
	(일)한일친선경응대학팀	22	173	65	X
농구	한일친선(일본원정) 경기대학 여자부	21.8	161.8	58.4	83.1
	한일고교친선 경북고교	17	174	64.7	96
	(일)삼병고교	X	177	70	X
	한국상업은행 여자(일본원정)	19	164	X	X
	(일)리카미싱 여자(내한)	19.9	161.8	56.2	X
	(일)한일고교친선우도공여상	X	160	X	X

※(일)은 참고로 내한하여 친선시합한 일본팀이다. 국제 시합시 출입국 조건에는 반드시 연령과 체격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가령 모든 여자 선수들의 연령 통계가 20세 되었다고 하면 3년 후의 올림픽 대회에 나서서 될 선수들의 현재의 연령은

20세-3세=17세

즉 고등학교 2년 근방에 있다는 등은 극히 기초적인 상식이며 중요한 고찰의 하나가 될 것이다.

체격문제에 관해서도 동일한 고찰이 필요하다.

(4) 직업에서 오는 신체발육과 건강의 약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편히 앉아서 하는 일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고 따라서 다리와 몸을 쭉 펴는 일이 적다. 이로 인해서인지 나이 들면 무릎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몸을 편히 쉰다는 표현으로 다리를 쭉 뻗는다는 것이니 가히 그 신체적 요구나 소원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은 별로 보기 드물지만 우리가 알기에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팡이를 짚은 허리 구부러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눈에 띄었다. 이는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일이 많은데 비해 허리를 펴거나 제쳐 교정하는 운동을 게을리 하거나 전혀 안 하는데서 온 것이라 하겠다.

소위 양반걸음이 많은데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거나 머리 위에 이거나 하여 몸의 중심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와 발을 벌린 것이 그냥 버릇이 되고 여러 세대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는 아주 고질화 되다시피 하여 보기에 딱한 정도이며 보행 능력에도 지장이 많을 것이다. 시급히 서둘러서 어릴 적부터 습관화되기 전에 교정해 주어야 할 일이다.

이런 식의 교정 체육운동이라면 농부에 맞는 운동, 직공에 맞는 운동, 사무원에 맞는 운동, 심지어 갖가지 운동의 선수들에 맞는 운동 등이 생겨야 하겠고 또 어린이 운동, 여자의 운동, 남자의 운동, 신 경통 환자의 운동이며 위장병 환자의 운동 등 특분하게 해야 할 신체적 요구부문과 불편 고질화되려는 부문에 따라 각각 운동도 다른 것이 생겨야 하겠다. 요는 직업에서 연령에서 남녀의 성별에서 신체의 활동 결함에서 오는 버릇을 교정하는 운동이 필요하고 고안 보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⑤ 운동은 그 정신을 사야겠다.

-단체운동을 장려하는 이유-

이때까지는 주로 개인을 위한 운동을 말하였으나 우리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미덕을 운동을 통하여 얻어야 한다. 즉 협조정신, 인내의 정신, 책임감과 의무감, 복종과 관용의 정신, 호양(互讓)의 정신, 감투(敢鬪)의 정신들은 모두 단체운동 특히 단체경기에서 양성된다.

이는 적게는 마을의 단결, 학교의 단결에서 크게는 민족의 단결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인 경기보다도 단체운동, 단체경기를 특히 장려하는 이 유가 있는 것이다.

⑥ 국제경기와 운동종목의 선정

국제적으로 민족 역량을 과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Sports처럼 효과가 큰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마라톤에서 축구에서 권투에서 레슬링 등등에서 여러 가지의 장점과 자랑을 과시하였다.

국제적인 대회에 우리 선수가 참가했을 때 국민은 무언 중에 성원 하고 응원하고 단결되며 더구나 승리를 거두었을 때의 환희는 곧 민족의 환희요 민족의 자랑이다.

여기서 민족의 사기가 오르고 또 단결심이 굳어지며 후세까지 두고두고 민족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좀 더 많은 종목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따져서 몸이 작으면 작은 대로 적합한 종목이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리한 편도 있을 것이다.

도수체조 기계체조 기마 유도 등이 있고 손발의 기교 즉 교차성이 높은 구기도 있고 또 같은 체위 급에서는 체력이 왕성함으로 할 수 있는 권투, 레슬링 역도 등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절장보단(絶長補短)으로 힘과 재조(才操)를 기르는 동시에 힘과 재조에 맞추어서 종목을 선택함도 작전상 유리한 거점을 잡는 일이다.

또 이와 같은 소질을 가진 자를 거국적으로 체력검사 소질검사들을 통해서 발견함과 동시에 양성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인재의 발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출견과 출필을 무릅쓰고 우리의 국민체육의 방향에 대해서 감히 일필 우견을 드리는 바이다.

(필자(筆者) 문교부(文敎部) 체육관(體育官))

<동서일화>

### 딱한 사정

워털루회전 기념일(6월 18일) 만찬회 석상에서 웨링턴 공작(1769-1852)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담배갑을 참집한 손님에게 보여 주었다. 그런데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를 않았다.

웨링턴은 감히 당혹하였다. 손님들은 모두 고위사관들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 조사에 동의하였으나 오직 한사람의 늙은 사관이 이와 같은 처사를 반대하여 주위사람들의 강요에 화가 나서 웨링턴이 “이것은 모두 잊어 버립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듣지 않고 총총히 퇴거해 버렸다.

이쯤 되고 보니 자연 혐의는 그 노인 사관에게 돌아갔으나 그가 어떠한 인물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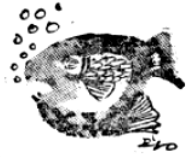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같은 모임이 있게 되어 웨링턴은 지난해 만찬회 때 입고는 그 후에 한 번도 입어 보지 않은 옷을 입고서 무심코 포켓에 손을 집어넣으니 잃어버렸다는 담배갑이 들어 있어 심히 당황하였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웨링턴은 전의 그 노사관을 팔방으로 찾아 헤매던 끝에 어느 초라한 집 다락방에 그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웨링턴은 그를 만나 자기도 은근히 그를 의심하였음을 사과하고 “그럴진대 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좇아서 터무니없는 혐의를 받음을 피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니 그 사관은 말하기를 “실은 그때 제 포켓에는 고기 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처와 자식들이 아사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먹다 나머지를 몰래 포켓 안에 집어넣어 두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웨링턴 공작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린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노사관과 가족들을 그 날부터 돌보아 주어 근심걱정을 없게 하였다.

## 소련(蘇聯)과 소련인(蘇聯人)

☆ 다음의 글은 일본 조일신문(朝日新聞)의 저명한 기자 문전훈(門田勳) 씨가 오랫동안 소련에 상재하면서 저널리스트의 예안(銳眼)으로 철의 장막배후의 실상을 포착 확인한 인상기(印象記)이며 체험담이다. 오늘날 소련은 단말마적 술책과 광태(狂態)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자부하고 있는 그들의 슬픈 운명의 투쟁을 소련인 자신들에게서 발견할 때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 파리와 공원(公園)

장막으로 해서 그 진상을 확인하기 힘들다고는 하나 공산권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언설 가운데서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고소(苦笑)를 잘할 수 없었던 것은 한때 일본 내의 화젯거리였던 '중공의 파리' 이야기일 것이다. 일본에서의 중공의 파리 논란은 다른 나라까지에도 알려졌음인지 거년(去年)에 로이터통신이 북경을 보고 온 사람의 이야기를 실어 중공의 파리에 관한 소식을 전한 바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북경은 말할 수 없이 맹렬한 모기와 파리로 해충 박멸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모시에는 어느 집에서든지 음식물이나 의류를 밖에 들고나와 집안에 살충제를 뿌리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형편이며 북경처럼 모기나 파리가 많은 도시를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소련을 다녀온 사람에게서 그 나라의 공원은 어디나 짧은 아베크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듣고 여우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 든 적도 있었다. 그런데 나도 약 3년전에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레닌그라드, 키예프 그리고 경치가 좋다는 소치 등 그 사람이 다녔다는 곳을 골고루 가보았다. 때는 4월에서 5월 사이의 그야말로 유풍의 계절로서 아베크하기 좋은 때였는데 어느 공원을 가보든지 하이드파크나 궁성 앞 같은 풍경은 고사하고 거니는 사람조차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공산권의 내면을 정직하게 전할 만한 사람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기조차 힘든 것이 아닌가 본다.

### 위험(危險)한 포장(包裝)

소아남비(小兒癩癩)의 비상조치로 일본 후생성(厚生省)이 대량의 생약친을 미국·영국이나 소련 같은 데서 수입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처음에 소련에서 제시한 생약친에 대하여 후생성이 순한 태도를 한 것은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소련 것은 그 포장만 보더라도 위험한 생각이 든다고 하는 전문가의 담화를 신문에서 보고 수긍되는 바가 있었다.

약품의 포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은 상품의 포장도 크게 다르다. 같은 자유국가라 하더라도 일본처럼 그렇게 꼼꼼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거의 모든 것이 국영이고 따라서 판매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공산 세계에서는 포장도 비길 데 없이 조잡한 것이다.

모스크바의 골키가(街)를 지나가다 보니 화장품점 진열장에 향수병을 늘어 놓은 것이 보였다. 소련에서 향수란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사보았는데 소련제 향수의 냄새를 어찌니저찌니하는 것은 미친 수작이며 병이나 상자가 형편없는 것은 그래도 좋다 치고 판매원이 물건을 내주면서 병을 기울여 가져가면 새어 나올 테니 주의하라고 흡사히 되질로 간장 파는 것 같은 말을 하는 데는 놀랐다가보다도 질렸다.

병이라고 하면 술병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네 나라에서는 병마개를 너무 번거로울 정도로 만들어서 오히려 주객의 의욕을 감쇄시킬 정도의 술도 팔고 있지만 소련의 술병에는 그런 식의 조심과 정성은 있을 턱이 없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상등품이라는 윗키를 사 가지고 와서 마개를 뚫으려고 보았더니 마개가 아니고 불지(紙)의 뚜껑이었다. 술이 배 나음을 염려하였음인지 불지 바닥에 세로판 같은 것을 대고 그 곁에 병 모가지를 슬쩍 종이로 두른 것이었다.

### 비행기(飛行機)와 변소(便所)

담은 그릇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모스크바의 화재로는 의례히 아파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규모는 어지간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형의 건물이 가로세로 수십동이나 늘어서 있기 때문에 술주정뱅이라면 체 처소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장관인것 만은 사실이어서 사진으로 언뜻 본다면 거창한데 문자 그대로 공산당식 건물이기 때문에 외면은 호기(豪氣) 있어 보이나 내면은 엉터리로 실물을 보면 살풍경을 지나서 황량한 느낌이 든다.

하루는 모스크바에 주재하는 특파원의 아파트를 찾아가는 일이 있었다.

외국인에게는 주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련에서 2자형의 9층 건물의 큰 아파트에 3백 내지 4백 세대가 한데 들끓고 있었는데 중공이나 동구의 위성국을 비롯하여 서구 그밖에 자유국가들은 따로따로 한 무더기가 되어 살고 있었다. 1 간폭(間幅) 가량의 곽하(廓下)에 변소·주방에다 3·4 평짜리 방이 둘이 있는 몰취미한 것인데 금방 신축된 집인데도 복도를 걸어 가면 바닥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며 현관문의 관건장치(關鍵裝置)가 제대로 말을 듣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투덜대고 있었다. 얼마 전에 그 사나이가 동경에 귀임(歸任)하였는데 그 아파트는

2년도 못가서 망가져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기초공사가 엉망인 모양이어서 겨우 낙성된지 1년도 못가서 9층이나 되는 건물 한 쪽이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고 하며 살고 있는 집이 기울어지는 마당에 좌경이나 우경이나를 가릴 여지가 없어 언제나 언덕바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서 맨 먼저 중공패들이 달아나 버렸으며 우물쭈물하는 가운데 다음해에는 마저 한쪽이 기울기 시작하여 흡사 피사의 사탑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모두 허둥지둥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를 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것도 아파트의 문이 제대로 잠겨지지 않은 것 만큼이나 그 나라에서는 별로 놀라운 사실이 못되는 것이라고 그 친구는 말하였다.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집 문짝은 고사하고 비행기 안의 변소 문조차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혼이 난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친구가 언젠가 소련의 TU-104 여객기로 파리를 갔었다. TU-104나 114는 성능이 좋다고 소련이 자랑하는 제트 여객기인 것이다. 모스크바에서 파리까지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 여객기가 비행 중에 남자용 화장실 문이 열리지를 않아 할 수 없이 숙녀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비행기 안에서 소변 행렬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얼마 안가서 그 숙녀용 변소가 넘쳐서 흘러나오는 데는 질렸다고 한다. 아름다운 파리의 하늘을 소련 제트기가 분노를 흘리면서 날았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가관지사가 아닐 수 없다.

비행기 안의 변소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나도 이 진풍경을 접한 적이 있었다. 한번 어디에 소개한 일도 있는데 하도 어이없는 일이라서 다시 한번 쓰기로 한다.

하네다 비행장에 왔었던 TU-104에 편승해서 모스크바로 향했는데 제1착륙지인 하바로스크에 도착하였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대합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참인데 230미터 앞에서 우리들이 타고 온 비행기의 변소 소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변기를 들어내서 버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변소 바닥을 제치고 그대로 활주로에다 쏟아 버리는 것이었다. 갑자기 고약한 냄새가 그 일대를 휩쓸었다. 그때 비행기 옆에 와 있던 급수차가 호스를 제쳐 버린 밑으로 해서 변소에 집어넣고 그 안을 씻어내는 것이었다.

더러운 빛깔을 한 물이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마구 쏟아져 튀는 가운데 두서너트의 사나이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양 잡담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곳 저 곳에 흩어져 있는 고형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고 유심히 보았더니 변소 안에 집어 넣었던 호스를 끄집어내어 그쪽으로 돌려서 맹렬한 물줄기로 그놈을 부셔서 날려버리는 데는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 호스 끝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이번에는 비행기 안의 세면소와 음료수 탱크에다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래 저 물을 그대로 먹으라는 것이냐고 동행의 E 화백이 울상이 되어 말하는데 나도 울상이 저절로 되었다.

다른 비행장에서든 이러한 변소 소제의 흔적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으니 이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다반사임을 새삼스러히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다.

### 공포정치(恐怖政治)의 산물

일본에서 가지고 간 부사산(富士山)의 그림엽서를 소련사람에게 선사한 사람이 있었다. 임사산(任士山)이라면 어느 정도 통용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한다. 그 소련사람 말이 '이것이 일본의 산인가? 하여간 고맙소라고 말하는데는 실망하였다 하는데 눈이 적은 글이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모양 따위를 생각할 만한 신경의 소유자들이 아닌데야 어찌라? 그 나라에서 부사산을 알만한 사람이라면 상당한 인테리가 아니 고서는 모를 일이다. 소련 문화성이 나에게 붙여준 통역은 모스크바대학 일본어과 학생이었다. 처음에 찾아 왔을 때 일본 담배를 피우겠느냐고 한 개 뽑아 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는 바람에 어안이 병병하였다. '고맙습니다'를 잘못 안 것이다. 이런 통역을 의지하고 소련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서글팠는데 지나치게 덤비는데 또한 고소를 금치 못하였다.

### 슬픈 귀향(歸鄉)

—광둥성(廣東省) 출신(出身) 화교(華僑)의 뼈아픈 수기(手記)—



1956년 중공이 정략적(政略的)이지만 죽(竹)의 장막을 걸어 올려 해외 화교에게 왕래의 자유를 허가한 이래 나는 지난 4년간 해마다 고향인 광둥성 태산현(台山縣)에 돌아가 가족과 더불어 구정을 지냈다. 왜냐하면 나의 아내와 네 아이는 아직도 중공치하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향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왕에 고향에서 소학교 교원을 하고 있었는데 향향(香港)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된다. 그동안 쪽 버스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나와 동향 출신인 관계로 여러 가지 신세를 지고 있다. 나는 예년(例年)과 마찬가지로 이듬해 1월 20일 구룡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로 향하였다. 연말이 되어 혼잡한 날 기차를 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구룡역에서 6시간이나 늘어서서 기다렸는데 그해에는 귀향하는 사람이 특히 많아 예년보다도 3할은 더 되는 상 싶었다. 중공치하의 대륙에서는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이 같은 장사진은 향향이나 구룡에서는 그야말로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 덕(德)을 본 귀향경험(歸鄉經驗)

나는 어느 정도 풍부한 귀향경험을 가지고 있는 터인데 기차에 올라서 주위사람

대체로 소련사람은 제나라 자랑이 대단한데 이 친구도 그런 면에서 전형적인 소련인이었다. 그는 무엇을 설명할 때마다 ‘참으로 멋이 있습니다.’라고 꼭 군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훌륭하다든지 멋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이지 너는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놀려주기도 했던 것이다.

이 청년이 그 당시 모스크바에 나타난 ‘정말 근사한?’ 셀프서비스 판매기 앞에 나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 동전을 집어 넣으면 신발장 뚜껑 같은 유리 뚜껑이 열리면서 조제 샌드위치나 파자가 나오는 것이었다.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여 이것으로 당신이 언제나 신경질을 부리는 소련의 게으른 서비스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떠들어 댔다. 그래서 나는 ‘자네 이것은 벌써 몇 10년 전부터 미국에서 쓴 것일세.’ 하고 말하니 그 친구는 아주 맥이 풀려서 시무룩해졌다. 소련사람은 원래는 명랑하고 손님 접대를 좋아하였다고 한다. 소련 관리라는 것들은 불유쾌(不愉快)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들의 소하물이나 수하물을 바라보고 놀랐다. 그들이 휴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매끼, 널판 쪽 부리키제(製)의 담배케이스 그리고 흰 남비 따위를 귀중한 물건처럼 지니고 있었다. 외관으로는 이런 것들을 도대체 무엇에 쓸려는 것인지 모를 테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무엇에 쓰이는지 이내 알 수 있었다. 널판 쪽은 조금만 가공하면 나막신을 만들 수 있다. 만약 산 나막신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이익도 안 남는다. 중국본토에서는 목재가 황금과도 같은 귀한 물건이며 매끼도 또한 용이하게 살 수도 없는 것이다. 양철로 만든 담배 케이스로 말하면 애연가들의 굉장 수집품도 되고 어린이들이 이것을 만약 가졌다고 하면 학교 같은 데 가서 친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음력 세말(歲末)이라고 하면 가장 추울 뎀데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메리야스라든가 털샤쓰 그리고 겹옷에 이르기까지 여섯 겹이나 입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 누구나 다 같이 잔뜩꺼입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하의를 세 개씩이나 꺼입고 거기다가 세타까지 걸치고 있었다. 이렇게 잔뜩 꺼입은 데다가 차내는 콩나물시루처럼 혼잡하여 더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형편이었으나 여정이 그렇게 멀지 않아 가까스로 견딜 수가 있었다.

차내에서는 참으로 이상야릇한 현상이 보였다. 누구나가 구룡역에서 여섯 시간씩이나 늘어서 있었고 하여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었다. 더구나 승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은 모두가 9할 이상은 먹을 것들인데 서너 살짜리 어린이 이하의 애들 이외에는 누구 하나 먹을 것을 꺼내서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어째서 이와같이 자기확대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종의 정신력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과의 국경역(國境驛) 나호(羅湖)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이 제각기 자기의 짐들을 걸머지고 다리를 건너 중앙지구로 들어갔다. 어떤 부인은 어린애를 업고 있었는데 그 어린애 손에도 조그만 보통이가 쥐어져 있어 옆에서 보기도 딱하기 짝이 없는 정경이었다.

일반시민들은 인간미가 엿보였다. 내가 갔을 때는 지금도 그러리라고 생각 되는데 소련인들은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눈치였다. 공포정치의 산물이겠는데 어쩌다 술이나 한잔 들어가면 제법 기분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스크바에 와있던 일본 작가 세 사람과 더불어 골키가(街)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 간 일이 있었다.

스탈린의 출생지인 조지아 지방의 요리를 특색으로 하는 모스크바에서는 유명한 집인데 음악도 제법 좋은 집이었다.

이 집에서 윗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작가인 A 씨가 기분이 좋아 가지고 술주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춤을 추겠다고 법석을 떠는데 일행은 남자들 뿐이니 별 도리가 없던 차에 옆 테이블에 공장 기사 풍의 부부와 또 한 여자가 앉아 있어 통역을 시켜 부탁을 하니 부인되는 사람이 선뜻 응해서 A 씨와 춤을 추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진기한 광경이어서 그런지 모두들 손뼉을 치며 야단들이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나서는 춤을 추고 하다가 그 부인을 껴안은 채 레스토랑 한복판에

내가 휴대하고 있는 하물은 향항불(佛)로 환전해서 230불 가량 되었는데 심수(深圳)(중공측의 국경검사역)에서 합계 소위 인민권 117·5원(元)이 과세되었다. 이것은 향항 불로 환산하면 274불로서 평균세율은 백십수(百十數)%가 되는 것이다. 나는 풍부한 체험에서 어떻게 하면 중세(重稅)를 피할 수 있을까를 알고 있었다. 보통 처음 귀향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령을 모르고 말린 새우 같은 산해진미만 가지고 있다면 300%나 세금이 부과되어 수중의 돈이 부족하면 그것은 창고에 맡기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 나의 기억으로는 소금에 저린 고기나 기름은 1 키로 당 인민권 24원, 사탕 38원, 고무신은 한 켤레에 3원이라는 세금을 붙이고 있었다. 공산당 지배하에 있어서는 만사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무엇이나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당신이 당한 검사관이 상당한 연배의 세관원이라고 한다면 세상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법하게 봐줄 것이다. 그러나 운 나쁘게 그와는 반대로 목하(目下) 입신출세를 꿈꾸고 있는 후보당원이나 혹은 공산주의청년단원에게나 걸려들면 용서 없이 호되게 세금을 부과하여 경을 칠지도 모른다. 또한 소지한 돈이 비교적 많으면 세율은 싸질 것이며 의복이라도 단정히 입고 있으면 어느 정도 봐줄지도 모른다. 휴대물은 가능하면 많은 종류를 소량씩 갖는 것이 현명책이다. 소량의 잠곡 따위는 면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관을 짜는 널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나이를 보았는데 그는 불과 인민권 30원밖에 하지 않았다. 그와는 어지간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어라고 말하였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아마도 잘 요령 있게 응답하였음에 틀림 없었다. 또 한 사람의 30세 전후 되어 보이는 부인은 빨강고노랑게 물을 들인 혼례용 떡이 든 광주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세관원에게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10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습니다. 누이동생이 어제 약혼식을 올렸는데 고향 어머님에게 그 축하용 떡을 갖다 드리려고요..’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가 자빠지고 말았다. 유럽이나 미국 같으면 이쯤 되기 전에 누가 타일렀을 터인데 여기서는 사정이 다른 모양이다. 여자나 남편도 그렇게 불쾌하지 않은 모양이고 집내의 사람들이 마구 웃어댔다. 통역이 신바람이 나서 해설하는 바에 의하면 원로(遠路)에서 온 외국 손님들에게 마음껏 놀아달라는 호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저네들에게 무슨 웃음이 있으랴 싶었다.

마냥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A 씨를 잡아끌고 밖에 나오니 마침 소나기가 쏟아진 뒤여서 아직도 뇌성이 울려 왔다. 비에 씻긴 거리 모퉁이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한 노파가 상가에 있는 물 웅덩이에 손바닥을 담그고는 이마를 축이고 있었다. 이상스러워서 바라다보고 있으려니까 무어라고 말을 걸어 왔다. 통역의 말을 들으니 자기처럼 하라는 것이라 한다. 처음 뇌성이 울린 날에 불빛 이 비친 불로 얼굴을 적시면 재수가 있다는 것이다. 소위 붉은 광장에서 메이데이 행진이 있던 날이었다.

그래서 세관원은 ‘어느 요리점에서 식을 올렸으며 상대자인 신량은 직업이 무엇이고 여자의 나이와 남자의 나이는...?’ 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그녀는 여기에 대해서 거침없이 대답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녀는 사전에 어떻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다는 답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모양이었다. 이리하여 결국 광주리에 담은 축하용 떡에는 아무런 과세도 하지 않았다. (중공에서는 닭고기를 넣은 떡이나 축하용 떡이 크게 환영을 받는다. 그 까닭은 떡 속에 고기를 많이 다져 넣었기 때문이다.)

즉 세관에서는 요령있게 상대방을 다루는 것이 제일이다. 가장 골탕을 먹는 것은 행상으로 지목될 때이다. 그들에게 이것은 수상하다고 꼬리를 잡히면 문제는 곤란하다.

### 광주(廣州)에 도착(到着)해서

광주역에 도착했을 때는 해는 이미 저 물어 어디에 가서 숙박을 해야 좋을지 걱정이 되었다. 광주에는 옛날 친구가 많이 있지만 신세를 지자면 얼마간의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A에게 준다고 하면 B나 C에게도 주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물건으로는 도저히 골고루 주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하다 못해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였다.

광주의 인상은 여전히 메마르고 우울한 것이었다. 거리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사방 근교에서 먹을 것을 찾아 몰려든 친구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거리는 거지꼴을 한 사람들이 우글거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버스를 잡아 탔다. 태산에 도착한 것은 점심때쯤이었다. 아내는 내가 보낸 편지를 받아 보았는지 어린 것들 넷을 데리고 버스정류장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다. 아내 보고 오늘은 발에 나가 일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으니 특별히 휴가를 받았다고 한다. 내일이면 음력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데 동네는 죽은 듯이 고요하고 노상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내의 말을 빌리면 초하루부터 3일간은 휴가인데 그것은 1년을

### 나이롱 양말 소동(騷動)

모스크바에 울쪼니키라는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유명한 공장이 있다. 이것을 시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스톤의 축을 만드는 곳에서 기사보고 제품을 있어서 오차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고 물어보니 천분의 5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나는 이런데 대한 지지는 전연 없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천분의 3이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천분의 1이라는 차이가 굉장한 것이라고 한다. 그 기사보고 오차를 천분의 3으로 줄일 수 없느냐 물으니 그 기사 하는 말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되는대로 많이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같은 공장에서도 역시 정밀기계를 만드는 곳에서 이 담배를 몰고 일하는 것을 보고 우리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에게 담배를 피우며 일해도 괜찮으냐고 물으니 그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것은 쇠로 되어있으니까 탈 염려는 없지 않소?’라고 대답하였다 한다.

통해서 오직 한 번 있는 휴가라는 것이다. 가족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공공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내가 가지고 온 소금에 절인 고기를 국수위에다 얹어서 먹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첫째로 할 일은 심수에서 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관서(官署)에 가서 체재등기(滞在登記)를 끝내는 것이었다. 호적계(戶籍係) 간부는 나보고 며칠 동안 체재(滞在)하는지 문기에 일주일간이라고 말해 두었다.

그는 나에게 쌀 3.5키로(1일 500그램)과 고기 500그램, 기름 500그램. 소금에 절인 생선 250그램, 사탕 200그램의 배급전표를 주면서 구판합작사(購版合作社) 매점에서 공가(公價)로 사라고 가르쳐 주었다.

간부는 북방인으로 별로 나를 심문하지 않았다. 아마도 내 경력이 분명해서 그랬던 모양이다. 그리고 어지간히 정중하기까지 하였다.

아내는 말하기를 인민공사원(人民公社員)의 금년 1호(戶) 당 정월 용품 배급은 돼지고기 100그램(인민권 1.1원), 소금에 절인 생선 200그램 그리고 야채가 조금이라는 것인데 우리 향향 사람들의 생활은 천국같은 호강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식량은 작년 여름부터 공공식당에서 각 호별(戶別)로 배급하여 가족수나 연령으로 분배한다는 방침으로 개정되어 있었다. 식량은 각 개인에게 배급되며 그 수량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었다. 즉 1등급—청장년, 1일 1일 500그램, 2등급—일반중년 및 여자, 1인 1일 250-300그램, 3등급—노인과 어린이 150그램.

매회마다 먹는 분량은 미리 식당에 통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규정으로는 쌀 100그램을 밥 300그램과 바꿔서 저울로 달아 주는 것이다.

###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다

그러나 태산현은 유명한 해외 화교들의 고향이어서 화교들의 송금수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대우를 받는다. 人民권 100원에 상당하는 화교송금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화교상점’에서 광목 한갑, 돼지고기 50그램, 기름 50그램, 소금에 절인 생선 100그램을 구입할 수가

소련에서는 여자 노동자도 남자와 같이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남녀공히 제복은 없는 모양이다. 여자들도 제멋대로 옷을 입고 있어 원피스를 질질 끌고 커다란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는 여공(女工)이 높은 곳에서 시찰인들에게 손을 흔들며 보이곤 한다. 공산혁명이 있는 지 40년이 넘는데 소련의 공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농민냄새가 풍긴다. 농민적 공산주의 국가라고나 해야 할 것 같다.

한번은 차이코프스키 극장에서 재미있는 싸움을 본 일이 있다. 그때는 소련에서도 나이롱 양말이 약간 나오기 시작한 모양인데 그야말로 귀중품 취급이었다. 나이롱은 다소 제조는 한 모양인데 모두 낙하산 같은 데 쓰이고 여자의 발까지의 차례가 못 돌아왔다. 소련에서는 레스토랑에서나 극장에서 전부 외투를 맡기는 데 겨울이 되면 모든 사람이 크고 무거운 외투를 걸치고 있어 귀찮기 때문이다. 보자니까 들어오는 여자들이 차례차례 외투예치장(外套預置場)에 들어가서 무언지 부시럭대고 있다. 핸드백에 넣어 온 비장의 나이롱 양말을 끄집어내서 이때까지

있다. 그전에는 식량 500그램을 살 수가 있었는데 화교 가족의 사람들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취소되어 버렸다.

그런데 사실상 인민권 100원의 화교송금수표를 입수하였다 하더라도 불과 앞에서 말한 물자 밖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소위 인민은행에

예금한다는 것은 그대로 공산당에게 송금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태산현의 화교 가족들은 인민은행에 많은 저금을 하고 있으면서도 배는 배대로 굶고 있는 것이다. 중공이 말하는 노동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다는 그 분배는 일반에게는 전연 중시되고 있지 않아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물건은 살 수 없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 있어서 아내의 소득은 모두 12원 정도인데 월평균 3원 정도였다. 그런데 그것들은 일한 분량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다. 24세의 소위 열성분자가 반년에 30원을 받았다는 것 따위는 특례에 속한다고 한다.

1일 노동의 최고가 10공분(공분이란 노동임금의 계산단위)으로 되며 보통은 5, 6공분으로서 일의 분량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내의 말로는 매월 내가 보내준 소포(식량)는 모두 틀림없이 받았는데 매월 보내준 돈은 소포의 세금을 내는데도 모자랐다고 한다. 중공의 규정에 의하면 건빵이나 마카로니는 50그램 이하는 면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0그램 당 0.35원씩이나 보관비를 내야만 했다.

내가 식량을 소포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렇게 굶주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동리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다. 아내는 나보고,

‘여기 올 때는 이웃에 줄 선물을 되도록이면 많이 가져오세요. 식구들은 참고 견딜 테니까요.’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아내나 아이들의 이후의 탈출에 도움이 될 것 같기에 그러는 모양이다.

저녁때가 되어 집안은 내가 왔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흡사 금의환향이나 한 것처럼 나를 보고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아내는 어른에게는 고기만두와 건빵을 한 개씩, 어린이들에게는 비스킷

신고 있었던 목면 양말과 바꾸어 신고 있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사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들은 나이롱 양말로 기분을 내서 그날 밤을 멋있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극장에서 막간(幕間)에 손님들이 복도를 거니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일인데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기에 가보았더니 깃연실(喫煙室) 입구에서 뚱뚱한 여자 손님과 극장 수위가 싸우고 있었다.

자기가 화가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구경을 할 경우에도 통역을 들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통역에게 왜 싸우고 있는지 번역을 부탁한 즉 싸움의 발단은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데서 시작된 것이었다.

수위가 낭하(廊下)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여자에게 피지 말라고 이르니 상대방 하는 말이 자기는 낭하에서 있지만 담배를 든 손은 분명히 깃연실 안에 있는데 무엇이 나쁘냐고 대들고 있는 것이다. 뺨 둘러싼 구경꾼들도 넘실대고 해서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통역을 들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한바탕하고 나서

다섯 개, 눈갈사탕 세 개와 피넛 한 움큼을 골로루 나누어 주었다.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설을 잘 쉬겠다’고들 기뻐하였다. 70가량 된 노파는 손자보고 ‘설날까지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타이르고 있었다.

공공식당은 그믐날부터 휴업을 하고 공사(公社)에서는 설날부터 3일간을 가정에서의 자취(自炊)를 허가하였다. 나는 얼마간이라도 가족들의 식량을 절약하고자 정월 초이튿날에는 아내와 어린애들을 데리고 마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 나는 소위 향향·마카오 동포이기 때문에 식량표는 필요없었으나 값이 비싼 데는 정말 놀랐다. 엉터리 콩나물 잡채 한 접시가 1.8원이나 하였다. 요리 같지도 않은 요리 세 접시, 스프 한 그릇, 밥 여덟 공기에 10원을 빼앗겼다. 맛은 형편없고 하여 더 이상 먹고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음식점에 갈 수 있는 자격은 해외 화교 뿐인 것이다.

공산당도 정초에는 제법 장식을 하고 휴가의 3일간은 공사에도 등과 테이프를 장식하고 징이나 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원래 7일간을 체재할 예정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4일부터는 일하러 나가고 혼자 떨거니 집에 틀어박혀 있거란 무의미해서 사흘되던 오후에 고향을 떠나기로 하였다. 그때 끼입고 왔던 의복을 모두 벗어서 종제들에게 주고 파출소에 제출(届出)하러 갔다. 나는 간부에게 가족을 데려 나올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하였으나 아무런 회답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자는 1년에 한 번씩 보러오면 되지 않느냐고 기가 막히고 정떠러지는 소리만 하였다. 고향에 갈 때의 기차내는 모든 사람이 많이 옷들을 끼입고 있어서 그랬던지 뜨거운 김이 후끈거렸는데 귀도(歸途)에는 모두가 단벌옷에다가 어떤 사람은 양말까지도 벗어놓고 온 모양이고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차창은 꼭꼭 닫혀져 있는데 모두가 추워서 떨고 있었다.

(외지(外誌)에서)

× × × ×  
× × × ×

는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호지부지 싸움을 그만두고 서로가 언제 싸움을 하였느냐는 식의 얼굴을 해가지고 아주 평온리(平穩裡)에 상반된 방향으로 걸어가 버렸다. 닭이 곧잘 이런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고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 비오는 날 신발

내가 숙박하고 있는 호텔 앞을 매일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끊임없이 화물차가 지나갔다. 여러 가지 자재를 운반하고 있는 것인데 대형 차량에다 화물을 조금밖에는 싣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앙드레 지드가 쓴 「소련 기행」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기에 보면 소련을 방문한 프랑스 광산노동자 단체가 동지애(?)를 발휘해서 소련 광부와 교체해서 일을 해 본 일이 있는데 프랑스 광부들은 힘 안 들고 모르는 사이에 소위 스타하노프 주의를 실행해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다. 모스크바의 거리를 달리는 트럭의 적하(積荷)를 보고 나도 이 이야기가 생각났다.

나와 같은 비행기로 소련을 왕복한 예능관계 사람으로서 10년간을 소련에서 포로생활을 보내고 그중에서도 6년간을 하바롭스크에서 보낸 사람이 있었다. 일본에 돌아올 때도 역시 TU-104에 편승하고 왔는데 천후(天候) 관계로 하바롭스크에서 이틀 밤을 쉬었기 때문에 거리를 거닐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수용소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먹는 것은 어찌하면 일반 시민들보다 낫은 편도 있어서 소련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다. 비가 오는데 여자들이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희안하게 생각하는 눈치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있을 때는 비가 오면 여자들은 기겁을 해서 신발을 벗어두고 맨발로 뛰어갔다는 것이다. 그만큼 신발은 귀중품이라는 것이다.

하바롭스크의 큰 거리에 서 있는 웬만한 건물은 모두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는데 소련사람들의 작업능률이 얼마나 비능률적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 사람의 말이 일본인 목수 한 사람이 이곳 목수 다섯 사람 몫은 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산권 입국허가를 받으려면 그 까다로움과 더딘 데는 질색할 노릇이다. 나도 그것을 참느라고 혼이 났다. 비밀리에 신원조사를 하느라고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5월이나 6월에 접어들어서야 그해의 카렌다가 나오는 나라이고 보니 말해 무엇하랴! 6월에 나온 카렌다에도 뻔뻔스럽게 1월부터 다 실려있다.

### 소련의 미인(美人)자랑

영국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소련 문화상(文化相) 후루쓰 에와(여자)가 런던에 갔을 때 기자회견에서 소련 여성의 목표는 스타일까지도 향상시켜 멋쟁이로 만들겠다고 기업을 토했는데 스타일 이야기를 하니 말이지 소련에 관한 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소련에도 코카서스와 같은 미인 명산지도 있다고 하여 골라보면 미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내 여행 중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본 기억이 없다. 모스크바에서 몇 사람

이름난 미인이 있었는데 잡지같은 데 간혹 실리는 미인이려면 언제나 이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다. 아마도 적색혁명 바람에 미인의 혈통은 다 학살되고 추물(醜物)만 남은 모양이다.

모스크바에서 소위 대외연락위원회 극동부장(極東部長)이라는 친구가 한턱을 낸다고 해서 찾아간 일이 있다. 극동부장으로 있는 고와렌코는 상당한 지위의 관리라고 한다.

사람을 초대해 놓고 고와렌코는 처음부터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욕만 늘어놓아 입맛이 떨어져서 외면을 하고 있으려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는 재미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그 말에 나는 슬쩍 불유쾌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먹는 자리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하니가 그 친구는 추근추근하게 그러면 무슨 이야기들을 하느냐고 대들었다. 그래서 나는 여여쁜 여자 이야기라도 하면 재미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당신네 나라에는 유감스럽게도 미인이 없어서 이야깃거리가 없다고 하였더니 그 극동부장이라는 친구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은 프리셰츠키야를 만나 본 일이 있느냐고 하였다.

소련의 대표인 발레리나라고 하면 올라노바를 가리키는 모양인데 올라노바는 늙어서 무대에는 나오지 않고 레페신스카야라는 발레리나도 한고비를 지나서 거기서는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소련 제일의 발레리나는 프리셰츠키야라고 한다.

고와렌코는 꼭 한번 프리셰츠키야를 만나 보라고 일렀다. 아무튼 프리셰츠키야를 만나고 나서 소련의 미인을 평해 달라는 수작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니 금방 비서를 불러 전화를 걸게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시베리아 지방으로 공연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러자 고와렌코는 당신 통역에게 프리셰츠키야의 주소를 알려주고 여기서도 연락을 해 놓을 테니 언제든지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소련의 전화번호부에는 개인의 전화번호는 없는 것이다.

모처럼의 후의(?)였으나 원래 발레에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났다 하더라도 이야깃거리도 없으니 당신 얼굴을 보러 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집어 치우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좀 서운한 느낌도 든다.

(끝) <L·L·J 초(抄)>

### 위험(危險)한 고비

볼테르(1694-1778)는 10세기 프랑스 사상계의 대표적 인물이었는데 1727년에 영국 런던을 방문하였을 때 런던 시민들의 프랑스에 대한 중요심이 대단하여 시중(市中)을 걸어 다니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다. 어느 날 그는 드디어 한 떼의 시민들로부터 봉변을 당하였다.

‘저 프랑스 놈을 죽여라! 저놈을 교살하라!’고 시민들이 외치면서 대들었다. 그러자 볼테르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그 군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영국인 제군! 당신들은 내가 프랑스 사람이기에 죽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영국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미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 한마디에 군중들은 감복하여 갈채를 보내면서 무사히 호텔까지 보내주었다.

# 케네디 신국방정책(新國防政策)의 구상(構想)과 그 전개(展開)

이윤희(李允熙)



오직 우리의 군사력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할 때 군사력이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연설에서—

## 1. 서언(序言)

케네디의 국방정책은 지난해의 그의 선거전에서 소신이 밝혀졌고 그것이 명문으로서 나타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보낸 일반교서(一般敎書)에서이다. 그 후 이 일반교서의 국방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3월 27일 국방예산교서에서 이것이 구체화되었고, 라오스 사태가 빚어낸 세계정세의 긴장시(緊張時) 5월 25일의 국회에 보낸 특별교서에서 더욱 그 실현이 강조되었다. 그 다음 다시 7월에 들어서서의 베를린 위기와 소련의 군비확장(軍備擴張) 선언에서 충격 받은 국방계획의 재검토와 국방력증강 추가예산 요청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케네디의 국방정책이 일관성

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마등과 같이 변전하는 긴박한 세계정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자연히 케네디의 새로운 국방정책에 눈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비롯한 배경과 논리를 파악하는 데에서 자유세계의 평화를 위한 노력—군축(軍縮), 핵무기관리를 위한 국제회의—이 어떻게 해서 군사력 강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의 일견 모순된 사태를 똑바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념에 대한 신념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필자는

1. 먼저 케네디의 일반교서에서 제시된 국방정책의 구상을 밝히고,
2. 다음 그와 같은 정책을 수립한 배경적 요소를 고찰해 보고,
3. 케네디의 국방정책이 국제정세의 장면의 변화에 비추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봄으로써,
4. 케네디 국방정책의 타당성과 건실성 여부를 결론지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케네디 국방정책(國防政策)의 구상(構想)

1월 30일 케네디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일반교서는 현 세계의 불안과 인류의 위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제를 정면에서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의욕적인 면에서 1월 12일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회고적이며 8년간 평화 유지에 대한 만족을 표명한 마지막 연두교서(年頭敎書)와 대조적이다. 우리는 케네디 대통령의 이 교서에서 새로 정권을 물려받고서 그의 의무와 권리를 다 하려는 열성과 경제, 내 국, 외교, 국방 및 우주 개발에 대한 커다랗고 새로운 구상을 엿 볼 수 있다.

먼저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최대의 시련이 소련과 중공의 세계지배의 야심에 있음을 뚜렷이 하고 그들의 도전에 이겨나가기 위해서 군사, 경제, 정치 등 수단의 전 병기고(兵器庫)를 재점검하고 개량해 나가야 하겠는데, 그때 하나의 정책으로서 미국 대통령의 문장(紋章)이 상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른 발로 올리브의 가지를 움켜쥐고 왼발로 화살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에 만 운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의 기본 방식을 밝히고 있다.

다음 국방문제에 들어가서, 어떠한 침략도 이것을 저지하여 침략자로 하여금 하등의 이(利)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줌으로써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수단을 강화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군사전략이 결여되어 있었고, 미국의 국가적 필요에 대한 기본적 상정(想定)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삼군(3軍) 간의



알력에서 그릇된 추정과 중복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력이 충분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 장관에게 미국의 전방위 전략, 공약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현유의 상비병력, 핵무기 및 병기체로의 타당성, 근대화, 기동력을 재검토하여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우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했던 것이다. 즉,

1. 공수능력(空輸能力)을 강화하여 지구상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가짐으로써 널리 분산된 각 지역에서 한정 전쟁을 시작하여 미국의 병력을 관여치 못하게 하는 계획적 책동에 대항할 것.

폴라리스 잠수함 계획을 촉진시켜 9개월 빨리 더 많은 저지력 함대를 건설하여 침략자가 감히 공격해 올 엄두도 내지 않는 충분한 보복능력을 갖출 것.

3. 미사일 계획 전체를 촉진시키는 조치를 즉시 취할 것. 여기에서는 주로 조직의 개선, 결정에 도달하는 방법의 개량, 각종 미사일의 발달을 방해한 낭비 많은 중복, 시간적 뒤떨어짐을 회복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비확장과 핵실험을 정지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군비의 관리(그는 군축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다.)를 국책의 중심 목표로 하여 군확경쟁(軍擴競爭)의 악순환을 지양하고, 핵실험 정지 교섭에 최대의 가능한 노력을 집중할 것을 밝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교서에서 그가 선포한 국방정책을 군사력 강화와 군비관리의 양면, 한정전쟁(限定戰爭)에의 대비와 보복능력의 유지의 양면을, 마치 올리브 나뭇가지와 화살을 양발에 쥔 독수리처럼 다 중요시하여 어떠한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폭이 넓고 융통성 있는 정책의 테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정책 형성의 배경을 행태론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 3. 국방정책(國防政策) 구상(構想)의 배경(背景)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케네디의 국방정책의 구상은 물론 그것이 아무런 사전 관련 없이 교서에서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선거강령을 들추어 보면, '군대와 병기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한정, 전면, 양방의 침략을 10분 억제할 수 있는 다양성, 균형, 기동성을 주기 위하여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한다; '병기 기술의 혁명 이전에 안출(案出)되었던 현재의 군사기구는 1960년의 전략적 억제, 대륙방위, 한정전쟁, 군사동맹 등의 요구에는 견디어 낼 수 없다. 미국의 군대가 다만 전보다 커다란 군사력을 갖는 것뿐 아니라, 중복을 피하고 충실한 힘을

갖추기 위하여서도 기능상으로 한층 면밀히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전면 전쟁을 전제로 한 대량 보복전략정책 편중을 비판하고 시대와 장면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국방기구의 재편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 이러한 정책 구상의 영향은 폴 닛츠(Paul Nitze) 씨의 등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닛츠 씨는 투르만 정권의 국무성 정책기획부장으로 있었고 대통령 선거 전에서는 케네디의 안전보장문제 고문으로 있었으며 그는 마침내 국방차관보의 자리를 맡은 사람이다. 닛츠는 딜레스가 대량 보복정책을 내세웠을 때부터 이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던졌으며 한정전쟁에 대비하여 통상군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왔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케네디와 아이젠하워의 행태적 요소에서 그 방법과 구상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케네디와 아이젠하워의 차이에 대하여서는 존 P 수더랜드(John P. Sutherland) 씨가 케네디 집권 백일을 분석한 데서 아이젠하워와의 차이를 흥미 있게 비교하고 있다. (주(註)1)

첫째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권한의 위임을 많이 하는 한편 한계를 명확히 지워놓고 다만 중요한 일만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질서 있는 참모조직에 의하여 일을 하였으나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가 모든 일을 직접 관여하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에 의하여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진행 중인 모든 일을 알고 하며 어떤 일의 결론을 짓는데 있어서도 방안을 모두 일일이 검토한 다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참모들이 검토한 것에 대하여 예스와 노만 대답하는 것이다. 즉 그는 군의 참모조직을 그대로 행정부에서도 살려 귀로 브리핑을 듣고 결정을 하지만 케네디는 눈으로 보고 직접 관여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로 아이젠하워의 측근자는 실업가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케네디는 교수지식인들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양(兩) 대통령이 취재후 80일의 방문객을 살펴보면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젠하워는 실업인과 30회에 걸쳐 만났으나 케네디는 겨우 두 번 회합을 가졌을 뿐이다.

셋째로 예산 관계에 있어 아이젠하워는 재무장관이나 예산국장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케네디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며, 듣는다면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경제 고문 회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넷째로 국회와의 관계인데, 아이젠하워는 국회의 지시

백악관의 공적(公的) 캘린더에 열거된 회합(會合)

	케네디 첫80일간	아이크 첫80일간
기자회견	8	6
각료회합	3	12
국가안전보장회의	3	12
기타회합		
외국지도자	36	25
미국대사	29	9
실업가	2	30
노동지도자	2	4
정치가	6	12
국회의원	37	96
정부요원(각료포함)	132	112
단체 및 의식적(儀式的) 방문	43	100
계(計)	301	418

이 별로 없었으나 케네디는 14년을 자기가 하원과 상원에서 살아온 곳으로 그 내막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이들 양표(兩表)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은 어느 편이든 느리기 짝이 없는데, 케네디는 아이크와는 달라서 정치적 압력과 자기편 사람을 움직여 밀고 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성과는 별로 거두지 못하였다 한다.

다섯째로 전 대통령은 각료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자주 열어 문제를 검토했으나 케네디는 그렇게 회합을 많이 갖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 하여 웬만한 일이 아니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관계 각료와 부닥쳐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각성은 1주 2회의 서면보고를 내게 하고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아이젠하워 시대에 있어서는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예정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케네디는 그와는 정반대로 시간보다는 일에 따라서 정력 있게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를 움직이던 실업가는 교수와 정치가들로 바뀌어 쫓고 미국의 국내외의 모든 정책의 끈나 풀을 케네디 스스로가 움켜 쥐고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아이젠하워와는 대조적인 케네디의 행태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 그는 자기 소신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2, 그 사전검토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인과 교수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그의 국방정책의 구상에 있어 위에서 본 폴 닛쓰 외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헨리 A 키신저(Henry A. Kissinger)이다.

키신저 교수는 「핵무기와 외교정책」(1957년)을 썼을 때는 핵무기 중시론 입장에서 있었다. 그러나 동교수(同教授)는 「선택의 필요성」(1960년)에서는 통상 무기(通常武器) 중시론에 견해를 바꾸었다. 그 이유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미국군 내부 및 동맹국 내부에서 한정 전쟁의 본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점, 2, 소련의 핵무기 저장량이 늘어 장거리 미사일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 3, 군비관리(군축)교섭의 영향 등을 들고 있다.

이상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생각해 보면 첫째의 핵무기를 한정 전쟁에 사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미국의 삼군 내 및 동맹국 내의 의견의 일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그 가능성이 없는 한 미군의 전략을 전적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는 입장을 고집한다면 미국은 현실의 위기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잃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소련과 중공의 외교적 위협에 좌우되기 쉽다.

다음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항공기에서 미사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 전쟁에 핵병기를 사용하려고 하여도 사정(射程)이 긴 미사일을 사용하며 그 발사지점이 국지전 지역 밖에 놓이게 되며 결국 한정 전쟁을 한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로는 군축에 대한 정세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핵실험 정치협정을 실현할 가능성 적지 않아 있으며 국제교섭에서 핵병기 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농후해질 것이다. 그러면 핵무기의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핵무기에 의하여 장비된 군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2) [이 점은 소련이 이미 핵실험을 재개했고 미국도 그 재개를 선명한 지점에 와서는 그 타당성이 없어진 것이 된다.] 따라서 ‘이후로는 자유 세계의 통상병력을 대폭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핵무기를 주요 병기로 하는 대량보복전략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키신저뿐 아니라 미국의 물리학자인 허만 칸(Herman Kahn)도 그의 최근 저서 「열핵전쟁론」에서 가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핵전쟁이 벌어지면 세계는 파멸될 것이라는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은 한낱 터무니없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핵전쟁이 설사 일어나더라도 문명의 종말이 반드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핵 공격을 받더라도 사전에 준비만 충분히 되어있다면 사상자의 수를 8천만에서는 2천만으로 줄일 수 있다. 대량 보복에 의한 핵전쟁이 우리가 생각해 오던 것보다는 덜 비참하다면 그리고 그 비참을 한층 감소시킬 수 있다면, 핵전쟁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며 핵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자동적으로 전쟁을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칸은 소련이 핵 공격에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전면 전쟁을 소련에서도 상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소련 자체도 미국에 대하여 강력한 핵공격을 할 수 있는 현재에 있어서 미국의 핵 보복력은 전쟁 저지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신뢰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칸은 미국에서도 민방공에 관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3)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선거전에서 미국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국방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로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한 1955년의 진먼(금문)과 마쭈다오(마조도)에 대한 중공군의 강한 압력, 인도차이나(인도지나), 라오스, 중동, 콩고, 쿠바 등 세계 각처에서의 공산주의의 도전, 대량 보복 전략에 대한 전기 비롯한 학자의 비판, 1959년의 테일러 장군의 제한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의 강화주장 등 1950년대의 10년간의 경험과 거기에서 귀납된 이론에 뒷받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4. 케네디 국방정책(國防政策)의 전개(展開)

일반교서에서의 케네디 대통령의 국방정책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네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즉,

1. 현재의 전략병기조직 연구위원회장에 관리담당 국방차관보 찰스 J 히치(Charles J. Hitch).
2. 한정 전쟁에 관한 요구조건 연구위원회장에 국제안전보장문제 담당 국방차관 폴 닛쓰.
3. 연구개발위, 위원장에 연구 및 과학기술부장 허버트 F 요크(Herbert F. York).
4. 국내의 기지의 효율성 및 이용성 연구위, 위원장에 후방지원 담당 국방차관보 토마스 D 모리스(Thomas D. Morris) (주(註)4).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종래 국방의 차함(次陷)이라고 봐온 한정 전쟁에 관한 연구위원회이다. 이 연구위에서 닛쓰 위원장은 이월 말에 건의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결론에서 1, 현재 미국은 한정 전쟁용 군대는 최저의 필요성도 충족 못하고 있으며 2, 어떤 형태의 한정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제1급의 군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육군과 보병대의 확대강화를 하루 빨리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5)

이들 4개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없어 여기에서 논의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여하튼 이들 연구에 기초하여 케네디 대통령은 3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교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이 국방예산 교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1월 30일 국회

에 제출한 일반 교서에서의 국방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예산의 뒷받침을 한 것이며, 전반적 군비관리를 목표로 하고 공산측과의 군비관리를 유리하게 하려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 결과로 1월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보다 8억 9천만불이 더 요구되어 국방비는 4백 38억 8천만불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회계년도의 정부의 신규책무 부담권한으로서 요청되고 있는 것은 아이젠하워 예산보다 19억 5천 4백만불이 증가한 4백 37억 7천백 10만불이 되어있다.

이렇게 군비를 강화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소원이 회의의 테이블에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도 미국이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성명하고 있다. 전에도 이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방침이었지만 그러나 이 교서에 있어서 이것을 뚜렷이 밝힌 것은 평시최고(平時最高)의 국방예산을 제출한 입장에서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가장 긴급한 당면문제(當面問題)로서 한정 전쟁, 특히 케릴라전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신 회계년도의 신규책무부담권한 중에서 7억 9천 6백만불이 이에 충당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한정 전쟁은 비핵전쟁으로서 제정하고 있음을 케네디 정권이 핵 한정 전쟁전략을 택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정 전력을 증강한다고 해서 국방정책에서 전면전쟁 저지전략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며, IRBM 폴라리스 적제의 원자력 잠수함의 대폭 증강과 ICBM 미니트만의 개량, 스카이블트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촉진을 중심으로 핵미사일 저지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폴라리스 잠수함의 증강비만 보아도 4년 간에 걸쳐 13억 4천만불의 신규 책무부담 권한이 요청되고 있다.

그 밖에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이제는 해외기지에 의존하는 전략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서에서는 미국 내외의 73개 군사시설을 폐지조치 한 것과 나아가서 더 폐지할 것을 연구 중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국방예산은 6월 말에 하원에서 대략 원안(原案)대로 420대 0으로 통과를 보았다. 통과한 액은 4백 27억불이며 이것은 2차대전 이후 최고액이며 1962년도 총예산의 반을 넘는 숫자이다. (주6)

이상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 사업에 전 재산을 걸지 말라'는 격언같이 대량 보복 전략을 정식으로 버리고 테일러 장군의 주장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케네디의 신국방정책은 미국의 쿠바에서의 실책과 라오스의 악화, 콩고의 불안에 따르는 중대 사건에 직면하여 5월 25일 이례적인 긴급한 국가적 필요에 의한 특별교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비록 ‘완에서 호루쇼프와 대결하려는 대통령의 목표와 결의를 표명한 교서라고는 하나 공산제국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하여 예산조치를 수반하는 몇 개의 중대한 정책, 즉, 1, 후진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원조의 증액, 2, NATO의 강화, 3. 비핵 병기의 강화와 게릴라부대의 증강, 육군 예비역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의 발전, 4, 국내 방공조직의 유효한 것으로의 개조, 5, 달 위성에 있어 소련을 이겨내기 위한 조치 등을 내걸었는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본 그의 국방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재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정책 밑에서 강화되어 오던 미국의 국방계획은 다시 7월에 들어서서의 베를린의 위기와 소련의 군비강화, 특히 7월 9일의 에어 쇼에 자극되어 다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26일 상, 하원에 대하여 34억 5천 4백 60만불에 이르는 추가군사비의 지출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던 것이다.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상원의 국방예산분과위원회는 도리어 B-70을 위하여 2억 2천 8백만불과 장거리폭격기 생산을 위하여 5억 2천 5백만불을 추가해 줄 정도였다. (주7) 이 서한의 내용은 대통령이 25일 밤, 베를린 문제에 관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미국의 군사체제강화의 조치로서 밝힌 것이며 삼군(삼군)의 비핵전력을 강화하고 병원과 병기를 증강하고 민간방위체제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요구였다.

이러한 조치는 케네디 대통령이 그의 연설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평화를 방위하기 위하여 하려고 하는 새로운 준비는 지난 1월 이래 추진되고 있는 장기적인 우리의 힘의 건설의 일부이다. 그것들은 현재의 베를린 위기를 넘는 한층 넓은 폭을 갖는 기반 위에 서서 전세계적인 위협에 대처하려는 우리의 필요에서 비롯하는 것이다...중략...내가 3월과 5월에 의회에 요구한 방위 건설비의 증액은 이미 우리를 새로운 방위목표로 향하여 행동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그것들은 보병대의 확장예비군의 즉응태세(即應態勢)의 개선, 공해수송력의 확대, 필요한 병기, 탄약 기타 조달증가 등을 포함한 것이다. 어떠한 침략자라도 이를 막고 또 격파하는 강력한 힘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것들은 우리의 미사일 병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의 B-52, B-47 폭격기의 반수를 경보(경보) 15분 이내에 발진완료케 하는 경계태세하에 둘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5. 결론(結言)

이상과 같이 케네디의 신국방정책은 1950년대의 경험과 이론에 뿌리를 박고 그가 선거에 임하였을 때부터 구상해온 정책으로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그 융통성에 있어서나 강력성에 있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정세에 알맞게 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팽창된 막대한 예산요구에도 미국민은 그들의 지성으로서 이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이젠하워 정부에 의하여 육성된 강력한 미국의 핵보복력은 아틀라스 및 타이탄의 지하발사기지, 미니트만의 지하와 열차로부터의 발사, 폴라리스 잠수함, B-52, B-58, 개발중에 있는 B-70 등에 의하여 더욱 화육성(化育成)될 것이며 한정전쟁(限定戰爭)에 있어서 한 입장에 있던 미국은 케네디 정부의 통상무기(通常武器) 강화정책에 의하여 완전한 방위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확실히 ‘굴복이나 전면적 핵병기의 사용이나 하는 선택보다는 더욱 넓은 선택(케네디 대통령의 7월 25일 연설 중)의 여지를 갖는 것이 어떤 힘이 자유세계를 목표로 사용되었을 때 이것에 대항하는 대책으로서보다 타당하고 건전한 것임을, 핵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와 자유를 생활신조로 하는 국민은 세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1961.9.10)

주1. U.S. News & World Report, 1961년 5월 1일, 68—70면.

2. 매일신문 1961년 3월 31일, 미국의 통상병기강화정책—관구 태(泰).

3. Time, 1961년 1월 2일, 10면.

4. Aviation Week, 1961년 2월 6일, 31면.

5. 매일신문 1961년 2월 19일, 2면 한정 전쟁에 중점(重點), 미국방정책의 재검토

6. Time, 7월 7일 14면.

7. Aviation Week, 1961년 8월 7일, 28면.

(필자 공군중령·공대 학술연구부장)

공산주의는 달콤한 포도주와 같다. 젊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은 마셔보기 쉽다. 그러나 이것에 취해서 길가에 넘어지도록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야말로 최대의 바보가 아닐 수 없다.

—라스카—

## 동서핵전략(東西核戰略)의 초점(焦點)

—핵실험금지의 문제점과 그 전망—

진봉천(陳奉天)



소련은 지난 9월 1일 돌연 핵실험을 재개함으로써 ‘죽음의 재’라고 알려진 원자방사능진(原子放射能塵)으로 대기권을 오염케 하였으며 베를린의 위기로 말미암아 날카로워진 동서관계의 험악한 공기를 한꺼번에 흐려 놓았다.

소련의 이와 같은 핵실험의 재개는 일찍이 1954년 3월에 실시한 비키니 섬에서의 미국의 수소폭탄실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로 희생이 된 일본의 제 5 후쿠류마루(복룡환) 사건 이래 방사능의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인류를 다시 한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오늘날 동서 간에 남아 있는 유일한 협상의 문호인 제네바 핵실험중지 회의를 와해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재개케 만들어 놓았다. 이리하여 앞으로 당분간 동서관계는 핵병기의 경쟁과 힘의 다툼으로 지배될 것이며 군사적인 과격한 언사의 응수가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평화공존이나 협상에 의한 해결의 분위기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 핵병기(核兵器)의 현황(現況)

미국이 1945년 8월 6일에 광도에 그리고 8월 9일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태평양전쟁을

종결시킨 이래 프랑스가 최초의 원폭을 폭발시킨 1950년 2월 13일에 이르기까지 13년 동안에 미소영 3개국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프랑스가 원자폭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원자물리학자 후루프 랍프 박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중공도 일년 이내에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5개국이 수폭(水爆) 내지 원폭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저장량에 있어서는 미국이 수위로 소련을 훨씬 리드하고 있으며 영불의 보유량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원자과학계는 추산하고 있다.

광의의 핵병기라고 하면 초강력과괴력을 가진 원폭과 수폭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하는 로켓추진 탄도유도탄을 겸해서 지적하고 또한 이를 방어하는 병기 이룰테면 아직 미국에서 연구과정에 있는 나이키주스 병기라든지 소련에서 연구 중인 ‘중성자(中性子)의 폭막(爆幕)’ 같은 것이 포함되고 레이더망까지 함께 치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소영불이 원폭 내지 수폭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목표까지 운반하는 유도탄분야에 있어서는 미소 양국만이 핵전용으로 경쟁할 수 있는 병기를 보유하고 있다.

양대국은 각각 국지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의 단거리유도탄과 원자포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천5백마일 내지 2천마일의 사정거리를 가진 중거리탄도유도탄(IRBM)을 5천마일의 착탄거리(着彈距離)를 가진 대륙간탄도유도탄(ICBM)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도 우주과학과는 달리 미국이 앞서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원자잠수함을 독점하고 있는 터이다. 영불도 로켓트과학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수폭(原水爆)과 마찬가지로 아직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방어분야에 있어서는 레이더망이라고 알려진 소극적인 병기인 조기경보망이 있으나 경보시간과 피난시간의 시차가 극히 짧기 때문에 효율적이 못되는 병기로 알려지고 있다.

ICBM 대항병기는 아직 뚜렷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으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나이키주스’라는 이름을 가진 대항병기가 실용화되면 금후(今後) 8년이 걸릴 것인데 미국의 삼군상호의 우주병기개발기관인 고등연구개발기관의 하버드 요크 박사는 나이키주스의 실용성을 의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소련에서 대항병기로서 ‘중성자의 폭막’이라는 중성자탄을 연구 중이라고 하나 어느 정도 신빙할 만한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 핵전략(核戰略)의 초점(焦點)

미소 양국은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서로 가상적으로

보고 냉전이 전면적인 열전으로 화할 경우 적국을 순식간에 섬멸시킬 공격 내지 수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핵병기 분야에 있어서 보다 우위에 서려고 경쟁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정치외교경제의 뒷받침이 되어 온 군사력의 본질은 특히 근대사를 통하여 여실히 증명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상극(相剋)하는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2 대강국(大強國) 미소는 제 2차 세계 대전 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에 부딪혔다. 즉 한쪽으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군사력의 우위확보경쟁과 한쪽으로는 이를 배격하는 거센 휴머니즘의 외침에 호응해야 되는 딜레마의 이율배반성을 극복하려고 허덕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고민은 휴머니즘이란 이름 아래 열강국의 군축회의와 핵실험 중지회담이란 형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 2차 세계 대전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접근했으나 핵병기 분야에 있어서는 제자리 걸음을 한 군축회의의 실패는 안치하고 세계의 반대 여론의 압력을 받고 2천 3백 1일간 계속되어 온 핵실험 중지 회의와 3백 38차나 회합을 하여 온 핵실험 중지 회담은 소련의 일방적 실험 재개로 동시에 중지부가 찍혔다.

소련은 과연 어떠한 의도에서 세계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재개하였을까? 군사적으로 보면 이렇다 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과학자들의 견해이다. 타스 통신을 보면 20, 30, 50 및 100메가톤(1메가톤은 TNT 백만톤에 해당한다. 9월 1일 핵실험 재개 이전에 소련이 실험한 것은 킬로톤급 즉 TNT 천톤)에 해당하는 초강력핵폭탄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강력한 핵폭탄은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이 미국 원자과학자 라프 박사의 의견이다.

미국도 실험능력이 있는 이 핵폭탄은 원폭-수폭-원폭의 3단계로 폭발이 유발되고 방사능진(放射能塵)의 악영향이 더 많은 F폭탄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원폭이든 수폭이든 F폭탄이든 핵폭탄이 파괴병기로서 유효하려면 그 파괴력은 옆으로 퍼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많은 부분이 위로 솟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비용의 낭비일 뿐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도시 등의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1959년에 미의회에서 수폭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때 알려진 바로는 10메가톤의 수폭 두 개를 가지고 파괴할 수 있는 도시는 뉴욕을 포함해서 10개 도시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그 이상 더 큰 핵폭탄은 지금의 세계에서는

아직 필요없다는 말이 된다.

소련은 인간이 탑승한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핵폭탄 공격을 하게 될 것 같이 선전하고 있으나 서방측은 인공위성을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군사 및 경제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핵실험재개가 전연 군사적으로 가치가 없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 군사경제적으로 무의미한 폭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신병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전술용의 핵병기를 들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소련이 미국에게 훨씬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험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전연 새로운 듯 병기가 소련에 생기지 않았느냐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작년 1월 후르시초프는 소련기술자의 가방 속에 신병기가 있다고 자랑한 바 있는데 그 설계로 추측되는 것이 공격용인가 방어용인가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소련이 선전한 바 있는 중성자의 폭박 즉 중성자폭탄을 만들어 ICBM을 방어하는 병기를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병기 발전과 전략상 큰 혁명이라고 할 것이나 미국의 대항병기와 같이 조기실현가능성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에서 논급(論及)한 군사상의 이유는 소련의 핵실험재개발표 전문에 관한 한 외교상의 이유보다 더 크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군사전략상의 이유를 들어 보면 미국의 정찰기사건과 청찰인공위성 사모스의 발사는 소련의 안전보장에 암영을 던진 것은 사실이다. 즉 그 때문에 군비를 강화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핵실험을 재개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소련은 현재 8메가톤의 탄두를 부친 액체연료 로켓추진기의 ICBM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에서 보고 있다. 소련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먼저 공격해 올 것이라고 가상하고 미국의 ICBM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소형(小型)이면서도 고성능의 ICBM을 개척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며 이르기 위해서 일련의 핵실험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관측이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선전용의 핵병기를 실험해서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어 소련의 위력을 과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소련이 실험하겠다는 100메가톤의 핵폭탄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군사경제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 핵실험금지(核實驗禁止)의 문제점(問題點)과 그 전망(展望)

소련은 금년봄에 핵실험중지회담이 재개된 이래 관리

## 대량위갈(大量威喝)이란?

소련은 그들의 군대의 간판을 평화의 사도라고 내건지 이미 오래다. 공산주의 광신자 외에는 아무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없지마는 어쩌면 그들의 손이 뻗치는 곳마다 그렇게도 평화를 교란만 하고 있던 말인가? 한국은 일찍이 6·25 동란에서 그들의 평화의 사도로 말미암은 대피해를 겪은 바 있거니와 현지 지구상에는 도처에 그들의 평화의 사도에 의해서 철저히기도 평화가 파괴만 되고 있지 않은가? 라오스, 베트남, 베를린, 헝가리, 쿠바...헤아리기에 바쁠 지경이다. 그래서 이른바 평화의 사도라는 양의 가족이 벗겨짐에 따라 크렘린은 새로운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최근의 후 르시초프의 발언으로 나타나는 위협과 공갈정책이다. 소련통의 권위었던 고 딜레스 씨는 그의 저서 「전쟁과 평화」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전쟁을 도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력전에서보다 지하침투공작에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바로 다름 아닌 공산주의자들의 간접침략이다. 그러나 최근의 공산 지도자들의 동태는 침투공작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 군사적인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자유진영을 굴복시키려는 이른바 대량위갈전술로 태도를 바꾸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여기에 최근에 나타난 크렘린의 오만하고 자기도취에 넘치는 위협적 발언의 몇 가지를 살펴보자.

전세계인류의 애절한 호소를 마이동풍 격으로 흘리며서 광도원자탄의 2천 배의 파괴력을 가진 30-50메가톤의 수폭을 기어이 터뜨리고 만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지난 10월 18일 후르시초프는 제22차 공산당대회에서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함양적인 발언을 하였다. “공산주의는 내일의 세계의 지배적 조류다. 죽음이 싫으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일이다.”라고 이 말은 정언이라기보다도 방약무인한 폭언이다. 이와같은 그들의 발언 속에서 그들이 소리높이 외치는 소위 평화공존의 그림자의 편린조차 찾아볼 수 있던 말인가?

지난번 케네디 대통령과 만났을 때 후르시초프는 이런 말을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소련이 남의 눈치를 살피던 시기는 지났다. 소련의 힘은 이제 당신들보다 더해졌다고 그러자 뒤이어 말리노프스키 소련 국방상이 우리는 비상중인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는니 잠수함대를 섬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느니 하여 말끝마다 위협과 공갈을 일삼고 있다.

그들의 배정은 분명하다. 3차대전은 전인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니 자유진영으로 하여금 전쟁의 일보전에까지 몰아넣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추종과 가능하다면 굴복을 강요하는 술책이다. 그러나 이같은 그들의 이른바 대량위갈은 자유진영의 힘의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스스로 외쳤던 소위 평화공존 을 스스로 파괴하였다는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뿐이다. (Y)

사찰의 트로이카 식 (총관리관 3인제)을 들고 나왔으며 핵실험중지와 군축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신제안을 조상(組上)에 올려놓았는데 서방측은 이미 소련이 핵실험협정의 조기성립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관측하였던 것이다.

핵실험중지협정에 합의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가간(家間)의 전통적인 불신까닭이며 이것이 핵실험중지협정의 가장 핵심인 사찰방식에 대한 의견상충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관리와 사찰방식에 합의를 못 보면 핵실험중지도 핵병기의 군축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종래와 같은 군비경쟁으로 환원할 수 밖에 안 도리가 없는 것이다.

소련이 핵실험을 재개하기 전에 미국에서도 핵지하실험재개문제가 대두된 일이 있다. 닉슨 전부통령이 지적한 것을 보면 케네디 대통령이 핵실험재개명령을 내정한 바 있으나 외국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보류했는데 이것 역시 위에서 말한 논리의 필연적 방향으로 움직여 나간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다. 소련이 먼저 재개했기 때문에 세계의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까닭에 미국은 자유로운 입장에서 핵지하실험을 재개할 수 없게 되었고 외교상으로도 커다란 플러스가 된 것이다.

베를린 위기에 있어서 미영불 3대국이 단결하여 서부 베를린의 방어진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토를 강화하는 상상외로 강경한 태도로 임하자 소련은 외교상으로 무슨 대항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서 핵실험을 재개한 것이고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중립국지도자회의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세계의 세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공산권으로 기울어지게 하려는 부수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련은 세계 여론의 비난을 무섭게 받으리라는 것을 마이너스로 계산하고 있으면서도 군사상으로는 핵병기경쟁에서 미국에게 리드 당한 격차를 조금이라도 속히 메꾸는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서방측에게 자국방식대로 베를린 문제를 해결할 것과 자기방식대로의 군축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군비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최후통첩의 형식으로 핵실험을 재개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련이 노린 플러스는 상상외로 적어져 갈 것이 분명하며 과소평가한 마이너스가 의외로 커지고 있음이 증명되어 가고 있다. 소련은 첫째 외교상으로는 인류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공포제조국이란 각인이 찍혔으며 오는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공격 앞에 수세(守勢)의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미국으로 하여금 핵병기의 우위로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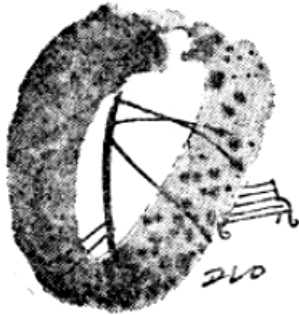
중립국정상회의의 권고대로 협상에 의해 해결을 보지 못하는 한 앞으로 동서관계는 핵병기의 경쟁과 힘의 다툼으로 지배될 것이다.

이제 인류는 다시 한번 소련의 독단적 방종으로 불안의 장막 앞에 서게 된 것이다.

(필자·시사통신사 외신부장)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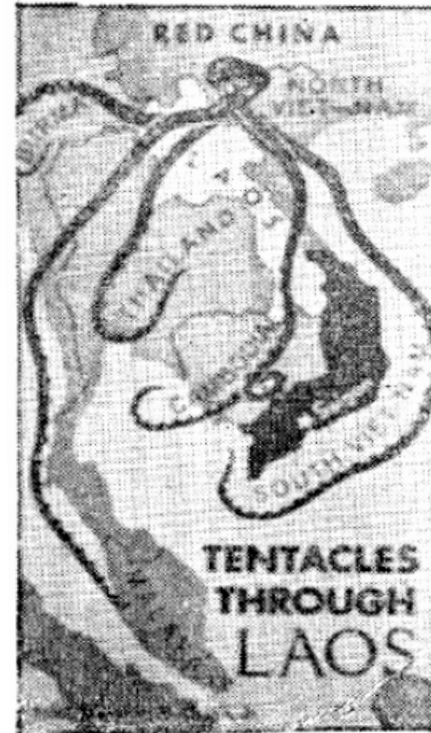
## 공산주의(共産主義)와 오늘의 세계(世界)



중공(中共)의 동남아정책(東南亞政策) . . . . .	양흥모(梁興模)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공산책동(共産策動) . . . . .	김창순(金昌順)
동구(東歐)가 적화(赤化)되기까지 . . . . .	조순승(趙淳昇)
공산주의(共産主義)와 중동(中東)의 가는 길 . . . . .	김광섭(金光涉)
소(蘇)·중공(中共)의 알력(軋轢) . . . . .	E·S자고리아
폴란드와 유고의 불화(不和) . . . . .	아담·브롬크 크드라치코빗치
동독(東獨)의 고민(苦悶) . . . . .	김규환(金圭煥)
북한(北韓)의 최근동향(最近動向) . . . . .	한재덕(韓載德)
쿠비는 공산화(共産化)할 것인가 . . . . .	방필주(方弼柱)
소련(蘇聯)의 선전술책(宣傳術策) . . . . .	김기점(金基漸)

## 중공(中共)의 동남아정책(東南亞政策)

양흥모(梁興模)



지리적으로 확실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동남아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나라들을 열거해보면 필리핀·태국·파키스탄·베트남·북월·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인도·아프가니스탄·인도네시아·네팔·부탄·마레·싱가폴들이다. 이 중에는 필리핀·태국·파키스탄과 같은 동남아 지역의 자유진영집단안전보장기구인 동남아조약기구(써토)의 회원국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자유진영의 집단안전보장기구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강력히 반공을 내세우는 월남·마레 등의 자유국가가 있다. 또한 그 중에는 동·서 어느 진영과도 동맹 관계를 맺지 않은 이른바 중립인 캄보디아·미얀마·인도·인도네시아·네팔·부탄·아프가니스탄이 있고 공산진영의 북월이 있으며, 아직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라오스가 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은 대체로 자유 제국(諸國)과 중립 제국(諸國)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공의 동남아 정책은 이에 따라 그 각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중공의 대외정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중공을 국제적으로 승인시키자는 것이요, 또 하나는 중공의 영토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인 것이다.

중공은 이를 위해서 아세아 인접국가만에 그치지 않고 멀리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수단으로써 중공은 대상에 따라 사절단의 교환·중공정책의 선전·무력침투 등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동남아의 자유국가들은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그의 침투에 대한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렇게 문제될 바가 없는 것이지만 이것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방위태세가 확립된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중공의 침략에 위협되고 있다.

중공은 일찍이 한국전쟁 때 그의 병력을 투입하여 북한공산괴뢰군에 가세한 바 있지만 그 후 그 화살을 인도차이나반도에 돌려 인도차이나의 동란을 조성하여 마침내는 북월을 분단하게 만들었다. 그 후 티베트를 완전히 예속시켰는가 하면 대만을 무력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명년 8월부터 격화된 라오스 동란의 이면에는 중공의 암약을 간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중공의 침투상황을 보면 첫째로 전기한 바와 같은 중립국에 대한 정책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공의 동남아중립국에 대한 정책은 무역·경제원조·차관·계획적인 덩핑·외교사절의 교환 등을 통해서 서구자유민주주의국가보다는 중공이 유리하다는 선전을 하며 이들 중립국들을 친중공적인 경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고 동남아세아에서의 자유민주진영의 지위를 약화시키려고 한다.

중공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공이 모든 부면에 있어 자유민주국가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공산주의를 직접체험하여 저항이 심한 반공국가에서는 이러한 중공의 선전은 그렇게 효과를 가질 수 없으나 중립국은 그렇지도 않으므로 이러한 선전을 더 한 층 치열하게 감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공발전의 경위설명이라든가 아세아·아프리카 제국(諸國)의 단결을 촉구하기도 한다. 또한 중공은 자기들이 가장 중립국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게 하는데 선봉에 나선 것처럼 주장한다.

이러한 것을 잘 나타내는 중공의 말을 적어보면 금년 4월 24일 베이징인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것을 게재하였다. 즉

“중공인민은 언제나 ‘반동’ 정신에 충실하였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하여 싸우며 민족의 독립을 쟁취보호하려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을 적극 지지하였다. 중앙인민은 오랫동안 걸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노레가 되었으며 탄압을 받았다. 오늘날 아직도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중공인민과 모든 피압박민족은 영구히 화복을 같이하며 서로 동정하고 지지하고 있다. 우리들의 이 입장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선전을 내세우면서 중공은 중립국가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공은 중공의 우위성을 선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세계는 동풍이 서풍을 능가하는 시대로서 인류사회는 자본주의에서부터 사회주의로 인민대중은 승리를 거둘 것이며 자본주의·제국주의·식민주의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다.(1961.3.30 인민일보에 게재된 송경령(宋慶齡) 논문)

또한 라오스를 중공편으로 끌기 위한 운동도 치열한 것이다. 즉 지난 4월 23일 중공수상 주은래(周恩來)는 중공을 방문한 라오스의 푸마 공(公)을 비행장에서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중공과 라오스 간의 우의관계의 발전은 우리들 양국의 공동소망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평화를 보호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바나·푸마 공과 스파나 봉 공의 방문은 양국간의 우의관계를 더 한 층 발전시킴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수바나·푸마 공에 지도된 정부가 독립·민족단결·평화·중립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라오스 전체인민이 하는 것이다. 중공은 그들의 정당하고도 애국적인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지하며 충심으로 그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될 것을 바란다.”

이리하여 중공은 라오스에 대한 무력침략과 함께 접근을 시도하며 나아가서는 동남아중립국전체에의 침투를 꾀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위한 가지가지의 선전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중립국의 선전에 비해서 국내정국이 안정되지 못하고 식민지에서 갖 독립한 그 밖의 동남아 제국(諸國)에 대한 침투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공은 인접한 인도·



사이트



라하만



네루



호지명(胡志明)



우누



응오딘지엠



태국의 수도 '방콕'

미얀마 영토를 자기영토라고 주장하여 국경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동남아 일대에서 공산 게릴라를 침투시키고 있다.

**태국(泰國)**=태국은 동남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서 중공침투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 나라에 대한 공산침투의 대상은 태국태생의 화교와 주로 제2차세계대전 때 피난해온 베트남 사람들이다. (베트남 사람들의 대부분은 북월에 송환되고 있다.)

태국의 총인구는 2150만명인데 그 중 300만이 화교들로서 그 화교들 중 250만이 태국태생이다. 여기에 침투하고 있는 중공당원은 5천명 이하로 보고 있으나 그 암약은 활발하다는 것이다. 중공은 화교들의 노동조합·학교·신문·사회문화기·도시에 있는 상사를 통해 암약하고 있으며 수도 방콕에 있는 화교 실업가들은 베이징으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에 있는 베트남인은 한때 8만 내지 10만에 달하였으나 1960년 대부분이 송환된 것이다. 태국은 1952년 이래 공산당의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으나 공산주의자들은 마레 국경선에 따라 게릴라를 투입하였다. 그래서 마레 정부와 태국 정부는 공동으로 공산 게릴라 소탕전을 개시하여 지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수가 격감되었다는 것이다. 태국은 8개국 씨토의 회원국이며 콜롬보 계획회원국으로서 자유열강과 동맹관계에 있으므로 어떠한 외부침략이 있을 때는 집단방위의 힘으로써 대결하게 될 것이다.

**캄보디아**=캄보디아는 북서쪽으로는 태국과, 그리고 동쪽 및 남동쪽으로는 베트남과, 북쪽으로는 라오스와 인접하고 있으며 동남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인구는 460만인데 화교가 약 30만·베트남인이 30만 살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공산당인 인민 당원수는 2,000명 이내이며 약 3만 명의 추종자가 있다. 이 인민당원은 주로 베트남인 출신들이다. 1957년까지 중공은 화교집단과 협회의 요직에 침투했으나 1958년 캄보디아 정부는 이 경향을 견제하는 수단을 취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대상은 청년학도와 지식인들이나 1960년



동독(東獨)의 공산군(共産軍)

8월 23일 15 명의 인민당원을 체포하고 그 기관지를 정간(停刊)시킨 바 있어 그 활동은 격감되었다.

그러나 캄보디아 수상 시하누크 공은 국내공산당원의 활동을 싫어하면서도 모스크바와 베이징과 우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캄보디아는 공산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왔으며 특히 중공으로부터 2800만불의 원조를 받았으며 명년말 시하누크 공은 공산을 여행하면서 보다 많은 원조를 약속받았다.

**마레**=마레는 1957년 8월 31일 영련방국가로서 독립하였지만 그의 인구 630만 중 38퍼센트 이상인 240만이 화교들이다. 마레 공산당은 비합법화 되었지만 화교들은 이들 공산당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1948년 중기이래 마레 공산당은 영국군에 대하여 게릴라전을 시도하였으나 1960년 7월까지 그의 대부분을 소탕하였다. 한때 마레의 공산 게릴라는 1만 1천 명의 무장군이었으나 지금은 1천 명도 못 된다고 한다. 마레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화교들로부터 자금을 얻었으며 밀림 지대의 촌락으로부터 식량을 보급받았던 것이다.

**싱가폴**=1959년의 7월에 독립한 싱가폴은 독립 이전 1955년 5월에서 7월에 이르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심하게 발호한 때였다. 싱가폴의 공산당원 수 500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공산위협은 직접적으로 베이징에서 오고 있다. 인구는 150만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은 화교들의 학교·노동조합·사회단체에 침투하고 있다. 싱가폴의 4분의 3은 화교들로서 그들은 여러 대 전부터 이곳에 살고있는 것이다.

싱가폴의 화교들이 베이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 나라는 화교들의 친척이 중국본토에 살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싱가폴 출신 화교들이 중공에 돌아가서 등용되었다는

## 공산주의(共産主義)와 중동(中東)의 가는 길

김광섭(金光涉)

동방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을 중동이니 근동이니 또는 중근동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 범위도 막연할 뿐 아니라 영국이 아시아 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아시아 지역을 극동이라고 불렀고 이란·아프가니스탄·이라크 지역을 중동·시리아·레바논·터키·올دان·아라비아·이집트 지역을 근동이라고 부른 영국의 정치적 개념상의 호칭이 오늘에 와서는 통칭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 지역은 원래 8세기에 마호메트가 회교(回敎)를 창시한 이래 광대한 회교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19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서구 문명이 흘러 들어감에 따라서 문화면에 있어서도 많은 변혁이 일어났으나 서유럽열강들의 식민지 획득취쟁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서구 제국(諸國)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가운데 20세기 초부터는 이 지역에서 풍부한 석유자원이 발견됨으로써 이 지역의 국제적 중요성이 증대한 것이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이 되면서부터는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석유자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냉전무대로 등장하였으나 이미 훨씬 이전부터 소련은 더운 바다로 통하려고하는 남진정책의 일환으로써 이 지역에 관한 깊은 관심은 저간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이 지역의 반식민지적 회교 제국 국민들 사이에는 이미 싹트고 있었던 민족해방운동이 다른 여러 지역의 민족해방과 국가의

것이다. 싱가포르 출신 상인인 단·카·키는 중공에 돌아가 인민회의의원과 베이징에 있는 해외거류민회의의 위원이 되었으며 그를 통한 싱가포르에 대한 영향은 크다고 한다.

1958년 싱가포르 정부는 중공의 선전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조사하여 동년 10월 이를 금지케 하였다. 명년 5월 싱가포르 정부는 4개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종하는 노동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바 있고 그에 뒤이어 이러한 공산단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끝으로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 베트남의 인구는 1330만 명으로서 그 중 화교는 73만 명이다. 베트남은 반공국가로서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있지만 베트남을 정복하려는 북월공산 게릴라가 침투하고 있다. 베트남에 침투해 있는 공산 게릴라는 약 1만 명으로 알려졌으며 베트남 정부는 과감히 이 소탕전을 전개하고 있어 그의 박멸은 시간문제로 되어있는 것이다.



기니아 대통령과 사우드 왕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중근동 지역 일대는 석유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주의자들의 압무를 비롯해서 동서간의 냉전에서 오는 전략적 가치로 말미암은 국제적 중요성으로써 제3차세계대전의 화약고라고까지 지칭되게 되었다. 그런데 1955년 여름부터 소련은 이 지역에서의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아시아·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경제원조공세를 전개하였다. 소련은 먼저 1955년 10월 이집트에 대해서 농산물 건축자재 그 밖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자재를 공급하겠다는 경제원조를 제의하였고 또 이집트 정부가 계획하에 있던 아스완 하이댐 건설에는 자금과 자재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경제원조와 함께 이집트·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상업거래의 형성에 의해서 무기도 공급할 것을 제의한 일이 있으나 이집트

이러한 것은 동남아 제국(諸國)에 대한 중공침투상황의 개황을 말한 것이다. 중공은 1955년 주은래(周恩來)가 반둥회의에 참석한 이래 직접적인 무력침투와 함께 인도·인도네시아·미얀마 등의 중립국과 표면적인 우호추진을 시도하는 등 양면작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조선일보 논설위원)

### ○ 후르시초프가 내건 독일문제해결안이란?

1. 동서 양독일 정부 승인 2. 동서 양독일의 UN가입 3. 동서 양독일의 원자무기보유금지 4. 오데르나이세선을 파란과 독일의 확정국경선으로 정한다. 5. 서방측의 베를린 통행을 보장한다. 6. 중구주둔NATO군과 와르샤와 조약국의 격리.

후르시초프의 이와 같은 안은 영국노동당출신회원들이 후르시초프에 요구한 국제위기를 해소하라는 데 대해 회답한 것이다. 결국 그는 양분된 독일의 영구화를 획책하는 것이다.

만이 이를 받아들여 소련제 미그17 전투기를 비롯한 다량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1955년 10월에는 이집트와 체코슬로바키아 사이에 무기 수출협정을 체결하고 이집트의 면화 미곡을 수출하는 대신 체코슬로바키아의 무기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중근동 아랍국가들의 아랍민족통일의 지도자로 자처하려는 나세르가 영도(領導)하는 이집트가 누구보다도 먼저 공산주의국가 소련 체코슬로바키아의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서방측을 자극시켰다. 이집트의 나세르가 공산진영에 접근하게 된 이면에는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위한 나세르의 범아랍민족주의에 그 근인(根因)을 두고 있는 것이다. 후르시초프는 최근서부 베를린의 존재를 마치 목구멍에 걸린 가시와 같다고 비유했지만 아랍 국가 및 아랍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란 그러한 정도에 비길 수 없을 만치 이스라엘 국가의 말살을 공언히 호언하고 있는 터이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창건과 함께 아랍 민족 국가들과의 국경분쟁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창설됨으로써 고토(故土)를 잃은 아랍 난민 수백만의 문제 등은 공산주의의 침략과는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특히 이집트의 무력쟁투에서 벗어난 군비증강필요성에서 양측이 모두 서방에 무기매도를 요청하였으나 미영불 3국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개국공동성명으로써 어느 편에도 무기의 제공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동정적(同情的)인 미영불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소련의 원조에 의해서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협하였다. 소련은 또 물실회기(勿失好機)라해서 무기와 함께 기술자라는 이름 아래 소련군 장교들도 대량으로 파견하였다. 나세르의 이러한 반서방적 반발행동이 한때는 서방측으로 하여금 나세르가 영도(領導)하는 이집트가 공산위성국(共產衛星國)으로 기울어지지나 않나 하는 위구(危懼)까지 품게 하였으나 나세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나라는 회교국이니만치 결코 공산주의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곤 하였다.

한편 현재는 이집트와 통합하여 아랍연합공화국을 형성한 시리아에서도 1955년 8월에 선거를 해서 당선된 쿠와트리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곧 소련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와 다마스카스에 주재하고 있는 상호의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재격시켰고 당시 소련 외상이었던 세피로프는 1956년 8월에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이집트·시리아 양정부의 수뇌들과 모종의 비밀회담을 함으로써 시리아는 소련과 더불어 문화 및 경제협력의 강화 약속하였다. 그 당시 서구측에서는 양국간에 비밀군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설이 유포되었으나 양국은 그것을 부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요직에는 친공산주의분자들이 많이 있어서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사주에 의해서 시리아 주재 미국외교관 3 명이 시리아 정부를 전복시킬 음모에 참관했다고 비난하고 시리아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미국도 보복조치로서 주미 시리아 대사와 같은 2등서



○단장○ 저 친구 무슨 색깔을 칠하려나?  
백인수(白寅洙)

기관의 소환을 요구하여 외교단절의 위기에까지 이른 일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던 직후 시리아에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미국과의 표면상 연막외교전 이면에서는 공산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던 비즈리가 시리아육군참모총장 겸 최고사령관의 직을 빼앗고 우파로 지목되는 고급장교들을 체포함으로써 시리아 정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말았다. 그러자 쿠와트리 대통령은 신병을 청탁하고 이집트로 일시 피신하여 나세르 대통령과 더불어 공산주의자 수중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시리아 사태를 협의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실권을 장

악한 시리아 정부는 그동안 이집트와의 연방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통합협정에 조인(調印)하여 앞서 체결한 군사협정과 더불어 양국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었고 1956년 2월 1일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와 시리아 대통령 쿠와트리는 카이로에서 이집트·시리아 양국이 합병하여 아랍연합공화국으로서 발족(發足)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아랍연합공화국초대대통령으로 나세르가 영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근동은 아시아와 유럽의 육교로서 또 소련과 직접 국경을 접촉하고 있는 지대로서 전략적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구측은 1954년 4월의 터키·파키스탄 군사협정에 계속하여 1955년 2월 터키·이라크 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그해 3월에는 영국이, 9월에는 이란이 참가하여 5개국의 바그다드 조약이 성립되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라크가 서방측과 더불어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다른 아랍국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조약기구는 공동방위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터키로 말미암아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결되고 동쪽 파키스탄으로 말미암아 동남 아시아 방위

기구와 연결하여 소련을 포위하는 서방측 방위조직기구의 일환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1958년 7월 이라크에서 일어난 혁명으로 말미암아 정권을 잡은 카셈 정부는 그 다음해에 가서 바그다드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동조약기구의 이름도 중부조약기구(CENTO)로 개칭하였다.

카셈 준장을 수상으로 하는 이라크의 혁명정부는 바그다드에 본부를 둔 중동의 반공방위기구 바그다드 조약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아랍 제국(제국)의 일원으로서 적극적 중립주의정책, 불력 불참가 및 종래의 국제적 협정을 존중하고 따라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개명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아랍 연합공화국(우리나라에서의 통칭통일 아랍공화국)과의 관계는 곧 미묘한 현상을 노정(露呈)시켰다. 이라크 혁명정부 안에도 친나세르파 민족주의자와 카셈 수상을 지지하는 양 파의 대립이 격화하여 카셈 수상을 지지하는 허무맹랑한 이유를 들어 나세르파 지지자들을 좌천체포 혹은 국외추방함으로써 나세르 대통령의 노여움을 샀다. 나세르파를 대량으로 숙청하는 친카셈파 가운데에는 이미 국제공산주의자로 유명한 해외망명자가 제빨리 귀국하여 카셈 정부를 조종함으로써 한때는 카셈 정부는 하나의 괴뢰 정부에 불과할 뿐 외부에 들어가지 않은 크렘린의 지령을 받고 있는 진짜 정부가 배후에 숨어있었다는 설까지 있었다. 어쨌든 반공친나세르파를 숙청할 때 육군5개군단 가운데 1개군단을 무장해제하였고 그해 가을에는 영국군사고문단 50인의 국외퇴거를 요구하였다. 이때까지도 미영 양국으로부터 무기의 원조를 받고 있던 이라크는 소련으로부터 체트 전투기와 탱크를 포함하는 무기의 제공을 받아 최심장비의 신사단을 편성하였다. 그뿐 아니라 혁명직후 이라크 정부를 승인한 중공·체코·유고·동독 등 공산권과의 통상협정도 체결되었고 또 갱신확장 중에 있다. 같은 아랍 국가이면서 반공친나세르 분자들을 숙청추방하는 한편 이렇게 친공적인 정책을 함으로써 한때는 나세르가 영도하는 아랍연합공화국의 관계도 위태로운 때가 있었으나 1959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정책적인 현저한 갈등이 없이 양국간의 관계는 호전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소련은 이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5년 여름부터 세계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소련은 서방측과 함께 중근동 지역 후진국가들에게 경제원조로써 그들이 말하는 소위 조건 없는 원조라는 미명 아래 민족주의해방운동을 지원한다는 구실로써 이 지역에 발판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에는 아랍·이스라엘 국경충돌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되었고 요르단 외상의 피살사건이 있었을 뿐 비교적 평온한 시기였다고 하겠다.

위에서 지적한 이집트와 시리아와의 아랍 연합공화국과 이라크 공화국은 소위 적극적인 중립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동서 양 진영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소련은 이러한 비동맹국가들에게 교묘하게 국제공산주의분자들을 이용하여 계속 뿌리 깊은 침투작전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서방 자유진영의 결속과 아울러 경계가 긴질(緊切)한 지역으로 특히 주목을 기울일 수 없으리라고 생각 된다. (끝)

## 쿠바는 공산화(共産化) 할 것인가?

방필주(方弼柱)



쿠바의 공산화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현단계로서는 결코 간단하게 처리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통해서 그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쿠바라는 나라
2. 빛나간 쿠바 혁명(革命)과 카스트로 정권(政權)
3. 중남미(中南美), 특히 쿠바에 대(對)한 중공(中共和)의 진출(進出)
4. 미국(美國)과 쿠바
5. 결론(結論)

### 쿠바라는 나라

국민중 많은 수가 빛나간 혁명을 실망하고 있는 쿠바는 면적 11만4천5 평방 킬로미터의 섬나라이고 그 인구는 641만 수도 하바나의 인구는 79만으로 사탕, 연초, 정유 생산이 그 중요 산업이다.

1492년에 콜럼버스에게 발견된 이 섬은 스페인의 식민지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1892년엔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미군점령하에 들어갔으며 1902년에 쿠바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1906년, 1912년, 1917년에는 미국과 군사적 분규(紛糾)가 있었고 1952년에는



바티스타가 군사정변을 통해서 집권했으며 그 후 그는 쿠바의 독재자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1956년 11월부터 1957년 7월까지 이르는 동안 바티스타는 8차례에 걸쳐서 헌법상의 권리보장정지를 선포하여 3천 명 이상의 민주적 애국적 인사를 학살했고 만명 이상을 체포 투옥했었는데 바티스타의 이러한 위헌적(違憲的)인 독재와 정권연명책은 쿠바 내외에서 반바티스타 세력의 급진적인 증진을 촉구했고 카스트로는 이에 편승해서 바티스타 정권을 타도하는 데 재빨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쿠바에는 자유당, 민주당, 혁명당, 공화당 등 우익정당이 있었고 좌익정당으로는 1925년에 공산당으로 창건되었다. 1944년에 혁명연맹과 합류해서 생긴 사회주의인민당이 있었는데 이는 그 1953년에 불법화되었다. 혁명 후의 쿠바에는 혁명운동위원회가 있을 따름이다. 노동단체로는 근로자연맹이 있고 이 조직은 공산계의 세계직련(世界職聯)에 가입하고 있다.

### 빛나간 쿠바 혁명(革命)과 카스트로 정권(政權)

1958년 이래 특히 쿠바의 카스트로 혁명이 클로즈업 되었을 무렵부터 베이징의 해외방송은 1주 7시간을 실시했던 라틴아메리카 제국(諸國)에 대한 스페인어방송을 늘리기 시작해서 그 배인 14시간까지 실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공산측 활동이 그 후 쿠바 혁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고 또 한 얼마만의 진전을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인 것이다.

1959년 6월 1일 피델 카스트로는 그가 오랜 세월을 두고 품었던 그의 소원이던 독재자 바티스타를 타도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꾸며낼 수 있었다.

일찍이 카스트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것을 쿠바 국민에게 약속했고 개인과 자유를 존중한다고 다짐했다. 이 때문에 바티스타의 독재를 배격하던 쿠바 국민은 카스트로에게 구세주와 같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세는 쿠바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돌아가지는 않았다. 바티스타와 협력했다는 혐의만 있으면 공판을 거치지 않고 처형되었고 선거란 시간의 낭비라는 놀랄만한 구실로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렇듯 그가 쿠바 국민에게 행한 약속은 파기되고 말았다. 약속의 파기는 이에 따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여기서 쿠바의 전 멕시코주재대사였고 카스트로 정권의 UN주재대표였으며 혁명을 준비하고 카스트로를 위해서 무기까지 은닉한 바 있던 테레사 카수소 박사의 경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국민에 대한 모든 약속을 파기한 카스트로 정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쿠바 사태는 점차로 악화되어 갔고 신문의 자유는 소멸되었으며 형무소는 친구들과 동료, 심지어는 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로써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카스트로의 보좌관이고 친한 친구인 움베르토 마르스도 30년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물론 쿠바에는 강제수용소도 생겼다. 카스트로가 이행하겠노라고 한 모든 약속은



(상) 수감된 반카스트로파의 인물  
(하)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해방군

산산히 파기되었으며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카스트로는 쿠바와 그 국민에게 불행을 주었다. 즉, 실업자들은 늘었고 급작스럽게 만든 법률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카스트로 정권하의 쿠바의 실정을 말한 카수소 박사는 이러한 쿠바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길은 탈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카수소 박사의 이러한 발언을 카스트로가 “쿠바가 요구하는 청신하고 정직한 정치적 역량을 가진 민족운동의 대표적 존재라고 알았었으나 후에 알고 보니 카스트로는 혁명군 내에 누네즈 지메네즈와 주안 말리네르 등 공

산분자들과 야합했고 결국에 가서는 쿠바국민에게 민주주의 대신에 공산주의를 강요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고 비난한 「카스트로 정권의 첫 주영대사로 사샤 산타마리나 씨의 비난과 관련시켜 고려할 때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이 혁명을 전후해서 어떠한 정치적 변질과정을 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쿠바 국민들은 바티스타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존중한다’는 카스트로의 주장에 동조했고 그것이 실천될 것을 기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카스트로는 선거를 거부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하지 않은 처형을 단행했으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개혁(諸般改革)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적 급진적 수단을 택하여 쿠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라틴아메리카의 반미감정을 극도로 표면화시키고 그 반사작용으로 친공정책을 노골화 시켰다.

오늘날 쿠바는 중남미의 소련 위성국이라고 할 정도로 공산측에 접근하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괴뢰정권과도 대사를 교환하고 있을 정도이다.

### 중남미(中南美), 특히 쿠바에 대(對)한 중공(中共)의 진출(進出)

쿠바나 베네수엘라 또는 브라질과 같이 사태가 표면화한 제국(諸國)에서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체에는 반미감정들의 시류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라틴아메리카 제국(諸國)의 경제를 지배해 온 미국자본에 대한 반발이 그 한 요인이고 또한 요인은 라틴 민족의 앵그로색슨에 대한 민족주의 의식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대항의식이라고도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감정과 경제적 생리에 착안해서 중남미에의 과감한 선출책을 추진시킨 것은 소련과 중공이었다. 카스트로의 반미 정책을 소련의 로켓 공격으로 보장하겠다는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의 지원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중공의 정치적침투는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아시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하물며 베이징의 중앙정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산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전연 흥미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오늘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소련보다도 중공이 잘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공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쿠바에 대한 해외방송 이외에도 남아메리카 문제 연구소, 중국·라틴아메리카 우호협회, 신화사 등의 지부와 지국(支局)을 통해서 중공을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제국(諸國)에서 중공의 공작이 의외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거기에는 소위 '혁명을 했다는 먼 나라 중공에 대한 호기심'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미국에 대한 공통의 적대적 존재에 있는 두 나라라는 점에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과 베이징 정권의 친근감은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

중공의 선전이 쿠바와 기타 라틴아메리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공이 소위 '외국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나라'이고 거기에다가 토지 개혁을 단행했고 독자적으로 공업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도 중공이 쿠바와 같이 미국을 공통의 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친근감은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는 소련도 중공에는 무색할 정도인 것이다.

따라서 카스트로 지배 하의 쿠바가 중공의 초청을 반갑게 받아들여 각계 각층의 상호방문을 교환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중공은 카스트로 정권의 경제적인 불안에도 신경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쿠바 사탕의 우선취급을 금지하자 베이징 정권은 5톤의 쿠바 사탕을 구입할 것을 결정하고 1961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약 6천만불의 차관을 줄 것을 약속했는데 이는 경제적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카스트로에 대한 중공의 상징적 제스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중공이 라틴아메리카 제국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그의 가입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베이징 정권의 공작은 사실상 집요하고 강력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감정이 중공을 똑바로 볼 수 없게 한 쿠바의 과도기적인 생리가 해소된 때에는 쿠바의 대중공판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 미국과 쿠바

카스트로가 미국을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길고 규모에 있어서 깊고 광범위한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관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이 점이 쿠바의 고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카스트로가 아직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고 농지개혁을 위시해서 철저한 사회 주의적 정책을 용서없이 하여 반카스트로 감정의 강력한 중산계급을 짓밟아 버렸다고는 하지만 쿠바의 경제가 파괴되었을 경우 카스트로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당장 무너지고 말 것이다.

쿠바의 경제적 지주였던 미국 연간 3백 톤의 쿠바 사탕을 봉도당 5.2센트와 국제가격보다 2센트 정도 비싼 가격으로 삼으로써 쿠바는 여기서 연간 3억 1200만 불의 외화를 취득하고 있었고 미국의 쿠바에 대한 투자는 연간 8천만 내지 9천만에 달했으며 미국의 여행자가 쿠바에 떨어뜨리는 돈도 연간 5천만불 이상이였다.

따라서 명년 10월부터 실시된 의약품과 일부식량을 제외한 쿠바에 대한 미국의 전면금수(全面禁輸)를 비롯해서 금년 2월 3일에 단행된 국교단절은 쿠바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었다.

이에 대해서 쿠바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제국(諸國)과 경제협조 관계를 체결하여 미국과의 절연(絶緣)에서 오는 타격을 매우려고 강력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타격은 예측했던 것보다는 치명적인 것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다. 사탕으로 말하면 공산권 제국이 내년에 4백만 톤의 사탕을 봉도당 4센트로 살 것을 약속했으므로 여하간, 문제의 사탕처리가 해결되었고, 석유로 말하면 카스트로 정권이 미국계의 텍사스, 에소 등 양 정유소와 아일랜드계의 쉘 정유소를 접수했을 때 미국의 각 석유회사는 쿠바에의 원유보급을 정지했는데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소련의 원유가 보급되었다.

이리하여 현재 쿠바의 모든 정유소는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기술자 문제와 원재문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곤란이 해소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지주를 미국으로부터 공산권으로 갈아친 쿠바로서는 그대로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공산 제국(諸國)으로서의 경제상에 있어서 미국의 대역을 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 실례의 몇 가지는

## 동독(東獨)의 고민(苦悶)

김규환(金圭煥)

빌리 브렌트 서베를린 시장은 베를린위기를 언급하면서 “베를린 봉쇄는 공산동독이 그들의 패배와 취약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들이 쓴 콘크리트 담(벽)과 철조망은 서베를린을 향해서가 아니라 동독민 상대로 한 것이다.”라고 언명(言明)하였다.

지난 8월13일에 돌연히 감행된 동서 베를린 봉쇄는 같은 시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우를 하룻밤 사이에 격리해 버린 만행이라는 점에서 공산주의의 비인도성을 여실히 나타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겠다. 탱크와 기관총의 위협으로도 부족해서 장벽을 싸서 110만 시민을 감금상태로 몰아넣고야 만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동독의 현실은 무엇인가?

1953년 6월 16일 동베를린의 스탈린 상(像)의 건설에 종사하고 있던 건축노동자 약 300명은 노르마 증강과 실질임금 인하에 항의하기 위하여 정부건물로 향했다. 이 소문을 들은 약 2만명의 동베를린 시민들은 순식간에 이에 합세하여 정부당국자에 대해서 노동조건 개선과 나아가서는 자유선거와 신정부수립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집어먹은 관리들은 노르마 강화는 철회한다는 것을 민중들 앞에서 약속하였다. 정부가 항복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민중들의 불만과 울분은 일시에 폭발되어 익일인 6월 17일에는 동베를린뿐만 아니라 274의 동독 각 도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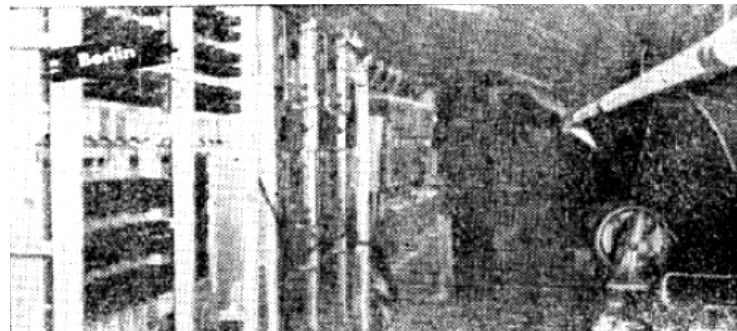
다음과 같다.

첫째, 사탕, 엽권제조공장, 정유소, 공공사업장 등 또는 쿠바의 공업용 프란트가 미국제이기 때문에 그 부속품들을 공산 제국(諸國)에서는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쿠바 공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계를 공산권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흔히 소수에 불과하고 사 드릴 외화도 없다는 점.

셋째, 공산권과의 빠타제(制)는 탄력성이 없음을 쿠바도 알게 되었다는 점. 이밖에도 바티스타 전 정권의 실정이 가져온 경제적 누적은 크고 심각한 것이다. 불의(不意)의 배신을 분노의 미국에 대해서 쿠바가 경제적 관계에서 어떠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일찍이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카스트로가 쿠바를 적대적 공산주의의 위성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카스트로의 부당한 처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소련에 대해서는 서반구에서의 그러한 공산주의적



동베를린에 있는 군사지하도

대규모의 반공폭동으로 확대되었다. 공산당의 사무소들은 파괴되고 브란덴부르크 문상(門上)에 꽂힌 적기(赤旗)는 산산이 찢어졌다. 각지의 형무소와 경찰은 데모 대(隊)에 의하여 점령되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이 민중혁명은 소련군의 무력 앞에 무참하게 진압되어 버렸다. 만명의 소련군과 8천명의 동독 경찰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민중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사망자 569명, 부상자 1744명, 피체자(被逮者) 5만명을 낸 6월 17일 사건은 이로서 그 불행한 종말을 짓고 말았다.

독일민주공화국을 잠칭(潛稱)하는 괴뢰정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동독은 약 10만 7천 평방키로의 면적에 1620만의 인구를 점유하고 있다. 이 지역과 주민을 장악하는 지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독은 1948년 이래 강력한 경찰국가를 구축하는데 광분하였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동독은 인민경찰 7만 4천, 기동 경찰군

파괴의 근거지가 확대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잘라서 통고하는 동시에 미주기구(美洲機構)에 공산주의 침투에 대항할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주기로 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진보를 위한 동맹이라든가 또한 그것을 위한 오역불기금승인은 케네디 정권의 새로운 결의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년 4월 18일을 기(期)해서 일시 벌어졌던 반카스트로의 쿠바 상륙전의 실패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미국의 영향력에 큰 손실을 주었던 것이다.

### 결어(結語)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페루, 아이티, 니카라과, 파라과이, 과테말라, 도미니카 제국(諸國)이 쿠바와 국교를 단교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와 알젠틴은 쿠바의 공산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알젠틴의 정변은 쿠바 사태를 통해서 불지배(弗支配)로 인한 라틴아메리카의 반미감정이 알젠틴에서도 싹트고 있다는 것이 표면화 한 것이다.



8만 8천 국가인민군 9만 7백이 있고 이 밖에 전국부대 3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독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병력은 코네포 원수 휘하에 6개사단이 동독독파군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다른 공산지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동독민주공화국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가칭(假稱)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등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기만적인 것이다. 그 증거로서 인민의회는 헌법에 저촉되는 수많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내각과 각성(各省)의 포고령이 법령의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허용되고 있다. 선거는 흑백선거이고 반정부운동으로 발전되기 쉬운 노동쟁의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동독의 경제는 원래의 유기체인 전독경제(全獨經濟) 단위로부터 분리되어 점차로 동구경제계획에 예속되고 소련의 고스플랜(國家計劃) 밑에서 소위 동헌경제상호협조회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경제에서 사기업이 점하고 있는 비율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 소위 인민협동기업의 비율은 연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1950년에 인민협동기업은 76.5% 개인기업이 23.5%였던 것이 1958년에는 89.0%대 7.8%의 비율로 되었다. 농업에 관해서는 1945년의 토지개혁에 의하여 전면적의 4분의 1 이상인 12,000 평만리의 토지가 정부에 의하여 몰수되었다. 1953년 여름부터는 소련의 콜호즈형성을 따른 집단농장화에 착수하여 1960년까지는 전 농민의 집단화가 선전, 위협, 공포 등의 수단으로서 강행되었다.



만화 · 목구멍의 가시

여기서 문제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제국(諸國)과의 경제관계를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면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케네디 정권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하여 진보를 위한 동맹을 서약하고 그 자유와 번영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실현시킬 것을 강조한 것은 기대할 만한 일이라고 보겠다.

한편, 한때 극단적인 반미친공의 길을 감정적으로 달리던 쿠바도 점차 시간이 경과하고 특히 이번 벨그라드 중립국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맞보았다면 새롭게 느끼는 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맺었던 공산주의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쿠바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미주제국의 현명한 정책과 이해와 인내, 그리고 꾸준한 정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필자·국제방송국 자문위원)

이와 같이 강압적으로 소위 인민민주주의정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아직도 전전(戰前)의 생산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봉착하고 있다. 서독의 빌트차이퉁지(紙)에 의하면 전동독 주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동독당국자들 자신도 시인하고 있다. 즉 7월 9일 에리히 호네커 정치국원은 기관지 노이에스도이취렌드지(紙) 상에서 “중공 기타의 사회주의 제국(諸國)에서 과거 2년간에 걸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료 및 식료품원료의 수입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식량 공급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은 부득이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주지된 바와 같이 공업지대인 서독에 비하여 동독은 전통적으로 농업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음을 공산당간부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동독은 서독의 긴영(緊榮)에 다소라도 대비할 수 있게 하려면 건전한 경제적 기반의 구축이 긴밀히 필요하다. 그런데도 동독경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을 뿐더러 베를린 봉쇄 이전 수개월 동안은 사태가 악화일로(惡化1路)를 걷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동독주민들(다수의 공업기술자를 포함한)의 서독으로의 도피내지 이주를 들 수 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만명의 동독주민들이 서베를린을 거쳐서 서독으로 이동하였는데, 이것은 동독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더욱이 동독 난민의 특징 중 하나는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청장년층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또 다수의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동독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동독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필자가 서베를린에 있는 마리엔펠데 난민수용소를 방문하여 몇 사람의 피난민에게 그들의 동독에서의 생활을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식량과 소비물자의 결핍은 점차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1948년의 동독난민

## 북한(北韓) 괴뢰집단(傀儡集團)의 최근(最近) 동향(動向)

—특(特)히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 제(第) 4차(次) 대회(大會)와 관련(關聯)하여—

韓載德



### 1

북한공산괴뢰들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려 할 때 우리는 지난 9월 12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공산당) 제 4차 대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김일성 일당은 일찍이 금년 3월에 벌써 이 4차 당대회라는 것을 9월에 열 것을 발표해 놓고 이래 반년동안에 걸쳐 북한을 동대회 준비공작 일색으로 꾸며서 대대적 소동을 벌여 왔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4차 당대회를 9월로 정해 놓은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 중에도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이것을 9월 12일로 정해서 미리 발표해 놓고는 북한 사람들에게 당대회전으로 연도 연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여 당대회 경축의 선물로 삼자고 호령하여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금년도 생산계획을 3개월 내지 4개월이나 단축시키도록 노동강요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려는 심보였다.

다음으로는 장면정권의 말기의 남한의 어그러진 실정에 공산침략자로서의 과람(過濫)한 기대를 걸고 8·15를 지난 이 9월경에는 김일성으로서 어떤 획기적인 선언(큰소리)을 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고 그 극적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짰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의 프로그램 특히 둘째 번째의 흥도는 큰 오산이었다.

5·16 군사혁명은 그 누구보다도 북한공산집단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러나 그것만이 이곳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언제 경찰에 연행되어 가서 강제노동이나 투옥될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데서 오는 절망감—그것이 도피의 더 큰 동기였습니다.”

불안과 절망에 못 이겨서 자유를 찾아 오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동독의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해지고 경제 상태는 한층 악화된다. 따라서 서독으로의 이주자가 증가된다. 이것은 하나의 악순환의 현상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인구의 절대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는 노동의욕이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동독공산당의 한 중앙위원은 “동독사람의 70%는 되도록 적게 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으며 불과 15%의 주민만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동독에 있어서의 노동의 질 및 그 생산성은 서독에 비해서 30-40%가 낮다.”라고 소위 자기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요컨대 전 동독 인민이 공산지배체제에 대하여 일종의 전체적 사보타주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독의 약점은 소위 사회주의건설에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는 동유럽 제국(諸國), 특히 그들의 경제상호협조회의에 대하여도 공헌이 아니고 부담이 되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바르샤바 조약 가맹국의 불평과 비난을 받게 되었다. 사면초가의 동독사회주의 통일당과 정부는 그들의 국내적인 모순에 기인된 곤경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소위 서독군국주의자와 서방제국주의자들의 파괴와 침략행위에 있다고 날뛰고 있다.

경제적 붕괴나 전쟁이나의 양자택일의 궁지에 서게 된 동독은 소련과 동구 제국(諸國)에 호소해서 드디어 목에 걸린 뼈다귀(후르시초프담(談))인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간의 봉쇄라는 중대한 조치를 감행하였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금반(今般)의 베를린 봉쇄는 민주주의의 쇼윈도인 서베를린을 붉은 대해로부터 마침내는 추방해 버리려는 장기계획의 첫 단계의 행동임은 명백하지만 동시에 동독으로서는 긴박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즉 서베를린을 통한 동독인민들의 대량탈출을 저지해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동노르마를 강화시킴으로서 동독 경제의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동독이 그들의 패배와 약점을 체면도 없이 완전히 폭로한 것이 이번 베를린 봉쇄의 진상이라는 브랜트 시장의 언명은 상술(上訴)한 동독의 현상으로서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체결되리라고 전해지는 소련과 동독과의 단독 강화조약은 도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서독에 굴복한 것을 사실로서 인정한 나머지 소련에게 더욱 밀접하게 예측됨으로서 동독민에 대한 힘의 지배를 유지강화시키려는 기도에 불과한 것이다.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독을 통한 자유선거를 통한 통일을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서독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동독은 인공의 장벽과 전쟁의 위협으로서 1700만 동독인민을 계속하여 노예상태에 감금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비인도적 정책에 대하여 서독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중립 국가를 포함하는 세계의 여론은 나날이 경화해 가고 있다.

(필자·동양통신사 편집부국장)

그 무엇보다도 김일성 일당의 남한공산화 프로그램에 치명적 와해를 초래시켰다.

다 된 줄 타산하였던 공산통일의 꿈이 5월의 하루아침에 하염없이 부서지고 붉은 침략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완강한 반공혁명정권이 남한에 거국적 지지 밑에 확립되었을 때 공산도당들의 당황망조상은 가소롭다기 보다는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들의 기대하던 반민주난동이 아닌가 영똥한 오해를 하고 미국인들이 그것(5월혁명)에 내정간섭을 한다고 비난조로 방송을 하다가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반공구국혁명임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그것을 미국인들이 조작하였다는 정반대의 탄소리를 하게 된 것은 그 중에도 불만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들이 취한 첫번째의 결정적 처사는 그들의 상전 소련 및 중공과 각각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협정'이라는 이름의 군사동맹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 실(實), 이 조약체결이란 결국 북한괴뢰가 소련과 중공 양상전에게 더욱 철저히 예측되게 되었으며 그 대포밥 노릇을 하겠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강조하여 성문화(成文化)한 망국조약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김일성 일당이 오늘까지 선전해 온 평화통일이니 민족자주통일이니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누누이 폭로해 온 바와 같이 생판 기만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오늘까지의 그들의 간접침략이 전연 실패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었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도당들은 이것을 승리의 문건이니 불패의 담보니 하며 허장성세하여 과장 선전함으로써 북한동포들에게는 한층 얼러춤과 고무를 쥐보려 하면서 그 실(實) 더욱 무거운 철쇄와 채찍을 주려는 것이며 남한동포들에게는 부질없는 위협을 주려는 것이다. 필자는 일찍이 이 군사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었다.

“김일성 일당은 오늘까지의 대남간접침략공작, 특히 평화통일전술이 거의 수포로 돌아가고 새로운 침략의 발발일 여지조차 극난하게 된 오늘의 처지에서 이렇게 된 바에는 북한만이라도 소·중에 예측된 공산국가로 더욱 확정화시키고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이름의 공산건설에 한층 박차를 가하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실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색 침략기지를 강력하게 만들어 놓으며 새 기회를 엿보고자 새로운 결의 아닌 새로운 흥심을 가다듬게 된 것이다.……이에 있어 그들은 이러한 군사동맹들을 선전의 미끼로 하여……이렇게 되었으니 아예 탄생각 말고 김일성 정권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힘껏 하라. 그러면 통일은 저절로 된다고 속이고 얼러춤 증산(增産)의 채찍에 한층(모름지기 지금까지에도 전례가 없는) 혹심한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라는 것을 남한에 대하여 침소봉대 식으로 과시하려 들 것이다.…….”

그 후의 모든 사실, 특히 제4차 당대회 보고에서의 김일성의 총결과 호령은 우리의 예단이 전적으로 들어맞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2.

소위 4차 당대회의 첫날 벽두에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라는 것을 하였는데 그것은 실로 약 6시간에 걸치는 기록적인 장광설(長廣舌)이었다. (그중 조작연출된 박수의 시간이 전후 도합하면 10분이 넘을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당대회를 억지 기세로 올리는 축제일적 시위의 마당으로 꾸미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록적 시시간 보고연설의 대부분을 김일성은 소위 사회주의적 경제건설 즉 공산식 억지 증식문제로 채웠다. 김일성이 스스로 '우리 당의 총로선(總路線)의 표현'이라고 한 소위 천리마운동문제 즉 경마식 증식경쟁운동에 대해서만도 무려 한시간 수십분을 떠벌렸다. 그대신 금년 봄 처음 이 대회를 계획할 때는 이 대회에서 큰 소리를 쳐보려던 남한문제와 특히 조국통일문제에 관해서는 불과 30분에 걸쳐 (이전 2시간가량의 보고 연설에서도 보통 30분은 넘었다.) 그것도 전에 하던 소리를 맥빠지게 되풀이한 데 불과하였다. 이것은 즉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오늘까지의 기만적 평화통일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새로운 침략공작의 발발일 여지조차 극난하게 된 오늘의 형편에서 이렇게 된 바에는 북한만이라도 공산위성국가로 더욱 고정화시키고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피 문은 공산주의 경제건설에 한층 박차를 가하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실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색침략기지를 강력하게 만들어 북한동포들에게는 부질없는 자만심을 조장시키고 남한동포들에게는 위협과 위력을 과시해 보려는 흥심에서 나온 소치인 것이다.

김일성은 장장 3시간반에 걸쳐 북한의 건설성과를 침소봉대식 정도가 아니라 침소봉대식으로 과장선전을 하고 또 앞으로의 7개년 계획 목표라는 것을 무릉도원 그림 속의 떡 같이 그려 놓은 다음 이러한 성과는 남조선인민에게 혁명적 불길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고무적 힘이 될 것이라고 그 본심을 드러내 놓았고 일당(1黨)에 모인 당대표라는 적졸(赤卒)들은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을 되풀이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혁명적 불길'이라는 것이 공산혁명의 불길을 의미하는 것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염없는 기대요, 어림없는 오산이다. 김일성 일당은 하도 거짓말을 여러 번 상습적으로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오늘 북에서나 남에서나 그런 것에 순순히 속아 넘어갈 사람은 공산광신도나 그에 가까운 사람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숫자나 드러난 거짓 현실에서 무슨 고무를 얻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좋은 예가 몇 가지 있다. 김일성은 그 보고연설 가운데서 1967년, 즉 7개년 계획이 완수된 때에는 양곡생산은 6백만 내지 7백만 톤(噸)으로 될 것이며, 직물생산은 4억 내지 5억 미터로 될 것으로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니 얼마나 좋으냐고 보험회사 외교식 선전용어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벌써 전에 한 그대로이다. 즉 김일성은 일찍이 지금으로부터 3년전 즉 1958년 11월에 열렸던 시·군당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공산주의

교양을 위하여라는 지시연설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한 바 있었다.

“우리가 2-3년 안에 양곡을 5백 내 지 7백만 톤 생산하게 될 때 식량은 대단히 풍족해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귀할 때면 너도나도 먹자고 하지만 흠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입쌀더미를 잔뜩 쌓아 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천도 5억 미터를 생산하면 1인당 50미터씩 차례지는데 이것은 과연 굉장한 숫자입니다……우리는 미구(未久)에 이것을 실현할 가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젯날의 공상은 오늘에는 이상으로 변하고 또 이 이상은 내일에는 현실로 될 수 있습니다. 아마 4-5년 후 좀 더 빨리 3-4년 후이면 우리의 이 이상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약속한 2-3년이란 이미 지나갔거나 금명년의 일이다. 즉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이 1958년이나 빠르면 2-3년 내라고 한 그의 말대로라면 1960년이나 61년 늦어서 4-5년이라 쳐도 1962년이나 63년이면 이 공산주의적 이상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60년의 양곡 생산은 자기들의 발표대로 한대도 360만 3천톤에 불과하였고 천은 1억 6천만미터 남짓한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자기말도 잊은 듯이 7개년 계획이 완성되는 1967년도에나 가야 이러한 숫자가 달성되리라고 시치미를 떼고 떠벌리고 있다. 그러나 그때에 가면 또 김일성은 오늘 4차 당대회에서 한 말은 잊은 듯이 새로운 목표 연도를 내세울 것이다. 이리하여 그가 약속한 이상은 더욱이나 쌀더미를 잔뜩 쌓아 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따위의 공산주의 이상은 영원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 3.

그러나 우리가 이상과 같이 말했다고 하여서 오늘 북한공산괴뢰들이 소위 사회주의경제건설 즉 공산실력증강에만 전념하고 남한에 대한 간접침략공작 그 자체에는 잠시나마 손을 늦추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침략야욕은 공산도당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리인 바 특히 김일성 1당의 남한공산화 흥망은 악착같은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소중 상전 앞에 지니워진 국제공산주의적 사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지난날의 다 되어가던 간접침략의 프로그램이 좌절되어 힘들게 되면 될수록 그들은 새로운 침략공작에 발악적으로 날뛰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노동당 제4차 당대회 특히 김일성 보고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볼 수 있는가? 김일성은 그의 보고에서 낡은 소위 평화통일 방안을 김빠진 맥주 같이 되풀이하였다. 즉 미군을 철퇴시키고 아무런 외부의 간섭(監視)도 없이 피선거로서 이른바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시종(始終)일관하고 확고부동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술적 주장이며 말 자체로서도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일성 1당은 4.19 이후 총선거에 의한 남북통일의 대안으로 남북연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도 영똥한 것이

라는 것을 그들 자신으로서도 깨달았음인지 이번 보고에서는 아주 집어치우고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제 남한에서는 귀도 안 기울이는 공산식협상에 의한 평화통일방안을 여전히 되풀이하는 것은 남한보다도 북한동포들에 대한 심리적 효과와 국제여론에 대한 협잡점수(挾雜點數)를 노리는 처사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상투적 결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내외가 다 아는 일이다.

김일성이 대남투쟁문제로서 이번 보고에서 가장 강조한, 가장 주목할, 가장 중요한 발언은 남한에 공산당을 조직해야 한다는 호소이다. 그는 공산당이라고도 노동당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4월 봉기(그들은 4.19 혁명을 이렇게 말한다)가 실패하고 그 성과를 부르주아 정당에 빼앗긴것도 5월 군사정변(그들은 5.16혁명을 이렇게 말한다)을 막지 못한 것도 혁명적 영도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남한에서의 혁명의 영도와 승리를 위하여 “막스 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노동자, 농민을 선두로 하는 근로자들의 혁명정당을 우선 조직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으니, 이것은 즉 공산당(노동당)을 조직하라는 말인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그 합법성을 쟁취하라고 하였으나 남한에서 이런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면서 기어코 선차적으로 그것을 실현시켜야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즉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말인 것이다.

그리고는 “이 혁명정당을 선두로 하는 소위 반미구국통일전선을 범위 넓게 조직하여 미군을 철퇴시키고 군사정부를 타도하고 인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북조선의 사회주의 세력과 합치면 그것이 즉 통일이 실현되는 길”이라고 그들 식의 명로선(命路線) 겸 공산통일방안을 그들의 동조자들에게 지령적으로 호소하였다. 이것은 즉 남한을 남로당이 도량하던 해방후의 난장판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수작이다. 김일성 일당은 이제 간첩과견에 의한 분산적 공작이나 전과 등에 의한 막연한 공작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공산혁명전술의 원칙인 지하공작을 조직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벌려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남한에 공산당을 조직하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김일성은 작년의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보고연설에서도 이것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적극적 본격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호소한 적은 없었다. 이것은 앞으로 남한에서의 그들의 지하당조직활동과 지하공산운동이 적극화되고 본격화되리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억지이든 오산이든 한번 정책을 책정하면 부하의 생명이나 희생 같은 것은 헌신짝만큼도 안 여기고 우격다짐으로 강행해 보는 것이 공산독재자들의 수법이다. 앞으로 그들은 수다한 간첩공작들을 지하당조직의 사명을 지위 대량 남파할 것이다. 이미 그 징조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5월 혁명후 검거된 숫자가 설명하고 있다.

— 끝 —



## 동구(東歐)가 적화(赤化)되기까지

조순승(趙淳昇)

후르시초프를 중심으로 모스크바에 모인 동구의 공산주의자들

일찍이 인류가 두 개의 이념으로 갈려서 세계제패를 위하여 투쟁하던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처럼 심각한 투쟁을 하던 일은 없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공회와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공회가 오늘날처럼 하나는 민주체제를 위하여, 또 하나는 동양적 전체체제를 위하여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로 갈려서 서로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던 시대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네들의 투쟁의 범위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광범위한 것이 되지는 못했고 그 투쟁이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동서간의 알력상태는 그 규모와 양상에 있어서 옛 그리스시대와는 전연 다른 바가 있다. 오늘날 공산세계와 자유진영과의 대결은 전세계적인 것이며 고도로

발달된 전쟁수단은 인류자체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 최초의 공산국가가 생긴 지 반세기도 채 못된 이제와서 소련을 위시한 공산세력은 전세계의 공산화를 꿈꾸고 자유진영을 씹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알맞은 역사의 회풍

이 아닐 수 없다. 2차 대전의 종말기에 이르기까지도 소련만이 오직 하나의 공산주의국가였던 것이 2차 대전이 끝난 후 2년이 채 못된 1947년까지는 동구 제국(諸國)의 대부분이 소련의 위성국가화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렇게 급속도로 공산주의가 팽창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공산주의의 팽창과정과 그의 생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2차 대전의 종말과 더불어 동유럽 일대 공산주의가 만연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그 대부분이 소련의 부당한 침략에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미국에게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된 알타,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이 소련에게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하였기 때문에 그 양보를 발판으로 삼아 동구의 적색화를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과 둘째로 소련이 조약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의 동진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한 책임은 분명히 미국과 영국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무자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소련이라 할지라도 당시 최대강국이었던 미국이 전쟁수단에 호소해서라도 이것을 저지시킬 의지력의 표명만 하였더라면 오늘날의 세계지도는 그 양상이 훨씬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가장 주요한 시기에 미국의 대소정책이 우유부단했고 공산주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이다.

사실 1945년 2월 4일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후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알타 회담이 개최되던 당시의 전세는 소련의 원조 없이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었다. 소련은 테헤란 회담에서 태평양전쟁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알타 회담당시에는 소련이 언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결정만이 남아 있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관동군의 힘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소련의 참전없이 조속한 종전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오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미국의 이 약점을 이용해서 최대한도의 양보를 강요하자는 심사였고 미국과 영국도 소련에게 상당한 양보를 할 것을 각오하고 이 회담에 임했던 것이다.

이때는 벌써 유럽전세는 결정적으로 독일에게 불리하던 때였다. Ardennes Forest 전투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독일군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연합군주력은 라인강 도하작전(渡河作戰)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이다. 따라서 연합군은 소련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도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관동군의 힘을 오산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련에게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하였던 것이고 이 양보로 말미암아 전후 소련은 동유럽 일대와 북지나(北支那) 만주, 북한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지역이 소련의 점령하에

놓여 있었던 것을 기회로 이 지역전체를 적색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었다. 이제 알타 회담을 회고하여 보건대 이 회담에서의 승리자는 스탈린 한 사람이었다. 루즈벨트와 처칠은 스탈린이 요구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회담의 결과 소련은 전후 만주의 점령권과 외몽고가 사실상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의 점령권과 이 지역이 소련세력국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 받게 되었고 유엔 회원국의 수에 있어서도 미국과 영국은 각기 한표의 투표권밖에 못가진 데 대해서 소련은 세표를 갖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많은 양보를 얻은 대가로서 소련은 겨우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만을 약속했던 것이고 이것도 일본이 항복하기 겨우 1주일 전에야 그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었다. 이렇게 불진데 전후 동구 일대가 급속도로 적색화된 것은 미국과 영국이 알타 회담에서 너무도 많은 양보를 한 데서 온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무조건 동유럽이 소련세력하에 들어갈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네들은 스탈린에게 전쟁이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소련의 점령지역 내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 총선거의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탈린에게 요구했던 것이고 스탈린은 서슴치 않고 이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이 말하는 자유선거와 민주주의국가란 스탈린이 생각하는 소련식 자유선거와 민주주의와는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던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규정함이 없이 이렇게 막연한 약속만을 전제로 동유럽 일대를 소련에게 맡긴 결과 오늘 같은 공산세력의 팽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어떻든 2차 대전 당시까지는 소련만이 세계유일한 공산주의국가였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동독, 중공, 북한, 북월, 쿠바 등 근 15개국이 공산권내에 흡수되었으며 그 세력은 약화되기는 커녕 점점 강화되어 가고만 있다. 그러면 소련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동구 일대를 적화시켰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공산세력의 상태를 엿보기로 하겠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경우에 있어서 소련은 강압적으로 이 세 공화국을 해체하고 소련방국가로서 흡수하고만 있던 것이었다. 그네들은 이 세 공화국 내의 반소분자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는가 하면 이 민족들을 정책적으로 분산시켜 소련 내 각지방으로 이민시킴으로서 완전히 소련영토의 한 부분으로 만들고 만 것이다. 2차 대전 후 패전국가로서 완전히 국가를 상실하고 민족이 분산된 나라로서는 이 세 공화국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소련의 이러한 한 수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타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공산화된 것도 소련군의 점령하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였음을 볼 수 있다.

불가리아만은 딴 나라들과 달리 용이하게 위성국화할 수가 있었다. 불가리아는 소련과 같이 슬라브족의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전전(戰前)부터 친소적인 국가였던 것이고 독일군의 총칼 밑에서 할 수 없이 전쟁에 이끌려 간 국가였기 때문에 소련군의 진주를 환영한 것이었다. 소련군 점령하에서 공산당은 제 1당으로서 세력이 커지자 시메온 2세를 퇴위시키고 왕제를 공화제로 바꾸는 한편, 공산주의자 조지 디미트로프가 소련점령군 지원하에 강력한 독재정치를 시행하며 한 소련식 총선거로서 완전히 위성국가화하고 만 것이었다. 따라서 UN 총회에서도 1955년까지 불가리아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슬라브 국가가 아닌 헝가리와 루마니아에 있어서 소련은 좀 더 조심성 있게 위성국화의 길을 밟고 있는 듯하다. 헝가리에서는 1945년 말경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총선거가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농민당이 제 1당으로 대두하며 졸탄 티디 씨가 대통령에 휘렌세나기 씨가 수상으로 각기 당선된 바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였음으로서 소련의 압력 밑에 범무성, 내무성과 같이 가장 중요한 지위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다. 1947년에 들어와서 소련군은 정부와 의회 내의 반동분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숙청 후 다시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공산당이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948년 티디 대통령은 사임하고 비공산계 각료들은 하나씩 대치되어 1949년까지에는 완전한 공산당독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소련군은 배당액 청구라는 명목 밑에 헝가리의 모든 산업 기관을 통제함으로써 완전히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었고 독재정체에 반항한다는 구실 밑에 교회를 몰수하며 많은 신부들을 투옥한 것이었다.

**루마니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카엘 왕이 1947년까지 형식상의 군주 국가를 형성한 바 있었지만 그의 정부는 공산당과의 연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헝가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소련 점령의 지원 밑에 공산당은 정부의 중요부서를 장악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위 반동분자를 숙청하는 한편 왕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공산독재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알바니아**는 1944년 이래 엔버 후사 영도 하에 소련의 직접적인 원조를 얻어 공산당의 독재가 시행되고 있었다. 자미(滋味) 있는 사실은 이 알바니아만이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공국가인 그리스와 반소적 공산국가인 유고와 대진하고 있는 공산세력의 전초기지라는 점이었다. 최근에 와서 알바니아는 소련보다는 친중공적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흥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나라들은 그네들의 후진성으로 보아 독재국가화할 요소가 다분히 많은 나라들이었으나 동구 제국(諸國) 중에서 가장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위성국화 되어 간 과정은 더욱

흥미를 끌고 있다. 폴란드인들은 슬라브족에 속하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노서아인(露西亞人)들을 미워하던 국가였다. 국민의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인데다가 가장 반공인 국민이기도 했다. 전시 중 폴란드 의용군은 연합군과 더불어 용감히 투쟁했고 영국에 임시정부까지 수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군대가 점령하게 되자 영국에 망명했던 임시정부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소련이 지지하는 임시정부를 내세워 통치하기 시작했다. 원래 최단시일 내에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거를 연기시키면서 공산당이 주도세력을 잡고있는 연립정부 밑에서 착실한 공산당조직을 완료하였다. 이리하여 1947년 총선거에서 공산당이 완전히 정부를 장악하고 소련의 1위성국가가 되고 만 것이다. 폴란드의 자유를 위해서 2차 대전은 시작되었건만 폴란드는 자유를 찾지 못하고 소련군의 발굽 아래 또다시 위성국가가 되는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동구 제국(諸國) 중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이며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국가였기 때문에 같은 슬라브족의 국가이면서도 가장 공산화되기가 어려운 국가였다. 사실 제 1차 대전 이후 체코는 한 번도 독재화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독일이 패배하고 소련이 진주하자 에드워드 베네스 대통령 지도하에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하였다. 여기서도 역시 공산당은 제 1당이 되지 못하여 연립정부가 수립되어 있었던 것이나 1948년 총선거가 닥쳐오자 공산당은 그네들의 열세를 은폐하려고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만 것이다. 이리하여 소련식 개헌을 하고 단일후보식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베네 대통령은 사임하고 외무장관은 자살하는 비극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련은 동구 제국(諸國)을 위성국화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무자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아**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공산화되었다.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은 티토의 영도(領導)밑에 독일점령 하에서 항독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진주해 들어오자 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연립정부에서 공산당 일당독재로 변천하여 완전한 공산당 독재가 완성되었지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지는 않았다. 소련에서 유고의 국내산업을 통제하고 유고 경제를 소련 경제에 예속시키려고 하자 티토는 공산당 독재를 하면서도 소련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소련이 1948년 유고공산당을 코민테른에서 추방하자 티토는 점점 서방진영에 접근하고 그의 경제 부활을 위해서 미국의 마셜경제원조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유고슬라비아만은 공산당 독재를 시행 하면서도 소련의 위성국은 되지 않고 독자적 길을 밟게 된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동구의 공산화 과정을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동구 일대에 소련군이 진주해 들어오는 과정이다. 나치스 독재에 신음하던 이들이 소련군에 의한 일시적 해방을 기뻐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전전(戰前)에는 보잘것없는 힘밖에 없었던 공산 세력이 급속도로 팽창되는 것이다.

사실 소련백령군이 정책적으로 공산당을 강화시키는 데야 어찌할 도리도 없었다. 제 2단계로서는 바로 공산당 독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민주체제를 이용하면서 공산당, 사회당, 노동당을 합쳐서 그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이 연립정부로 하여금 개헌을 시켜 왕정을 전복시키고 연립정부에 참가하지 않은 정파들의 숙청이 단행된다.

즉, 소위 반동분자나 친나치스니파니 하는 명목으로 제 1차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청산이 시작된다. 이 연립정부에서는 소련군의 압력으로 내무, 국방, 법무 등 실권을 장악하는 부서는 공산당에서 차지하여 이 합법적 조직체를 이용해서 공산당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제 3단계에 들어가서는 공산당의 기반이 어느 정도 확고해지자 소련군의 지원을 얻어서 갑자기 연립정부를 해체하고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를 시작한다. 이 단계에 들어와서는 그네들의 수단은 더욱 악랄해져서 일당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단하는 경찰국가로 화(化)한다. 이 단계에 들어가서는 과거 연립정부에 참가는 하였지만 공산당이 아니었던 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한편,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고 완전한 언론통제를 단행하며 실질적인 계획경제로 옮겨가게 된다. 이렇게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가 완성된 다음에 가서 제 4단계로 공산당 내의 숙청이 시작된다. 이것은 공산당 내 지도자들끼리의 세력다툼으로서 주류파가 비주류파를 숙청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개 이러한 과정을 밟아 동구 일대는 공산화 되어 갔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검토해 볼진댄 동구 일대가 적화하게 된 근본 이유는 알타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이 동구 일대를 소련군이 점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미군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여 소련군의 동진을 막아냈더라면 동구는 이렇게 적화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좋은 예로서 동구 제국(諸國) 중 소련군이 점령 못한 곳은 그리스 하나였는데 그리스는 오늘날까지도 강한 반공국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동구의 적화는 알타 회담에서의 양보의 결과였다고 결론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련이 동구점령지역에서 조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총선거를 실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은 그것을 방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에 의한 위성국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사실 1947년까지의 미국의 대소정책은 어느 의미에서 유화 정책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전후(戰後) 3년간 미국은 되도록이면 소련과의 타협 밑에서 모든 국제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던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소련은 동구 일대를 적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종전직후에 포위정책을 대소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더라면 동구의 적화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오늘날 소련세력의 급격한 팽창을 엿볼 때 당시의 미국외교정책의 실패가 원망스럽기 짝이 없다 하겠다. (필자·고대부교수)

## 후진지역(後進地域)에 있어서의 소(蘇) · 중공(中共)의 알력(軋轢)

도날드 S 자고리아 씀



자고리아 씨는 중공문제 전문가로서 현재 소·중공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글은 자고리아 씨가 Problems of Communism 지에 기고한 것으로서 오늘날 표면화되고 있는 세계후진지역에 있어서의 소·중공의 알력을 연구분석한 것이다. (역자 주)

### 내용

범세계적 및 식민지적 전략 시간문제  
해방투쟁의 원조  
서방개입에 대한 조치  
민족주의적 부르주아의 역할  
이라크의 경우  
소련원조에 관한 알력  
지역적 공산당내부의 투쟁  
쿠바, 콩고 및 아프리카  
전망: 평화나? 분열이나?

복잡한 소·중공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서방 정책에 관련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점차적으로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후진지역에 있어서의 두 공산강대국간의 헤게모니와 세력을 위한 압투인 것이다. 이러한 압투는 과거 3년간 계속되어 왔고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으며 그 형태는 세 가지이다.

그 첫째는 식민지역에 있어서의 소위 민족해방운동의 전략전술에 관한 다툼 이고, 둘째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신생독립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위한 적극적인 경쟁이며 셋째로는 이들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적 공산주의 활동의 장악을 위한 다툼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서 세계공산주의 주도권에 지구상의 선진지역과 후진지역 두 지역에 대한 상이한 두개의 주도권으로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시기상조이겠으나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만은 명백한 것이다. 중공이 자신을 세계후진지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활동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자기들의 소위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경험과 과정이 소련의 그것보다 이들 후진지역에 훨씬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또한 중공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그들의 맹방(盟邦)인 소련의 공산주의투쟁의 유화에 불만을 품고 있다. 즉 중공지도자들은 소련의 점진주의자 및 그들의 식민지역과 긴박한 기타 지역에 있어서의 우익적인 전략이 동지역(同地域)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의 승리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활동을 전체적으로 망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있는 것이다.

결국 중공의 지도자들은 소련이 세계적 공산전략을 꾸미는 데 있어서 중공의 목표보다도 소련의 목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지도자들은 소련이 서방과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공산진영국가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소위 민족해방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프롤레타리아적 국제주의자로서의 의무를 완수치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세계최초의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소련이 공산진영 내의 후진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보다 활발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모든 알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그들의 일치하는 이데올로기 및 공통적인 대서방 적개심으로 보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처럼 후진지역에 있어서의 소·중 공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이들 지역에서 작용하는 역사적 과정 및 사회경제적 세력에 대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은 선진식민주장국가와 과거 혹은 현재의 식민지 국가간의 관계의 악화 농민혁명의 근원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외국의 제국주의자들에게 봉사하는 매국노적 부르주아와 경제적 및 정치적 독립을 희구(希求)하는 민족적 부르주아 간의 알력의 이용 등에 관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공산화 과정에 있어서 성공을 방해하는 적에 대한 견해를 같이 한다. 그들이 말하는 공산화 과정이란 민족주의,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국가(該國家)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인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공산독재정권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소·중공의 압투를 완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압투를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째로 후진지역에 있어서의 소·중공 간의 알력의 증거를 제시하고 둘째로 알력의 원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알력의



후르시초프



주은래(周恩來)



모택동(毛澤東)



전망을 검토하지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공산국가들이 예기(豫期)할 수도 없고 완전히 조절할 수도 없는 급작스럽게 변천하는 복잡한 사태발전에 대응하는 소·중공의 대외국제정책보다는 그들이 행하는 국내에 있어서의 공공성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방법을 취한 이유는 그들의 성명 특히 주요 당(黨) 기관지(機關紙) 게재되는 논설이 소련 및 중공의 전략적인 사상을 가장 단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인 것이다.

### 범세계적 및 식민지적 전략

1957-58년 이후 범세계적 공산전략 및 전술에 관한 모스크바 및 북경간의 많은 공개적 알력(軋轢)의 주요부분은 후진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에 관한 논쟁인 것이다. 이러한 커다란 논쟁은 1957년 말에 있어서의 소련의 신무기 발전이 동서 양 진영의 세력의 균형을 공산측에 유리하게 기울게 했다는 데 대한 상이한 평가로 인한 것이다. 중공의 견해로서는 공산진영의 무력적 발전과 강화되는 경제적 실력이 공산측을 결정적인 전략적 우위에 서게 하였으며 따라서 서방과의 국지적 전쟁도 불사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세계적 공산세력을 형성케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다. 중공의 지도자들은 중동, 아프리카, 아세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활동을 서방측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국지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공산진영은 이들 지역에 있어서의 반(反) 서방정부 및 소위 해방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산주의 정책은 서방측이 공산진영의 무력적 우세 및 급작스럽게 위축되는 서방진영의 세력을 인식하기 때문에 세계적 핵전쟁의 위험을 별로 수반하지 않으며 서방진영은 다만 국지전에 있어서의 패배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중공의 지도자들은 주장한다.

소련은 동서 양 진영의 세력 균형 변동에 관하여 중공과 견해를 달리하며 그들은 정책면에 있어서도 중공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소련의 지도자나 논설은 널리 알려진 소위 '동풍(東風)은 서풍(西風)을 이긴다'고 하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슬로건이나 중공지도자들이 호언하는 소위 '사회주의 세력은 제국주의 세력을 훨씬 능가한다'는 데 대해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는다. 소련은 그들의 군사적 우세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서방의 군사력 및 경제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모택동의 주장은 극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함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진 언사로서 암시하고 있다. 서방진영은 세계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소련보다 더욱 두려워하기 때문에 좀 늦기는 하지만 점진주의적인 전략에 의하여 서서히 공산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제어하는 세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전략은 강화되고 있는 소련과 민족주의 국가의 경제력과 세계 도처의 중립주의적 동조를 최대한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식민지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전략을 살펴볼 것 같으면 중공은 특히 1959년 이후 공산주의가 평화적으로 정권을 쟁취한다는 공산주의 전략에 대해 소련보다 훨씬 비판적이다. 식민지는 폭력수단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레닌-스탈린

주의적 견해를 가진 중공은 소위 민족 해방전쟁(예, 알제리에서와 같은) 및 서방 강대국과의 국지전쟁의 위험이 따르는 해방투쟁을 원조(援助)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공산진영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독립을 한 바 있는 과거의 식민지역에 있어서는 '민족적 부르주아'에 의한 지배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지배를 통해서만 공산주의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핵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의 무력 투쟁을 고무함으로써 민족전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공은 그러한 방법이 서방진영의 무력적인 제지를 받게 되는 경우 공산진영의 국지적인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는 이들 지역에 있어서의 공산진영의 장기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력이 아닌 점차 강화되는 소련의 경제력을 더욱 중요시하는 듯하다. 소련은 민족 해방전쟁을 지원함에 있어서 몹시 조심하여 왔으며 국지적인 무력 투쟁의 필요성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소련은 일반적으로 민족주의적 부르주아 정권의 계속적인 이용에 대해 중공보다 낙관적이며 소련의 실력이 서방측의 군사적 개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 시기의 문제

전략에 관한 논쟁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시기적 문제였다.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와의 협동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는 그들과 일시적인 협동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때 관계를 맺고 특히 어떤 시기에 가서 관계를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중공은 모든 식민지역 및 정치적으로 급박한 지역에 있어서의 시기 문제는 공산측에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즉 해방 운동을 공산 블록에서 강력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좌절되거나 또는 지연되고 새로 독립한 국가들은 보다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정되어서 서방측에 가담할 것이라고 중공은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도 핵전쟁의 위험성에 대해 모스크바보다 더욱 전인한 견해를 가진 중공은 좌익적인 전략으로 되돌아 갈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사실상 그들 중공은 트로츠키의 근본적 혁명의 이론을 부활해서 식민지역에서 응용했다. 한편 시기는 공산측에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믿는 소련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서방과의 경제경쟁에서의 공산측의 승리는 결정적인 것이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전략에 의한 위험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기 문제로서의 하나의 중요 논쟁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중공이 민족주의적 부르주아 정권에 대한 즉각적인 해방전쟁이란 혁명적인 공세를 도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함에 반하여 소련이 이를 반대한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기 문제는 사실상 훨씬 더 복잡한 것이다. 즉 단순한 해방전쟁을 원조함에

있어서는 소련의 국제외교를 손상치 않고 또 서방측과의 전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까지의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 특정한 민족주의적 정권 및 정당에 대한 핵국(核國) 공산 활동에 의한 압력을 어떠한 시기에 어느 정도로 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민족주의자와 협동함에 있어서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산주의의 목표를 양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혁명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어느 시기까지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복잡한 것이다. 최종 문제에 관한 소련 및 중공의 견해는 서로 극단적인 상이(相異)를 나타내고 있다. 중공은 혁명 전, 즉 혁명에 있어서의 소위 민족주의적 단계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부르주아에게 주도권을 맡겨도 좋다는 수련의 논리를 부정한다. 1959년에 중공의 류샤오치(劉少奇)는 “신속정확하게 사회주의적 단계로 혁명을 진전시킬 수 있는 관건은 민족주의적 혁명 단계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가 공산당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명백한 답으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소련 전문가의 두목인 Y·주코프는 다음과 같은 레닌의 선언을 인용하였다.

“모든 민족운동의 초기에 있어서 부르주아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레닌은 혁명 초기의 공산주의자에 의한 주도권의 장악을 부정한 것이다.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국에 있어서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공산주의의 투쟁 대상은 자본주의(부르주아를 말함)가 아니라 봉건적인 귀족(지주를 말함)인 것이라고 주코프는 주장했다.

그런 후부터는 노동자와 민족주의적 부르주아의 진보적 계층과의 장기적 협동의 원칙이 세워졌으며 이러한 협동의 시기는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공은 만약 민족주의 단계에 있어서의 혁명을 민족주의자가 주관하게 된다면 공산당에 의한 정권의 장악은 연기되거나 또는 완전히 좌절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더욱이 그들 자신의 우익적 전략에 의한 1930년대의 중국 국민당과의 합작의 결과로서의 쓰라린 경험을 가진 중공은 한때 강력한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민족주의자가 반공적으로 전향하여 공산당을 파괴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략에 있어서의 이러한 중공의 견해는 명백한 것이다. 예를 들면 소위 아직 해방되지 아니한 아프리카 제국에 있어서 민족적 혁명 운동에 있어서 공산주의자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주의자의 주장 하에 이미 정치적 독립을 쟁취한 제국에 있어서 공산주의자가 앞으로의 혁명 과정에서 민족주의자를 대신해서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공이 민족주의자가 혁명의 단계를 주관하고 그 이후의 단계를 공산주의가 주관하면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혁명의 민주주의 단계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부르주아의 이용가치를 아직도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는 소련에 반대함으로써 시기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더욱이 중공은 새로운 독립 국가에 있어서 민족자본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소련은 “민족자본주의가 진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960년의 11월-12월의 모스크바 회담에서는 민족주의적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적인 과도정부 형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창작함으로써 그들 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쿠바가 모델이었던 이러한 공식에 의하여 점진주의 소련과 좌익적 중공의 상이한 견해가 절충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립제국에 있어서의 소련의 외교적 노력을 수포화 할런지도 모르는 시기상조의 요구를 무마할 수 있음으로서 소련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낫셀, 캣셈 및 기타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제국의 공산주의자에 의한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광범한 민주적 권리(공산주의자의 행동의 보다 큰 자유)를 얻고 정부 시책 혁신에 참가하며 국내적 사회 및 경제 개혁의 촉진을 가능케 하고 따라서 중공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상의 타협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는 것이다. 소련은 여전히 그들이 경제적으로 서방을 능가할 때까지는 위험한 모험을 피할 것이며 중공은 조급히 서두를 것이다.

#### 해방투쟁의 원조(援助)

현재의 소련의 전략 중에서 중공이 반대하는 것 중의 하나는 소위 식민지 해방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혁명적 민족운동을 소련이 충분히 원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제리가 이들 주장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소련이 절대적 주도권을 상실한 이후 중공의 압력에 못 이겨 FLN에 대한 애매한 승인을 하였다. 소련이 이들 전형적인 반식민지 투쟁을 거의 원조치 않았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1959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소·중공 회담에서 한 중공대표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으며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중공의 공격 중의 하나인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의 희생자이며 독립을 쟁취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 중인 민족에게 동정을 하지 않고 원조 제공을 꺼리는 것은 평화의 보존 및 강화에 대한 절실한 욕구가 없음을 의미한다.”

1960년 4월, 중공은 모든 혁명적 레닌주의자들은 식민지 혁명을 아낌없이 원조해야 한다고 경고함으로써 또다시 공격했다. 실제에 있어서 중공의 어느 신문 논설은 이러한 원조의 제공 없이는 세계적 적화(赤化)는 결국 실현되지 못할는지 모른다고 논술했다.

1960년 12월 소련은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압제(壓制)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에 대한 전폭적인 정신적 및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의무라고 선언함으로써 중공의 견해에 동조를 표시했다. 중공은 이것을 소련이 식민지 해방의 정치적 투쟁뿐이 아니고 무력적 투쟁에 대해서까지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동독 공산당의 서기장 울브리히트는 모스크바에 대해서 “식민지

##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공산 책동(共産策動)

김창순



### 소련의 아프리카 침투

소련의 아프리카 정책은 반제(反帝)·반식민주의의 소위 민족해방 투쟁을 적극 지원하면서 친공(親共) 중립 세력을 키우는 데 있다.

이러한 소련 정책은 2차 대전 후의 격동하는 아프리카 정세에 재빨리 편승하고 있지만 첫 번째의 기회는 낫셀 대통령이 아스완·하이·댐 건설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미·소 양국을 대결시켜 놓고 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원조국인가를 택하려던 시기였다.

전쟁에 반대한다.”고 명백하게 발언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소련이 정권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서 무력 투쟁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시대에 적합하도록 전략을 변경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이유로서 소련은 당분간 정치적 및 경제적 형태의 투쟁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소련이 이러한 정치적 및 경제적 형태의 투쟁에 더욱 주력하게 된 이유는 극단적으로 대립된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항쟁이 소련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불리한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서게 할지도 모른다는 소련의 우려인 것이다. 즉 공산집단 혹은 친공(親共)적인 집단을 옹호함으로써 서방측의 무력 개입과 국지 전쟁을 유발하거나 또는 무력 항쟁이 서방측에 의해서 분쇄되는 것을 그대로 묵시(默視)하는 것이다.

1959년 10월, 스탈린의 레닌이즘 원칙에 대체하여 공산주의 전략의 새로운 교조(敎條)로서 공표된 막시즘-레닌이즘의 원칙을 볼 것 같으면 평화적 공존의 개념이 제20차 공산당대회 때의

소련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찬스를 포착하기는 했지만 낫셀 정책이 국내적으로는 철저한 반공이며 외교면에서는 적극 중립을 지향하는 바람에 소련은 이집트[埃及]를 아프리카에로의 교두보로 만들 수는 없었다.

두 번째 기회는 콩고 사태이다. 고(故) 루뭄바(Lumumba)는 벨기에[白耳義]를 반대하는 반 서방투쟁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련 원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하여 흐루쇼프는 몸소 UN총회에 참석해 가지고 루뭄바 세력을 변호하는 투쟁을 전개했지만 이것 역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세 번째 기회는 기니, 가나, 말리 등이 구 식민지국가 등에 대한 반동으로서 친소 정책을 취하는 시기이다.

소련은 이시기를 포착하여 친공 세력을 부식(扶植)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신생국가들은 소련과 친근하여 자기네의 입장을 유리하게만 하고자 원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공산당의 국내적 번식에 대해서는 경계적인 태도이다.

네 번째 기회는 리제르토 사건의 발생이다.

종래 친서구적 정치가였던 튀니지의 부르기바(Bourguiba) 대통령이 프랑스와 싸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서게 되자 무가넬 외상을 모스크바에 보내가지고 흐루쇼프 및 그로미코(Gromyko)와의 회담을 진행시켰으며 동 회담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튀니지는 비제르트(Bizerte)의 프랑스군 기지 철폐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手段)의 투쟁을 다할 것이다.”고 말하고 소련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소련은 베를린(柏林) 위기에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켜놓고 한편으로는 격동기의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과 점을 확보하는 공작에 열중하고 있다. 이것은 A·A 국가군이 UN에서 46개국이라는 사실과 중립주의의 고조(高潮)가 곧 서방 세력을 약체화시킬 수 있다는 타산과 유관한 것이다. 적이 인종전쟁을 불여놓고 어부지리를 얻는 데는 아프리카가 가장 호개(好個)의 택지로 되어 있는 것도 크렘린의 지배자들에게는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동 대회에서 흐루쇼프는 의회 제도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혁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막시즘-레닌이즘의 원칙에서는 사회주의에의 비폭력적인 전환이 “노동자 계급의 최소한의 희생으로서 철저한 사회생활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커다란 이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소련의 신문사설은 후에 이러한 선언에 관련되는 동서 공존의 보다 큰 문제에 언급하였다. 1960년 초, 한 소련의 신문은 사회변혁의 소지가 성숙된 국가에 있어서는 두 개의 대척적(對峙的) 제도간의 군사적인 충돌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변혁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솔직하게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새롭고 전례가 없는 새로운 외교적 문화를 개방한다. 폭력적이고 독선적 방법을 보류함으로써 절차 및 교섭이 한층 더 중요성을 갖게 된다.”

(장대원(張大元) 역(譯) 차호 계속)

무관심할 수 없는 일이겠다.

요컨대 소련의 아프리카 정책은 그 곳 신생독립국가들의 민족주의에 연대성을 표시하면서 '친선에 의한 침투'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치공작만이 아니라 경제공작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체 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 경제공작과 기타 방법에 의한 적화(赤化) 음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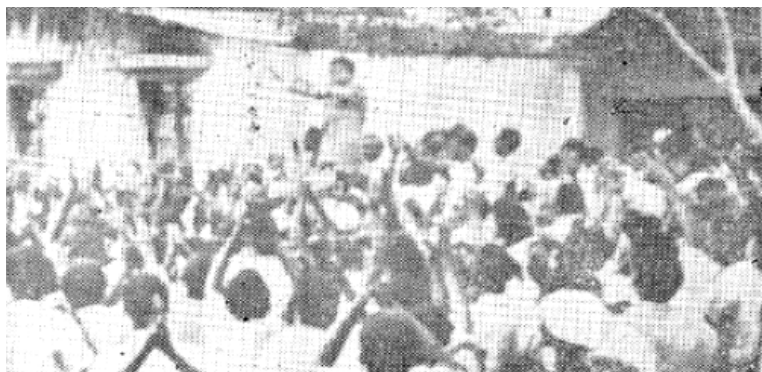
소련의 아프리카 침투는 중남미주·중근동(中近東)·동남아세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경제 원조를 축으로 하여 기술 원조·장학제도·민족주의운동의 지지와 같은 종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저개발 지역 전체에 대한 공산권의 경제원조 총액은 원조 공세가 본격화된 1954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28억 3,500만 불에 달하고 그 중 중근동 및 아프리카 제국이 41%에 해당하는 11억 6,500만 불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동기간에 있어서의 미국원조에 비하면 절반도 못 되는 것이지만 공산권의 전기(前記) 원조는 1959년에 55년의 약 6배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서방측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공산권과의 경제관계가 가장 밀접한 나라는 아랍 공화국의 이집트와 기니 및 에티오피아의 3국을 들 수 있는바 소련은 1959년에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만 1억불 이상의 차관(借款)을 금리 2.5%에 상차기간 12년 조(條)로 제공하여 금광 개발, 피혁, 섬유공장 건설 등에 충당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련은 나일강 상류의 다나 호반에 1천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기술학교를 건설중이라고 하며 또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는 소련의 호화스러운 문화 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1958년의 국민투표로서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이탈한 기니는 지난날의 프랑스 세력에 대치하여 공산세력의 가장 좋은 발판이 되었으며 아프리카의 붉은 별과 같은 존재로서 프랑스와의 금융관계 단절·통화(通貨) 개혁 등으로 일로(一路) 좌경(左傾)하여 가고 있다.



거리에는 소제 자동차가 질주하고 있으며 체코제 주류, 중공 담배 등이 범람하고 있다. 동독은 대규모의 인쇄소와 농사 시험장을 기니에 건설중에 있으며 방송시설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이다.

체코의 기술자들은 기니의 항공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보기사이드 광물 자원의 개발에 기술 원조를 하고 있다.

기니와 연방관계에 있는 가나도 공산주의 침투의 좋은 목표로 되어 있는바 소련은 작년에 3만 톤의 코코아를 가나로부터 구입할 것과 제철소, 정유소, 시멘트, 방직공장 등을 건설할 계획을 진행시켰다.

폴란드는 콰에서 제재, 섬유협동조합의 설립에 손을 대고 있으며 동독은 수도 아코라에 대표부를 확장하여 무역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원조 이외에도 공산주의의 아프리카 침투는 확실히 경계를 요하는 것이 있는바 1958년 초에만도 약 100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소련과 동독에서 잠수함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체코 수도 프라하는 경제연구소 명목의 아프리카인 전문학교(학생 150명)와 범 아프리카 학생연맹이 설치되어 있으며 폴란드의 뭇즈에는 흑인 아프리카 학생강습소 그리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는 아프리카 노동지도자 양성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모스크바에는 A·A 지역의 학생들을 무료로 유학시키는 민족 우호 대학이 설립되어 있는바 이러한 교육기관들이란 것은 아프리카의 공산화 계획과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 중공의 아프리카 침투 공작

중공의 아프리카 침투 공작은 1959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신생독립국가들이 속출함에 따라 중공의 아프리카 공작은 대외정책의

## 소련(蘇聯)의 선전(宣傳) 술책(術策)

김기점(金基漸)



근대사회의 고도화된 발전 분화(分化)에 따라 인간의 공동집단의 생산체제는 다양의 복잡화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유통적이고 자극적인 사회생활은 필연적으로 인간 개인의 각종 각형의 심리작용의 부산물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전 프로파간다(PROPROPAGANDA)라는 근대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고찰하건대 오늘날 선전의 의의가 정치나 전쟁의 실용수단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정치 못할 것이다.

물론 선전이란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제(諸) 과학 분야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래로 점차 정밀한 연구와 검토가 되어 온 것만은 사실이다.

즉 선전이란 '의지의 주체'로 간주되는 개인이거나 집단이건 간에 이들을 좌우 통제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어떠한 태도를 마련케 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억제하건 간에 '의지의 주체'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며 기도(企圖)인 것이다.

이것은 곧 인간의 사고나 행동에 있어 인간에게 왜 그렇게 하는가의 이유를 양해(諒解)시키고 이해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과는 상이한 것이다.

중요한 일환으로 되어졌다.

중공의 아프리카 공작은 신흥 독립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과 민간단체간의 교류 및 연대관계를 조성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다.

중공은 작년 한 해 동안에 13개의 아프리카 신생독립국가들을 승인하고 이미 중공과 국교를 수립하고 있는 나라만도 모로코, 가나, 기니, 마리, 소말리아, 콩고(기젠카 정권) 등 6개국에 달한다.

이 밖에도 나이지리아, 오토볼타(Haute-Volta), 세네갈, 토고, 다오메(Dahomey, 현 베냉 Benin) 등 제국(諸國)도 조만간 중공과 국교를 맺게 되리라는 관측이 점차로 유력해지고 있다.

중공이 승인한 아프리카 제국

국명	승인년도	중공 또는 자유중국 승인
모로코	1958	중공
기니아	1958	중공
가나	1906	중공
토고	1960,4	자유중국
마리	1960,6	중공
소말릴란드/소말리아	1960	중공

오늘날 소련을 괴수(魁首)로 하고 있는 공산국가들은 선전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공산주의로 정복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언(多言)을 요(要)치 아니 한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찬동도 반대도 하지 않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공산주의가 사회정의인 양 이를 찬성 지지토록 하려고 필사적이며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의 세계정책은 가능하다면 미소 양국을 비롯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 무기에 의한 전쟁을 치루지 않고 세계를 정복하고 인류를 공산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 보려는 것이다.

이들테면 한국전란에서 그러했고 라오스 중동지역에서의 소련의 배후 조종 또한 쿠바에서의 카스트로의 추태발광조절(醜態發狂調節) 그리고 남미 미개척지역에서의 공산 부식(扶植) 공세는 소련의 국가적 안전을 위태롭게 했거나 자기 군대를 직접 주검의 함정으로 몰아넣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자국의 희생을 없이 하여 국가적 안전의 위협을 초래치 않고 미국을 비롯해 자유 맹방(盟邦) 국가를 약체화하고 침식할 수 있는가를 추구하려는 계획적인 정책과 노력만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은 선전을 통해 그 대부분을 구성하고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즉, 공산주의의 세계 혁명을 가능화하려는 목적, 의식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공산주의의 세계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만큼 소련의 선전 활동이란 것은 공산주의의 세계정복을 위한 일정의 의도적 활동이므로 그들의 선전이란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갖은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산주의 선전이라는 것은 선동과 기만 허위조작으로 일관되어 자행되기 마련이다.

이는 또한 근대사회의 복잡화, 확대화에 따라 각종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마다가스카르	1960	자유중국
가봉	1960,8	자유중국
상아해안	1960	미정
나이지리아	1960	미정
오토볼타	1960	미정
다오메	1960	미정
중앙아프리카	1960	미정
차드	1960	미정
콩고(기젠카)	1960	중공
세네갈	1961,4	중공

이상과 같이 아프리카 제국으로서 중공 승인국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과거 2년래로 중공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맹렬한 정치 공세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중공의 아프리카 공작은 소련과 대척(對峙)하여 대규모의 물질 원조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는 불구하고 기니에 대하여 일억 루블(소련 화폐)의 차관(借款)을 제공하였으며 일만 톤의 미곡을 증여하였다.

작년 9월 세크투레 기니 대통령이 북평(北平)을 방문하였을 때 10개년 우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전기한 바의 일억 루블

전개됨은 물론 직접 간접으로 계획적인 통제작용으로 전개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피암시성(被暗示性)이 비교적 강한 편인 동양인에게에는 공산선전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될 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들어가기 쉽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겠다. 동양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선전, 선동이 라는 것은 어떻게 된 셈인지 그리 좋지 않은 의미로만 해석되어 온 것이 일 지적인 경향인 양 싶다.

지난날의 반세기의 세계를 앞에 놓고 선전이라는 현상의 존재 이유를 고찰하건대 이것은 결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또한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성행할 운명에 있는 것만도 사실일 줄 안다.

어떠한 사실을 전파하는 일정의 활동으로서의 선전이 진실을 전파하는 것일 진대 선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전이 될 것이요, 만일 그것이 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양 조작하여 전파할 때 이는 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의 사실을 전파하는 데 속한다고 보는 것은 선전이 왕왕 허위 날조도 하나의 사실로서 취급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일수록 현대국가일수록 선전 활동이 중요시되어 오고 있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으며 공산주의의 대대적인 선전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목과할 수 없는 당면문제일 것이다.

즉 우리는 무엇으로 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를 연구하고 알아야 하겠다. 소련의 현재의 선전공세랄까 선전술이란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위협과 공포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인공위성, 열핵무기, 생산경쟁에 있어서 미국보다 훨씬 앞섰다고

차관 공여와 경제 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 및 무역 지불(支拂) 협정(5년간)을 체결하였다.

작년 12월 중공은 소말리아에 대하여 1천만 불의 원조를 공여하였으며 마리 연방과는 작년에 무역 지불 협정을 체결하였다.

### 중공의 대(對) 아프리카 공작의 특징

중공의 아프리카 공작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다.

- ① 아프리카 식민지의 독립을 지지하여 영·불 등의 세력을 아프리카에서 구축하고 서방 식민지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킨다.
- ② 아프리카 제국의 경제 문화 건설을 지원하며 이들 제국으로 하여금 중립 친공 정책을 취하도록 친공감을 증대시킨다.
- ③ 좌익 정당을 육성하여 정권을 장악케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궁극적 공산화를 꾀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공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하여 반제(反帝) 통일 전선을 치열히 호소하고 있으며 유색인종

선전함으로써 공산주의국가는 물론 공산주의를 반대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국가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갖도록 위협하는 것은 다반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떤 공적 인물이나 소련의 선전기관들의 위협적인 언동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은 세계 인류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련의 이러한 위협과 유화(柔和)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허위 날조의 선전 공세에도 굴치 않고 인간 기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진실한 선의 목적을 위해서 진실한 사실의 전파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사회생활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공포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그것보다도 어떠한 상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더 많고 더 큰 것이다.

공포를 자아내어 정치의 수단성과 목적성으로 이용하지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에 있어서의 선전이 의도하는 바는 바로 전제정치나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이것은 공포의 토대 위에서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다.

새삼스럽지만 소련은 과감히 세계 적화라는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의 전제정치, 독재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소련의 그 이중 측면을 이루는 평화 공존이라는 가소로운 허위 조작의 선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공산주의의 세계정복을 위한 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정한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유우방이나 자유민을 계획적으로 어떠한 혼란 상태로 이끌어 보자는 흉계로서 자행되는 허위의 사실 전파라는 것이다.

세계의 평화를 원하는 자는 오로지 소련이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맹방들은 모두 전쟁을 도발하여 인류의 멸망을 꾀하는 자인 양 조작 전파하지는 것이다.

의 공감을 환기시키려는 온갖 선전 활동을 맹렬히 전개 중에 있다.

중공은 1959년 초부터 대 아프리카 선전 공작을 강화하였는바 아프리카로 보내는 영어 방송은 소련보다도 많다.

소련은 영·프 및 현지어로서 매주 42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중공은 동남 아프리카로 보내는 영어 방송을 매일 2회, 1회 60분씩 실시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및 서북아프리카에 대해서도 1일 2회 방송을 실시 중에 있다.

중공은 미제(美製)의 선전용 소책자를 아프리카 대륙에 많이 방송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중공은 어떻게 혁명에 성공했는가?", "중공은 이렇게 위대하며 우호적이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전 공작을 통하여 중공은 자기네가 "독립운동의 표본이다"는 것을 광파(廣播)하여 아프리카 주인들로 하여금 친 중공감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공의 이러한 공작은 당연히 UN이 얼마나 가소로우며 터무니없는

수작인가는 너무나도 잘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것은 곧 소련의 선전 전술이랄까 공세가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보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 있어서 소련의 평화 공존이라는 표방 그 실(實)에 있어 가면극에 지나지 않으며 본심은 미국을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자유진영제국으로 하여금 혼혹케 하려는 또 하나의 위험하고도 커다란 소련의 선전 전술이기도 하기에 이는 그들의 의도적인 활동이며 계획적인 노력인 것이다. 소련은 한사코 미국의 해외 기지로부터의 주둔군대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하여 온갖 선전 방세(放勢)는 이러한 점을 노려 세계도처에서 흥책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세계의 평화 애호 국민은 이러한 소련의 허무맹랑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선전 전술의 본의와 선전 공세에 대하여 무기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방지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항상 소련은 그의 흥계가 드러나고야 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에 이르러서 유럽에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결합을 형성한 NATO 같은 기구가 마련되었으며 METO, SEATO, 범미동맹 등 이 밖에도 비공산주의 세계가 많은 비공산주의국가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결합을 형성하는 자유우방의 여러 기구가 마련되었음은 모두가 공산주의의 국제질서 파괴를 방어하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열이라 하겠다.

소련의 위협이 공공연하게 감행되고 있는 오늘날 비공산주의 국가, 세계의 결속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철통같아야 하겠고 또한 확대되어야 하겠다. NATO, METO, SEATO, 범미동맹 이 밖에도 세계 공산방위의 일환으로 마련된 미국을 위시한 비공산주의 국가 간의 기구가 더욱 강력한 연계를 가지고, 전 자유국가들의 정치, 군사, 경제, 과학의 체제가 점차 공고히 되는 날이면 소련의 국제 공산주의의 세계 혁명이라는

대신생책과도 관계가 있는바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들의 다수도 중공을 지지하게 되는 날 중공의 UN 가입 문제는 사실상 막아낼 수가 없는 형편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 중공의 아프리카 공작

중공은 1959년 말 아프리카 공작을 전담하는 기구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것은 중공당서기처 내에 대 아프리카 공작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진용(陣容)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다.

주 임 이극범(李克範) (당사회부장(黨社會部長))

부주임 요승지(廖承志) (黨外工作委 제1서기, A제국민단결회의 주대)

부주임 겸 서기 류장승(劉長勝) (중공·아프리카 인민우호협회회장)

위 원 류서원(劉西元) (중공청년단서기처 서기)

하영(何英) (외교부 서아(西亞)·아국(阿局)장)

왕우전(王雨田) (주(駐) 수단대사)

가화(柯華) (주 기니아대사)

황화(黃華) (주 가나대사)

장철생(張鐵生) (중공·아프리카 인민우호협회 부회장)

〈필자(筆者)· 시사평론가〉

꿈은 깨어지고 좀 더 심한 파경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다.

소련은 항상 자유세계에 대하여 선공을 피하였으며 또한 자유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국제 공산주의 세계의 정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계의 자유평화에 호국가와 국민들은 자유세계의 공동의 생존을 위하여 최대한과 최선의 수단을 취하게끔 되었으니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차라리 소련측에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소련의 선전 전술과 선전 공세는 위협적인 것으로서 자기들의 정체를 폭로하였을 따름이고 자기네들의 내정을 상대방에 알려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으며 소련의 이러한 선전의 경향은 흐루쇼프 시대에 이르러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독일의 나치스가 목적 달성을 위해 민중의 관심을 자기들에 유리한 체제로 만들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하여 적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상투(常套) 수단으로 어떠한 매체를 내걸고 혐념(嫌念)을 갖도록 허위 날조의 진실 아닌 사실의 전파를 자행하였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소련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무산노동계급으로 하여금 부르주아지 계급에 대한 적의를 갖도록 조작 집중시켜 왔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거나 선전을 사상 투쟁의 정치수단으로 항상 작용시키고 있음도 너무나 명확한 사실로 되어 있다.

또한 소련은 이를 위하여 거액의 국고 재정으로로서의 뒷받침하고 있으며 국가 통제의 선전 기관만이 존재할 뿐이다.

요컨대 소련의 선전 활동은 관계의 것으로서 오로지 공산주의의 세계정복을 위한 조직적인 의도적 활동으로서 계획적으로 전개되며 악의 목적을 달성기 위한 은폐적인 정치의 보조력을 담당하는 침략정책의 은폐적인 정치의 절대적 보조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 제국의 앞으로의 이에 대처한 좀 더 결속된 자유세계의 공동 생존을 위한 연계를 굳건히 하여 공산주의 세계에서 허덕이는 선량한 평화애호의 자유민을 고무(鼓舞)코 건져내기에 더욱 용감하여야 될 시기가 바로 현 단계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필자(筆者)· 공군 중령 공본(空本) 공보(公報)과장〉

### ★ 중남미의 공산세력

▲니카라과=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회당은 이미 1945년에 불법화하였다. 이들은 현 정부에 의해서 활동이 봉쇄되어 있다. 총 인구 133만

▲파나마=1953년에 불법화하였는데 파나마 운하 문제로 미국과 말썽이 있을 때마다 암약(暗躍)하고 있다. 이 나라도 소수의 재벌이 전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의 소지가 되어 있다. 총 인구는 100만에 미달

▲파라과이= 이 나라에서는 불과 500명 내외의 공산주의자들이 비교적 많은 영향력을 주로 정치, 교육, 노동 부문에 미치고 있다.

## 폴란드와 유고의 불화(不和) 상(上)

공동 집필 아담·브롬크  
드라치코비치

—〈필자 소개〉—

공동 집필자인 브롬크 씨 및 드라치코비치 씨는 하버드대학의 소련 문제 연구소에서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 문제를 각각 연구하고 있다. 부르게스(Burges)에 있는 유럽대학의 연구책임자였던 드라치코비치 씨는 두 권의 유럽 사회주의에 관한 책을 저술했으며, 자유 유럽 위원회의 폴란드 해외사업에 종사한 바 있는 브롬크 씨는 여러 학가지(學街誌)에 동유럽 정치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공산 진영의 정계에서 폴란드 및 헝가리의 10월 사건 다음으로 새로운 움직임은 다름 아니라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 간의 우호관계 회복을 위한 상호 접촉인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는 반 스탈린 투쟁에서 고무우카(Gomułka)가 승리한 데 대하여 티토(Tito)가 이를 열렬히 찬양한 것과 소련이 부다페스트에 무력개입을 한 데 대하여 티토의 입장이 난처해졌을 때 티토가 취한 행동 등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다. 또한 동시에 크렘린에서 흐루쇼프가 여러 가지 난 문제에 부딪치고 마오쩌둥이 고무우카를 지지함으로써 동유럽의 정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된 것이다. 소련이 행사하는 집중적인 지배권은 공산권의 분열 가능성을 암시하게 되었으며 결국 크렘린은 전 위성 제국에 있어서의 정치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스탈린의 강력한 지배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만들어진 이러한 극적인 분위기에서 스탈린 독재의 희생자로서 살아남은 두 사람인 티토와 고무우카가 친근해진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티토(유고)

흐루쇼프가 1955년 5월에 베오그라드(Belgrade)를 방문하자 1956년 6월, 기세도 당당히 소련을 방문하였던 티토는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를 보고 소련의 스탈린주의적인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였다고 믿게 되었으며 자기가 재등장할 시기가 닥쳐온 것으로 굳게 믿게 되었다. 흐루쇼프 및 티토가 공동으로 서명한 티토의 숙원을 시인하는 내용의 문서가 1955년에 베오그라드에서 그리고 1956년에 모스크바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티토는 공산국가 및 공산당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스탈린주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티토는 헝가리 의거를 보고 모스크바, 북경 및 베오그라드의 위치가 동등한 여러 가지 참신하고 자유스런 막스-레닌주의의 핵심체와 함께 집중적인 공산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구는 내부적으로는 공산지배를 강화하고 자유진영,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국가에 있어서의 공산세력이 필연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1957년 11월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티토가 이것을 자기의 역사적인 사명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무우카는 그의 1956년 10월의 반 스탈린주의 투쟁에 있어서의 승리를 전후하여 폴란드에서 티토주의 노선을 따르는 듯이 보였으며 고무우카는 티토의 원대한 포부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둘도 없이 귀중한 존재인 것이었다. 내세울 만한 이렇다 할 사상을 갖지 못한 고무우카에게는 티토의 외교정책보다는 유고슬라비아 국내에 있어서의 티토의 위치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으며 고무우카는 이것을 폴란드 국내에서의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데 모방하고 싶었던 것이다. 즉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은 전체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들이 임의로 수정한 공산주의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었으며 유고슬라비아에는 소련군이 주둔치 않고 있고 또한 유고슬라비아는 정치적인 조건이 따르지 않는 막대한 경제원조를 서방으로부터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1956년 말 및 1956년 초) 국내적인 문제에 당면하고 있던 흐루쇼프 및 모택동에게는 중앙유럽 및 동유럽에 있어서의 공산지배의 유지가 가장 긴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헝가리 개입에 대한 티토의 비난에 분개하기는 하였으나 티토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고무우카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유고슬라비아와 폴란드의 지도자들이 소위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방해할 의사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다. 중앙집권적 공산주의는 후일의 문제로 미루었다.





고무우카(폴란드)

모스크바 및 북경의 지도자들이 보다 더 적절한 장래의 정책을 숙고하는 이러한 10월 사건 이후의 미묘한 시기에 티토 및 고무우카의 우호관계가 성립되었으며 모스크바의 그들의 관계는 그동안의 관계를 여전히 조심스럽기는 하나 보다 더 가깝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각기 다른 각도로 상대를 관찰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복잡한 관계인 것이며 장차의 공산권 내부의 관계로서 본 논문에서 논급코자 하는 것이다.

첫 단계, 1956년 후반기에 유고슬라비아 및 폴란드 공산당 간의 고위층에 의한 관계가 1948년 이래 처음으로 성립되었다. 8월에 공산당 정치부원

프란시스제크 마주르가 영도(領導)하는 폴란드 노동자 연맹의 대표단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했다. 마주르는 그 당시 PUWP(노동자연맹) 중앙위원회의 스탈린주의파의 영도자였으므로 그의 방문은 특기할 만한 의의가 있었다. 같은 해의 12월에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연맹의 대표단이 동 연맹 집행위원회 서기 중의 한 사람인 스페토자 브크마노빅 텡포의 인솔 하에 폴란드를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은 성과가 대대(多大)했으며 그 이유는 고무우카가 PUWP의 주도권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방문시의 회담도 지극히 실질적이었던 것이다. 그들 두 나라 및 두 나라의 공산당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획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 때였던 것이다.

1957년 전반기를 통해서 유고슬라비아-폴란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협조가 가장 강조되었다. 두 나라간의 상업관계는 계속적으로 증진되었다. 1957년 6월에는 교역량을 30퍼센트 증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 조인(調印)되었으며 동시에 각 계층에 걸쳐서 경제계획 및 운영분야에 있어서의 양국의 경험에 관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폴란드는 경제의 분산 및 산업기구 내의 노동자 자치단체의 설립 등 유고슬라비아의 경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실상 폴란드의 노동자회의에 관한 1956년의 법령은 이미 상당한 부분이 유고슬라비아의 그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외교정책면에 있어서는 폴란드-유고슬라비아 협조가 더욱 미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모스크바-베오그라드 회담이 1956년 1월의 티토의 연설을 계기로 결렬되어서는 그가 모스크바를 방문함으로써 결렬 상대가 종식되던 1957년 3월까지 폴란드는 분명히 유고슬라비아에 동조했던 것이다. 폴란드가 소련과는 상이한 '사회주의의 과정'에 대한 권리를 고수한다는 사실이 유고슬라비아의 입장에 보다 더 강력하게 폴란드가 동조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폴란드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비난을 삼갔을 뿐만 아니고(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음) 소련의 비난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반박을 유력한 당기판저에 게재하기까지 했다.

여하튼 고무우카는 티토와의 유대를 맺음

에 있어서 지극히 조심스러웠다. 고무우카는 이미 긴장된 타 공산국가와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킬 것을 피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유고슬라비아 및 폴란드를 계속적으로 공산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공산권내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흐루쇼프가 1957년 7월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반당(反黨) 집단을 정화(淨化)하는 것을 보고 고무우카는 그러한 변화로 간주했던 것이다.

티토 및 고무우카는 모두 당 내부 투쟁에 있어서의 흐루쇼프의 승리의 의미를 오해하는 듯했다. 티토는 흐루쇼프가 스탈린주의 잔당들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보아서 양면성의 세계관을 버리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모로토프가 실각하고서 얼마 안 되어 유고슬라비아는 소련과의 새로운 친교를 모색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7월에 티토의 가장 측근자인 에드바드 칼멜 및 알렉산델 란코비크를 모스크바에 파견했다. 8월 초에는 흐루쇼프-티토 회담이 부카레스트에서 있었으며 동 회담의 결과에 티토는 용기를 얻었다. 흐루쇼프는 헝가리 폭동에 대한 티토의 책임을 모두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의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와의 우호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에 동의했던 것이다. 더욱이 일찍이 있었던 베오그라드 및 모스크바 선언에서 언급한 바 있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회담 후의 공식 성명은 '상이한 형태의 사회주의 발전' 원칙의 유고슬라비아의 견해를 확인하는 듯 했다. 유고슬라비아-소련 간의 우호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확신한 티토는 흐루쇼프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외교적인 문제를 처리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흐루쇼프-티토 간의 정치적인 관계는 1956년 여름에 이루어진 바 있었던 것처럼 그 최절정에 이른 것이다.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은 모스크바가 그들 사진을 정화하고 또 그것이 유고슬라비아와의 소련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환영했으며 모스크바-베오그라드 우호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모로토프 일파의 짓으로 믿게 되었다.

1957년 9월 10일에 고무우카는 다른 세 명의 헝가리 노동자 연맹 정치부원을 대동하고 베오그라드를 방문했다. 일주일에 걸친 고위층 회담이 끝난 후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의견의 일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9월 16일에 발표했다. 동 성명에서는 중요 국제문제 및 국제 공산당 활동의 최근 선언 등을 소련의 입장에 합치되게 언급했으며 또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유고슬라비아-폴란드 관계에도 언급했다. 특히 외교 문제에 관한 상호의견 교환, 경제 협조의 확대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문화교류의 증진을 위한 공보원(公報院)을 바르샤바와 베오그라드에 설치할 것 등이 동 성명에서 언급되었다. 여하튼 조심스런 문구로서 되었으나 동 선언은 양국 대표가 우호적이고 영원한 폴란드-유고슬라비아 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인 기본적

이해에 도달한 것을 말해주었다.

동 선언이 뚜렷하게 반소(反蘇)적이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주는 것일지 모르나 공산권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것이었다. 동 선언에는 최근에서야 ‘수정주의(修正主義)’라고 일컫게 된 것에 가까운 몇 가지 공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적인 선언은 소련의 정책과의 일치를 강조한 다른 성명들과 혼합되었다. 예를 들면 티토가 좋아하는 ‘적극적인 공존(모스크바는 이러한 표현을 싫어함)’은 크렘린을 즐겁게 하는 프롤레타리아적 인터내셔널리즘의 원칙과 연결되었다. 유사한 이유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상이한 양식 및 방법의 원칙에 관한 것은 노동자운동의 통일에 충실한 언사로 연결되었다. 또한 동 선언에서도 ‘공산당 및 노동당 간의 관계’의 발전에 언급하고 나서 ‘더 많은 3당에 대한 공동의 관심의 문제에 관해 보다 더 광범위한 접촉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토 및 고무우카 자신들이 이러한 비정통적인 인사의 혼합에 관여했고 선언을 재확인했다. 고무우카가 베오그라드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행한 연설은 반 스탈린주의적이었다. ‘우리는 불운으로 말미암아 몇 년간 격리되었던 오랜 친구로서 다시 만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친밀해지고 다시 마련된 새로운 우호관계를 수호할 결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무우카가 유고슬라비아를 떠나기 얼마 전에 티토는 그를 환영하면서 소련과의 우호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가 ‘전혀 무의미한 소위 민족적 공산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러한 애매한 점들이 있기는 했으나 양측은 모든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독자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동을 했다. 1957년 9월부터 10월까지에 걸친 몇 주일 동안에 동부-중앙 유럽 지역의 전역에 걸쳐 갑자기 외교활동이 활기를 띠고 행해졌다. 고무우카가 베오그라드로 떠나던 날 덴마크인 신문기자와의 회견에서 발틱(Baltic) 지역을 동지역 내의 국가 간에 무조건 협조하는 지역으로 중립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에 루마니아의 수상인 치브 스토이카가 티토 및 발칸 제국의 다른 원수(元首)들에게 소위 ‘발틱 지역 내 제국민 간의 친선 및 그들의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및 터키의 국가원수들의 정상회담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보냈다. 3일 후 스토이카가 그의 부리오니 처소에서 고무우카와 회담하고 있을 때 티토가 그의 이니셔티브를 수긍하는 정중한 답신을 보냈다. 10월 2일에 폴란드 외무부장관인 아담 라파츠키(Adam Rapacki)가 독일 및 폴란드에서 핵무기를 금하는 그의 제안을 UN 총회에서 내놓았다. 그의 제안은 유고슬라비아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그러한 지지는 사전에 이미 확정적인 것이었다.

1957년 초가을에 있었던 이러한 모든 제안들은 물론 소련의 협조와 승인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스탈린시대라면 어렵도 없었을 만큼 동유럽 제국의 역할이 확대된 것을 말하는 듯하다. 그러나 곧 니키타 흐루쇼프도 그러한 사태를 묵인치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장대원(張大元) 역)

—다음호에 계속—

## 민주주의 원리 세미나②

### 인간 평등의 원리

— 진정한 평등론의 파악을 위하여 —

김낙봉(金洛鳳)

개개의 인간은 생리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두 제각각 상위(相違)하다. 모든 점에서 비슷하게 닮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전혀 똑같은 인간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은 전혀 불평등적 존재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상위가 있음으로 해서 선하거나 혹은 나쁜 농부, 노동자, 의사 같은 사라들이 생겨나고 사람에게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다소간 모두 다른 것이다. 이것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엇 때문에 민주주의는 인간의 평등을 그 기본 원칙의 하나로 하는 것일까?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인간의 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올바른 평등론을 발견하기 위해서 재래(在來)의 그릇된 평등론이나 불평등론을 한 번 훑어보고자 한다.

고래(古來)부터 논의되어 온 많은 인간 평등론이나 불평등론은 대체로 인간 상호간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능력 상위의 긍정이나 부정을 둘러싸고 다투어 온 것이다. 개괄적으로 말할 때 자연적 평등론이라던가 자연적 불평등론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자연적 불평등론자는 인간의 상위를 그대로 가치의 우열로 판단해서 인간의 능력이 선천적으로 크게 상위한 이상 인간의 불평등은 당연하며 인간 평등론은 이 같은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폭론(暴論)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해서 평등론자들은 대체로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선천적 능력의 차를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대체적으로 볼 때 대차(大差)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따위의 평등론으로서 그리스 시대 이래 가장 오래된 것은 인간은 모두가 이성적이라는 이성적 평등론이다. 즉 사람의 사람 된 소이(所以)는 이성적 동물이라는 데 있기 때문에 각인(各人)의 이성이 충분히 표현된다고 하면 모든 인간은 이성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 같다 라는 것이다. 스토아학과 및 그 유파에 속하는 키케로 같은 사람의 주장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평등론은 논거가 불충분함으로써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평등론이 발전한 것으로서 평균적 평등론이라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대표적 주장자는 영국의 철인(哲人) 홉스(1588-1679)이다.

홉스는 그의 주저(主著) 『Leviathan』 제8장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즉 대체로

지능이 출중한 자는 체력이 허약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지력이 떨어지며 지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능력에는 우월하나 다른 능력에는 결여되어 있어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총계해서 평균을 잡는다면 개인 간의 우열의 차는 있다 하더라도 아주 근소하여 인간은 자연적으로 거의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례로 볼 때는 오히려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가 깃든다'는 격언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신 공히 건전한가 그렇지 않으면 불건전한 것이 아닐까? 그뿐 아니라 그가 말하는 근소한 인간적 상위가 실로 커다란 사회적 유용성(有要性)이나 업적의 상위를 재래(齎來)하는 것이다.

이 밖에 인간 가치의 중심을 도덕적 능력에서 구하여 도덕적 능력의 평등에서 인간 평등을 운위(云謂)하는 설이 있다. 여기에는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이 있다. 그런데 후자의 대표적인 주장자는 청교주의(淸敎主義) 및 장로주의(長老主義)의 원조인 칼빈 (1509-1564)이며 전자는 같은 프랑스 사람인 루소(1712-1778)이다.

칼빈의 설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된 아담의 자손으로서 다 같이 죄책(罪責)의 숙명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선민(選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원죄 때문에 평등하게 무가치한 저주받는 존재로 발족한다고 하는 칼빈의 정죄론은 인간 평등관을 다소는 도운 결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의 선민론은 실제로는 오히려 귀족주의를 고취한 것이다. 칼빈의 이 도그마를 맹신한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청교도인 까닭으로 해서 그들 자신만을 독선적으로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자칭 선민들은 그렇지 못한 이웃사람들을 저주받는 사람들로서 차별하고 거기다 신의 이름으로서 그들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래서 칼빈이즘 또는 폴리타니즘은 미국에 있어서 오히려 평등주의의 발전을 억제하였던 것이다.

칼빈의 정죄주의에 공감을 느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개혁의 시대에 있어서 보다 적절한 루소의 성선설을 환영한 것이다. 루소의 설은 인간성은 원래 선한 것인데 이것이 악하게 되는 것은 사회제도의 죄이며 만약 인간성이 본래 선하다고 하면 인간은 그 도덕 능력에 있어서도 자연히 평등한 것이니 이 평등을 사실로 하자면 사회제도를 개혁하여 평등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설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질서에 대한 적의(敵意)와 신질서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개혁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선인(善人)으로만 가득 찰 리는 만무한 노릇이니 이 설도 결국은 많은 민주주의자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인간 평등을 논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릇되고 또는 불충분한 논의에 자연법(자연권) 설이 있다. 이 설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 상태' 하에서는 평등하고 자유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 관해서는 고래로 두서너 가지의 해석이 있다. 여기서 인간사회 구성 이전의 역사적 상태를 지칭한다는 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어느 사람도 이 같은 상태의 실존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른 해석으로는 오직 신이 법을 지배하는 혹은 신이 인간에게 준 공통의 규범이며 척도인

이성(理性)만이 지배하는 가정의 사회(칸트가 소위 말하는 목적의 왕국)를 가리켜서 존·록크(1632-1704) 같은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사회의 본래부터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의 이론적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의 평등성은 확실히 잘 인식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정의 사회에서만 인간이 평등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인간인 이상 언제나 현실적으로 평등가치를 갖는 것의 증명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해석도 그대로로서는 반드시 오류라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숙 불충분함을 면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인간 평등의 논증으로서의 자연법론이 19세기의 과학 발흥(勃興)을 앞두고 급속히 힘을 잃어버린 것도 실로 이런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론으로서의 유치하고 씨가 안 먹었지만 이와 같이 고래부터 여러 가지 평등론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자각된 인간의 고민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존하는 계급적 차별에 부정과 불합리를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동격적(同格的)인 면을 직감하며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론적으로 입증하여 현존하는 차별에 항의하고 싶어 하는 초려(焦慮)를 표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들 평등론이 이론으로서의 미숙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장자에게는 그다지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대개 벌써 인간의 평등성을 선험적(先驗的)으로 직관하고 소위 '자명(自明)의 진리'로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평등에의 신념을 동요시킴과 동시에 불평등론에 편승할 기회를 주어 올바른 민주주의 발달에 반드시 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

다음에는 인간불평등의 논거와 그것이 어찌서 그릇된 것인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실 세계에서 사회는 일반적으로 불평등하게 또는 계급적으로 구성되어 왔다. 그래서 평등론이 많이 현상 타파를 위해서 주장된 것과 마찬가지로 불평등론은 많이 현상 유지를 이익으로 하는 측에서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주장되어 온 것이다. 단순한 고정적 사회에 있어서는 문벌, 전공, 부(富), 덕(德) 또는 지능 따위의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을 골라서 우월의 표준으로 하여 이것을 사회질서에 조직할 수가 있었다. 즉 봉건사회에서 전공이나 문벌이 우월의 주요한 기준으로 된 것 같은 것은 그 현저한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층 진화된 복잡한 유동적 사회에서는 우월의 성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착종(錯綜)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의 표준을 고정화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강자(强者)는 현재의 우월적인 지위가 우월의 가장 좋은 증거라고 하는 보다 추상적인 일반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은 다윈의 진화론이나 적자 생존설에 의해서 어지간히 합리화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윈의 적자 생존설은 분명히 그릇된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존 경쟁의 결과로서 잔존한 연후의 생존형태를 가지고 그 이전 것보다도 항상 논리적으로 보다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그의 이론의 전제는 도저히 사실을 가지고 그 정당함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릇된 가설에다 니체는 초인설(超人說)이라 불리우는 그의 불평등론을 주장하였으며 스펜서는 그의 진보 필연설을 내세운 것이다. 스펜서의 소위 진보설은 전술한 바와 같은 다윈의 그릇된 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인 위 에다 뒤의 생존형태는 앞의 그것보다도 환경에 더욱 적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한층 행복하다고 하는 그 자신이 안출(案出)한 근거 없는 가설을 첨가 해서 성립시킨 것이다.

모든 진화론적 사상의 근거에는 사회를 완성예의 과정에 있는 유기체로 보는 가설이 전제로 되어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막스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의 피안(彼岸)에는 계급이 없고 각인(各人)이 완전한 자유를 향유하는 완성사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몽상(夢想)하는 것이다. 이와 똑같이 스펜서도 생존경쟁이 나아가서는 개인 상호간의 욕망이 충돌하지 않을 만큼 생활환경에 잘 적응하는 행복한 평등적 인종을 낳는 것을 몽상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불평등이나 약육강식의 부정의를 가지고 인류사회 진화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보고 진화의 마술에 의해서 그것이 언젠가는 평등 정의 평화의 완성사회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가설이나 몽상이 막스주의자들의 그것과 같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윈의 적자생존설이나 스펜서의 진보설은 니체의 초인설과 더불어 그릇된 적어도 실증할 수 없는 가설과 가설의 조립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따위의 언설은 인간의 자존심이나 자부심에 추파를 던지고 호소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커다란 항의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더욱이 진보나 행복예의 원동력으로서 현존하는 불평등제도나 약육강식적 경쟁을 긍정한 점에 있어서 인류의 투쟁 심리나 불평등 심리를 적지 않게 자극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같은 언설에 힘을 얻은 불평등론은 적자생존이나 우승열패(優勝劣敗)야말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여 자연법론자의 자연적 평등론에 맞서서 인간의 자연적 불평등이야말로 자연의 질서이며 진리라고 주창하였다. 그리고 혜택 받은 사회적 지위를 점하는 자는 그들의 우월한 지위야말로 적자의 증거라고 즐겨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이고 무엇 때문에 우월의 권리를 갖는가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다. 이 설명이 없는 한 누구도 이런 따위의 논의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월의 기준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연히 남는 것이다.

인간의 재능이나 피부 색깔 같은 외면적 요소에 인간의 평등, 불평등의 기준을 구하는 한 일견(一見)해서 불평등론에 승산이 있어 보인다. 인간의 능력 같은 것은 무한한 거리가 있어 불평등론은 이 명백한 사실의 긍정 위에 성립되는데 반해서 평등론은 이것이 부정되거나 경시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논거 위에 성립된 평등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론에는 더 한층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 결함이 첫째는 우월의 기준에 있어서 도저히 일치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또한 치명적 결함은 여하(如何)한 불평등론도 불리하게 차별되는 쪽의 누구도 만족시켜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론에 있어서 우월의 기준은 무수히

열거되는바 그것은 사회적으로 우월을 욕구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며 우월을 자부하는 자는 자기들은 구비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여된 것을 가치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사는 무공으로, 저명한 선조를 가지고 있는 자는 문벌로서, 자본가는 부로서, 학문에 출중한 자는 교양으로서, 노동자는 근로로서, 백인은 피부색깔을 가지고—이렇게 열거하면 참으로 끝이 없는데—제각기 우월의 기준이 되어질 것을 욕구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개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타인이 경쟁할 수 없는 그 어떤 특장(特長)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이래서 인간의 비교적인 가치는 수없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을 차별하는 불평등론은 이것들을 쌓아 가면 결국에 가서는 각자의 자부심만이 지지하는 수 없이 서로 충돌하는 주장으로 분열하여 사회의 다수가 수락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가치기준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불평등사회는 강자가 우월의 기준을 세워 이것을 폭력 또는 합법화된 폭력적인 권력으로서 강제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래(古來)의 계급제도나 특권제도 노예제도 같은 것이 모두 이렇게 해서 유지되어 온 것이다.

불평등론에 있어서는 우월의 기준을 결정짓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어떠한 표준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리하게 차별되는 쪽의 어떤 사람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다. 가령에 어느 사람을 그 사람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척도로 해서 평가해 보라. 그는 그 결여되어 있는 점을 사실이라고 승인하더라도 그 때문에 타인이 인간으로서 자기보다 전면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소위 패배자나 낙제생일지라도 자기의 실패로 인연해서 자기가 인간으로서 특히 열등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에게 우위적 지위를 확보하는 사회질서의 존속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등론도 생겨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특히 결여되어 있는 재능, 자질, 그밖에 적어도 자기를 불리하게 이끄는 척도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평가되고 그것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관계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자는 절무(絶無)할 것이다.

시대사조나 습관 같은 것으로 해서 배격(排擊)하기 곤란한 우월의 표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기를 열등화하는 표준이나 어느 단일 능력의 유무로서 자기의 인간적 가치가 전면적으로 판단 평가된다고 하면 누구라도 반드시 그 표준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이것을 배격할 것이다. 그리고 부(富)나 문벌 같은 어떠한 우월의 표준을 세우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포함되는 특권자는 결국 소수인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은 즉 사회의 다수인을 불평불만으로 이끌지 않는 여하(如何)한 불평등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인간의 불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질서는 다만 권력으로서 강제적으로밖에 유지시킬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질서를 합리화하려는 여하한 불평등론도 적어도 불리하게 차별되는 쪽의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불평등론이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이론은 사람의 이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론은 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불평등론에 합리성을 느끼고 정의를 느끼고 만족을 느낄 수 없는가? 또한 무엇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도덕에 있어서, 지능에 있어서, 체력에 있어서 확실히 나보다도 우월함을 인정할 경우라도 그가 인간으로서 나보다도 더 한층 높은 가치를 가졌음을 승인할 수 없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의 인간적 존재로서의 근본적 사실인 자기의 무한가치관과 저촉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표면적인 수단적 비교적 가치만을 보고서 인간의 내면적 고유 가치를 무시하는 어떠한 평등론이거나 불평등론이거나 그것은 결코 인간의 합리성과 정의감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야말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평등의 올바른 의의를 확인할 때가 왔다고 본다.

만약 민주주의에 있어서 평등의 원리가 인간이 모든 점에 있어서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평등론자들이 입을 모아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정말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언설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등론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평등이란 목적가치의 동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밖의 의미에 있어서는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는 않은 것이다.

인간의 가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본래 각자가 자기에게 부여하는 무한 가치로서 이것이 고유 가치, 목적 가치, 절대 가치 따위로 불리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다른 하나는 수단적, 기구적 또는 사회적인 비교 가치이다. 사람은 이 수단적 가치에 있어서는 불평등하지만 무한 가치에 있어서는 절대로 평등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무한대는 다른 무한대보다도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전혀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평등이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평등한 인간의 목적 가치를 같은 율의 2배라고 하는 것 같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본래 어떠한 척도를 가지고도 평가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목적 가치의 동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격완성의 도덕생활이라고 하는 나의 인생목적을 실현해 가는 것, 즉 나의 인격의 만족은 나에게 있어 내가 이 밖에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를 능가하는 최대무한의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격의 만족은 그 사람에게 있어 한 가지로 최대무한의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의 인격의 만족을 나 자신의 인격의 만족이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환언(換言)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목적의 실현에 대하여 평등의 권리와 기회가 부여되어 당연히 동등하게 존중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다. 목적가치의 평등이란 이렇게 각인(各人)은 인격완성의 도덕생활 또는 행복추구에 평등의 권리와 기회를 인정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였다. 칸트는 이것을 '너 자신의 인격 및 다른 모든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항상 목적으로서 사용할 것이며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사용치 않도록

행위하라.'라고 하는 전술한 바와 같은 도덕률에 표현하고 있다.

칸트도 이 도덕률에서 인간이 목적이 됨과 동시에 수단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부도덕한 것은 인간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가치를 몰각(沒却)해서 전혀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들 인간은 서로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내가 자기 일 때문에 비서(秘書)를 고용할 때 나는 그를 자신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그는 사용됨으로 해서 생계를 세워 나간다. 칸트의 도덕률은 우리들이 타인을 수단으로서 당연하고도 필연적으로 사용하지만 타인도 또한 나 자신과 같이 '목적 그 자체'를 이루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비서를 고용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은 나 자신의 그것과 같이 목적이나 감정의 중심이 되고 그것들은 내 것에 내가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존경을 당연히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교시(敎示)하고 있다.

인간의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는 크게 상위한 것인데 그 상위의 첫째 점은 전자는 각자가 본래 자기에게 부여하는 무한하며 대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임에 반해서 후자는 각인이 타인에게 부여하는 유한하며 대체할 수 있는 비교 가치라는 것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의 수단 가치는 사회나 또는 타인의 목적에 소용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 가치는 각인의 능력이나 체력 같은 것이 각기 상위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평등은 인간 상호간에 존재하는 수단 가치의 불평등한 사실을 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권리 평등에서 말미암은 자유를 주장하는 소이(所以)라 하겠다.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와의 상위되는 둘째 점은 전자가 인간에게 있어 고유의 본질적 가치임에 대해서 후자가 부수적이며 기능적 가치라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목적가치는 수단 가치에 의해서 물각할 수 없는 그리고 수단 가치보다도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인간의 제1의(第一義)적 가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의 약점이나 실패나 무능을 즉 다시 말해서 수단 가치에 있어서 열등함을 충분히 자각할 경우라도 인간으로서 열등시되는 것을 승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들은 자기가 목수나 농부이기 전에 우선 인간으로서 평가되고 인간으로서 취급되어질 것을 욕구하는 것이다.

인간 불평등론의 치명적 오류는 이제 명백해졌다. 그것은 본질적인 목적 가치를 완전히 몰각하고 전혀 외형적인 수단 가치만을 가지고서 사람을 전면적으로 평가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데 있다. 불리하게 차별되는 측이 여기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많은 그릇된 평등론도 누구의 눈으로 보든지 분명히 상위하는 수단 가치에 의해서 전혀 인간 평등을 논증하려고 하는 데 잘못이 있다.

인간 평등관이 개인의 무한 가치관이나 나아가서는 동정성(同情性) 및 이성(理性) 우위관(優位觀)에 그 근원을 두는 것은 새삼스럽게 많은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은 전혀 개인의 무한 가치관의 연역(演繹) 내지는 원리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목적 가치의 평등이란 인간이 목적으로서 취급될 때만이 동격적(同格的)으로 대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이 목적이 되고 목적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개인의 무한 가치관의 단순한 별개의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무한 가치관은 우리들이 인간인 이상 여기에서 이탈될 수 없는 인간적 존재의 근본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식욕이나 성욕과 더불어 인간성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의 부정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같이 인간성의 부정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인간의 평등이 '자명(自明)의 진리' 즉 직관적 사실로서 선언된 것은 지당한 것이라 하겠다. 고래(古來)부터 있어 온 많은 평등론은 이 인간성을 부정하는 현존의 차별에 대하여 항의로서 발해진 것이다. 그것들은 비록 논거로서는 미숙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직관하고 경험하는 이 인간성 또는 인간적 욕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선인들의 고심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인간 평등관은 동정성 및 이성 우위관에서도 직접 추출할 수가 있다. 먼저 동정성 우위관에서 이 점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평등의 제언(提言)은 요컨대 다른 사람의 감정, 의욕, 목적 같은 것을 자기의 그것들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해서 동격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감정의 이입 또는 동정에 의해서 타인의 감정이나 목적이 자기의 것으로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동정성 우위관이 기대하는 것처럼 인간의 동정 능력이 개발되어 그것이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동격적으로 취급할 것이다. 애정은 인간을 동격화한다. 사랑과 평등이란 불가분의 것이다. 평등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등의 실천이 있다. 이것은 동정의 원리에 의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목적이나 욕망 같은 것이 자기에게 이입되어 자기의 것과 동일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면 이기적인 거짓 사랑과 구별되는 참된 사랑이란 사람을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전혀 목적으로서 가치를 매기는 즉 욕구하는 데 있다는 소이(所以)가 수공될 것이다.

인간 평등의 진리는 이와 같이 사랑에 의해서 발견된다. 이것은 기독교가 개인의 무한 가치관과 같이 인간의 평등관을 그 기본윤리로 해온 소이다. 그리스 사상은 개인의 무한 가치가 결여됨과 마찬가지로 평등관에도 결여되어 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32)는 현인(賢人)이 지배하며 노예가 봉사하는 계급국가를 이상국가로 생각하였다. 동정성 우위관에 입각한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의 만민의 평등을 주창하는 것은 논리적 필연이라 할 것이다.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밑에 있는 전 인류의 형제들을 가리켜 '너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함으로써 성서는 다른 어떠한 서적이거나 사상보다도 보다 많이 인간 평등관 보급에 공헌한 것이다. 교회가 과거에 있어서 법이나 질서의 옹호자로서 민주주의적 경향과 싸우는 나라의 정통권력을 많이 지지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민주주의가 그 기원을 가장 많이 기독교의 정신적 평등관에 힘입은 것은 다들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자연법 이념에 있어서의 평등설이거나 미국 독립선언서의 '만민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종교적 표현이거나 모두 이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

이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순히 동정이나 사랑에서만이라도 우리들은 평등관에 도달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정은 그 급달(及達) 범위가 좁아서 동정만에 의지한다고 하면 전 인류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다. 동정성만에 의지한다면 우리들은 자기에게 가까운, 보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한층 높이 평가하고 먼 사람은 차별적으로 취급할 것이다. 현재도 우리들은 많거나 적거나 이와 같이 느끼고 이와 같이 행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상을 충분히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 생활에서는 이 같은 가치의 체감(遞減) 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과, 소원한 사람도 가까운 사람과 동격적으로 취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실로 인간 이성인 것이다.

이성(理性)은 인간이 고유 가치에 있어서 모두 동격이며 이 가치에 관한 한 평등한 대우 가치가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이성 우위관이 이상으로 하는 합리주의의 생활에서는 사람은 모름지기 모든 타인을 각기 한 개의 자기 목적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해야 될 것을 인식한다. 이성의 이 같은 인식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평등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나"라고 한 표현과 공통된다.

이상으로서 우리들은 평등의 근저가 사랑과 이성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 없이는 인간 평등의 원리는 인식도 실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본다.

—162면에서—

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소련의 세계 적화 정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직접적 폭력 전술에서 인민전선 전술로 전환하였다. 소련공산당의 새로운 노선은 흐루쇼프 당서기장이 말한 바와 같이 폭력이나 국내 전쟁에 호소하는 직접적 공산화 정책으로부터 자본주의 국가 내의 광범한 근로 인민에게 공산주의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공산주의를 수락시키겠다는 것이다. 흐루쇼프는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전환은 무산대중(無產大衆)의 대중 혁명적 운동에서 일보 후퇴하여 안정된 의회의 다수세력을 획득함으로써 성취된다'고 호언(豪言)하였다. 이후 그들은 폭력 전술을 버리고 인민전선 전술에 입각한 각계각층과의 정치적 제휴로서 공산주의 동조자를 만드는 데 광분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무기관지인 『Kommunist』지(紙)가 1956년 3월 15일에 명백히 한 바와 같이 인민전선에 참가하고 있는 공산당의 목표인 가능한 연합전선 내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단계로는 정부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최후에는 흐루쇼프가 이야기한 대로 그 국가를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결국 공산주의의 기본 노선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다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이 변한 것이다.

(이동현(李東賢) 역)

## 냉전(冷戰) 하(下)

이창순(李昌淳)

- 5. 냉전의 변천 과정
- 6. 현금(現今)의 냉전
- 7. 전망



### 5. 냉전의 변천 과정

냉전의 변천 과정을 주요사건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 트루먼 선언

동서간의 냉전이 계속된 이래 그 초기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트루먼 선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선언은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씨가 전후 소련의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군사적인 압력을 받은 데서 유래한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가 공산 게릴라와의 내전에서 허덕였고, 터키는 극도의 경제적 난국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경제적인 혼란이 야기되어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 대처하여 1947년 3월 12일의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을 가리켜 트루먼 선언이라고 한다. 그 연설의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무장한 소수자와 국외로부터의 압력에 대항하려는 자유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한다고 확신한다. 만약 이 중대한 시기에 그리스와 터키를 원조하지 않는다면 동유럽은 물론 서유럽 제국에 대한 영향은 막대할 것이므로 우리는 속히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미국이 자유세계의 기대에 반하여

그 지도적 역할을 상실한다면 세계평화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복리(福利)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사역 불의 원조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트루먼 선언’이 의회의 찬성을 얻은 지 약 1개월 후 국제 원자력 위원회의 전 미국대표였던 버나드 · 파록 씨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콜롬비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냉전이란 말을 사용하였는데 그 연설의 한 구절을 인용키로 한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냉전의 과중(過中)에 있습니다.”라고 역설하였으며 저명한 시사명론가인 월터 · 리프만은 ‘트루먼 선언’을 지칭하여 냉전의 제1탄이라고 평한 바 있다.

열전(熱戰) 대신에 등장한 냉전은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및 심리전까지도 총동원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경제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은 마셜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7년 7월 12일의 동유럽 16개국이 참가한 유럽 경제위원회와 1948년 4월 16일 창설된 유럽 경제협력기구를 통하여 미국은 유럽에다 약 4년간에 궁(巨)하여 170억 불이란 거액을 투입하여 마셜 장관이 말한 소위 자유 제도의 존속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사정을 호전시켰고 마셜 계획의 성공으로 서유럽 제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재건되어 오늘의 번영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 △ 제네바 거두 회담

미, 영, 불, 소의 4거두가 1955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스위스의 제네바에 모여서 전 세계의 희망과 이목을 총집중중 가운데 회담이 개최되었던 것이다. 이 회담에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영국의 이든 수상, 프랑스의 폴 수상, 소련의 불가닌 수상 및 흐루쇼프와 각국 외상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냉전 이래 누적되어 온 동서간의 국제문제를 토의하여 냉전의 완화와 국제 평화를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며, 4대국인 각기(各己) 독일 문제를 비롯하여 유럽 안전 보장 문제, 군축 문제, 그리고 동서간의 교류 등 네 개의 중요 의제를 제안 토의하였다. 서방측의 군축안 제안에 대하여 불가닌의 군축안, 유럽 안전보장을 위한 완충지대의 설치를 포함한 이든안, 그리고 군축에서 절약되는 돈을 후진국 개발에 쓰자는 폴안 또한 미소의 군비 리스트를 상호 교환하고 공중사진을 촬영하자는 아이크만 등이 그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4대국 수뇌들은 모든 의제에 대하여 진중하게 검토하였으나 그 결과는 심각하고도 강경한 대립으로 일관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대립 속에서도 원수폭(原水爆) 시대에 있어서는 공존 이외의 다른 길이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으며, 상호 전쟁이나 공격의 의도가 없음을

상대편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서로 미소로서 촬영도 하고 악수도 교환하고 오찬회도 같이 하였다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도 결국 냉전하의 ‘힘’의 외교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실지 문제에는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한 채 3개월 후인 1955년 10월에 4대국 외상회의로 모든 의제를 넘겨졌으나 외상회의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오히려 소련 세력의 중동 특히 이집트에의 진출로 영·불을 자극케 하여 회담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로 완전히 결과 없는 회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1957년 10월 4일에 소련이 발사한 스푸트니크 제1호 인공위성은 사상 최초로 96분 만에 한 번씩 지구를 선회한 것을 말한다. 3일 후인 10월 7일에 흐루쇼프는 모스크바의 동독대사관 파티석상에서 말하기를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과학과 문화가 얼마나 향상하는가를 세계는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큰소리를 치게 되었고 소련은 이를 배경으로 냉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지는 소련의 스푸트니크 성공을 평하여 “인공위성으로 인하여 소련이 즉각적으로 강하고 미국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중요한 것은 과학 분야에서 미국이 소련에 대하여 뒤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인공위성 그 자체는 병기가 아니지만 이것을 쏘아 올린 것은 대륙간 탄도유도탄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기 약 2개월 전인 8월말에 소련은 이미 이 ICBM으로서 미 본토에 수폭(水爆)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호언하였던 것이 허위 아닌 진실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서방측이 받은 심리적 타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껏 계속하여 온,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략 공군력을 위한 대량보복정책과 이에 따르는 군사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6. 현재의 냉전

1955년의 4거두(巨頭) 회담 이래 동서 간에 가로놓인 여러 가지 국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서 파리에서 1960년 5월 16일 4대국 수뇌들이 참가하는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정상회담을 가지려는 미소 양대 수뇌들의 결의는 다음과 같은 성명에서 엿볼 수 있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작년

5월 연두(年頭) 교서에서 “우리들은 불안과 위기의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핵무기에 의한 파멸의 과정에서 휩쓸려 들게 되는 광적인 행동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미국 소련과 함께 진지하게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흐루쇼프도 1960년 1월 소련 최고회의에서 요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긴장한 국제문제에 대하여 이해하며 서방 강대국 지도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중략……새로운 전쟁이 어떠한 파괴를 초래케 할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소 양국 수뇌들의 정상회담 개최 희망과 아울러 영불 수뇌들도 이에 못지않은 노력으로 그 결실을 보았던 것이나 뜻밖에도 회담 초부터 소련 수뇌 흐루쇼프의 비협조적인 강경한 태도와 작년 5월 1일 미국의 첩보용 항공기의 소련 영공 침범으로 발생한 U-2기 사건이 직접 원인이 되어 희망에 찬 정상회담은 실패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표면상의 이유로서는 흐루쇼프가 동서 수뇌회담을 속행하는 조건으로서 U-2기 문제에 대한 아이크의 사과와 U-2기 사건에 대한 직접책임자의 처벌과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보장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 아이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더 근본적인 것은 1961년 1월에는 정식으로 아이크가 대통령직으로부터 물러나게 될 것을 아는 흐루쇼프는 아이크와의 교섭은 하지 않으려 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는 아이크의 소련 방문 초청을 소련이 정식으로 철회하였다는 사실이다. 흐루쇼프는 사실 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을 원치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3개년에 걸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그가 3일간으로 정상회담을 결렬시켰다는 사실이다.

### △이에 대한 좋은 논평으로서

전 미국대통령 트루먼 씨는 『냉전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NANA 통신에 기고한 논설 가운데 “이른바 정상외교는 무가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앞으로 UN을 통해서 세계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흐루쇼프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그것도 자기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미국과는 이 이상 협상할 수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뻔뻔스럽게도 국내 문제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려 하였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파리 정상회담은 애당초부터 자유세계를 분열시키고 NATO를 비롯한 기타의 방위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



"현 정세가 불길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인은 소련이 전 세계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려는 행동은 감히 못 하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우리는 절대로 유화(有和) 정책을 굴복하지 않는 동시에 UN을 통한 평화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상은 현재의 냉전으로서 표면상에 나타난, 동서 간의 극히 중요한 것을 논한 데 불과하다. 오늘날 이 냉전은 세계 도처에서, 그것도 공산 대 자유 진영 간의 냉전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자유 대 중립 진영 혹은 공산 대 중립 진영 간에도 역시 냉전이 부단히 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산 진영 내에서도 소련 대 유고, 소련 대 중공과의 관계에 있어 정치, 경제 등 각종 형태의 냉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외교 및 경제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는 모두 냉전이라고 호칭하여도 좋을 것이다.

호루쇼프는 작년 7월 8일 오스트리아(奧地利)의 비엔나를 방문했을 때의 기자회견석상에서 "만약 베를린에서 서독 연방회의가 개최된다면 소련과 동독은 단연 서부 독일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공공연한 협박은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베를린 위기를 조성하려는 기도(企圖)임이 명백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호루쇼프는 또한 서독 의회가 베를린 시에서 소집된다면 소련은 동독 정권과의 독단 강화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 국무성 대변인 링컨 화이트 씨는 "소련이 이와 같이 자유세계 국가들의 국내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다."라고 논평하였고 서독 정부 대변인은 소련의 이와 같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호루쇼프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에 대하여 쿠바에 대한 압력을 중지하라고 말하고 쿠바로부터 손을 떼지 않으면 소련은 미국을 로켓으로서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호루쇼프의 폭언은 쿠바 수상 카스트로가 쿠바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소유재산을 몰수함으로써 극도로 악화된 미국과 쿠바 간의 분쟁의 확대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쿠바를 공산화함으로써 남미 제국을 자유 진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동시에 쿠바에 잠수함과 미사일 기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되는 경우 미국의 방위에는 중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냉전은 정상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더욱 격화할 것이 예상되며 긴장 완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럽에 있어서의 베를린의

위기와 아울러 남미와 쿠바를 둘러싼 미소간의 각축은 국제정세를 점차 악화시킬 가능성이 점고(漸高)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시한성 폭탄도 불발탄이 되고 말았다. 이제 호루쇼프가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세리후(자본)를 반복 주장하고 자유 진영에 대하여 화전(和戰)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으나 서방측의 확고한 결의 앞에 역시 불발탄이 되리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다.

## 7. 전망

2차 대전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간 17년간 계속되어 온 냉전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명제는 강대국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모든 사람의 큰 관심사일 것이다.

지금까지 냉전의 발전 과정에서부터 그 변천 과정과 역사적인 여러 사실을 고찰한바 있거니와 이 냉전이 언제까지 어떻게 계속될 것이냐에 관해서 아무도 정확하게 전망할 수는 없으리라고 사려된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전 부통령 리처드 닉슨 씨가 한 말을 상기하고자 한다.

그는 작년 5월에 열렸던 아이크, 호루쇼프의 동서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발표한 한 성명 속에서 말하기를 자유세계는 지금 정상회담의 결렬에 뒤이어 소련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냉전이 앞으로 50년이 경과해도 해결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닉슨 씨의 이 말은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간 동서 간의 냉전이 계속될 것으로 본 말이거니와 필자의 생각 역시 미소 양 대국과 그밖에 여러나라들이 세계평화를 위한 어떤 효과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부득이 냉전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며 오늘날과 같이 미소가 핵폭발을 경쟁적으로 단행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조건을 앞세우고 베를린 문제를 내놓고 라오스와 베트남 그리고 콩고 등지에서 공산주의 세력 부식(扶植)에 광분하고 있는 소련이 내일 또 어디서 무엇을 조작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 위성국 소련이 거의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핵실험을 하게 되자 서방측보다 더욱 놀란 것은 공산 위성국들이었으며, 공산지도자들은 전쟁의 공포를 무마하기 위한 연설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무시무시한 농담이 있다.

"핵전쟁이 시작되면 어찌겠소?"하고 어느 공산당원이 묻자

"흰 흙이불을 쓰고 무덤으로 천천히 걸어가려오"

"어째서 천천히 걷는 것이오?"

"소동이 일어날까봐 그렇소."

## 군인의 사기(士氣)와 전력(戰力)

이강화(李康和)



사기가 군인에게 절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이 사기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원인은 사기가 정신적 심리적 효소로서 용이하게 외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부단한 주의와 노력 없이는 사기의 정도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사기의 영향은 간접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무형적인 사기에 대하여 관심이 소홀해지기 쉽다. 사기는 전력의 활소(活素)로서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는 것은 구태여 고증을 필요치 않는다. 사기는 비단 군인에게만 절실한 요소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부터 하여(何如)한 형태의 사회단체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목적하는 업무수행의 능률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전력요소로서 정신적 요소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클라우제비츠(Karl Clausewitz)가 심리적인 요소를 모든 전력요소보다 가장 중요하게 다룬 이후부터이다. 사기가 전력요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되는 가능성을 초월하게 되는 데 있는 것이며 제전력(유형적 무형적) 요소의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국 간에 전략목표의 하나로서 적국의 내부 분열과 민심을 교란하여 적국민의 사기를 저하시켜 국민의 사기가 직결되어 있는 군인의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치게 한다. 오늘날 미소 양대 진영이 전개하고 있는 심리전은 적 진영의 사상,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약점을 노려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동란 시 일선지구(一線地區)에서 북한괴뢰군에게 살포된 각종의 빠리는 상당한 심리전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던 것이다. 군인의 사기 저하는 결국 강인한 전투 의욕의 상실이다. 신념과 사기가 저하된 상태로써 임전(臨戰)하는 때 백전백패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전력요소로서 사기가 전략이론으로 대두된 것은 클라우제비츠 이후이다. 그 이전에도 유능한 장군들은 여러 가지 표범으로서 취하 장병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사기를 앙양(昂揚)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사(古事)를 통하여 잘 알려진 일이다. 전략 원칙은 만고불역(萬古不易)한 것이 아니고 각국, 각시대, 각군에 따라 변경되나 전력 요소로서의 사기는 고금을 막론하고 중요시되어 왔다. 나폴레옹은 그의 유명한 115개 전쟁 원칙 중 5개 원칙을 사기에 할당하였고 근대 병학의 시조인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저서 『전쟁론(戰爭論)』에서 전략적 요소를 정신적, 물질적, 수학적, 지리적, 통계적 요소로 들어 정신적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스탈린도 1941년에 전쟁 원칙을 후방의 안전, 군의 사기, 사단의 양과 질, 군의 장비, 지휘관의 편성 능력으로 구분하여 그 중요성을 들었다. 현대의 대전략가인 영국의 리델 하트(Liddell Hart)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이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공헌은 심리적 요소를 강조한 데 있다고 찬양하였다. 전략가에 따라 전력 요소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상 전력, 경제 전력, 정치 전력, 무력으로 구분한다. 4개 전력 중에 사상 전력에 군인의 사기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신적 전력 요소라는 범주에 양자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 전력 요소 중 약한 전력 요소에 대하여 보강책으로서 부분 전력을 강화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2차 대전시 일본이 정신력을 강조한 것은 경제 전력면에서 있어서 연합군보다 현저하게 열등하였던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일본은 패하였지만 강력한 정신력 때문에 장기간을 대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사를 통하여 고려군의 을지문덕(乙支文德), 이조(李朝)의 이순신(李舜臣) 장군은 당시의 제반 전력 요소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대적을 물리친 것은 장병들의 필승의 신념이 확고하고 사기가 충천하였기 때문이다. 지휘관의 사기는 곧 부하장병의 사기이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스스로 확고한 신념 위에 왕성한 사기의 소유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하를 통솔할 때나 부대 업무를 처리할 때 항상 부하 장병의 사기에 끼치는바 영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기에 관한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지만 각 참모의 책임권 내에도 사기 진작을 보조하는 역할이 있다. 각 참모는 직무상 직접 간접으로 사기에 대하여 강한 영향을 주는 기회가 많다. 관계참모는 사기 앙양을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기를 가능한 한 최고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휘관은 사기 앙양을 위한 계획을 작성, 실행하며 수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계속되는 병영 생활에 취미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는 후생(厚生), 정훈(政訓), 상전(賞典), 우편업무, 오락 설비, 휴가, 위생 감독, 인사업무, 운동, 훈련, 종교 등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생:** 후생은 인간의 능률을 증진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과정으로서 구성된다. 후생은 식량, 피복, 숙소 등 기본적 필요 및 욕망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후생 활동의 목적은 부대에 요망되는 높은 사기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서비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의료적, 정신적, 경제적인 것과 그리고 개인적인 휴양 등이 있다.

**상전:** 엄격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실시하여 유공자 또는 모범용사들에게 상장, 훈장, 또는 특전을 부여하고 부대 운영에 있어서 폐해적인 존재는 가능한 한 선도하고 이에 효력이

없는 자는 엄벌에 처하여 구분을 확실히 함으로써 유공자 또는 모범용사의 사기를 높인다.

**정훈:** 모든 가능한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지도활동으로 군인 정신의 함양을 도모하고 정훈 교육을 통하여 확고한 사상을 주입시켜 군이 지향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밝혀주며 정신무장을 공고히 하기에 진력하여야 한다.

**우편:** 우편물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일선지구나 벽고지(僻高地)에 배치된 장병들에게는 우편물이란 절대적인 위안물이므로 절실하게 기다려지는 것이다. 우편물 취급자는 신속, 정확하게 이들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오락:** 오락시설을 구비하는 것은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취미를 살려 여가를 즐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락 취미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오락에 대한 관심이 외국에서는 높아졌으나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 감이 있다. 일을 능률적으로 하고 일하는 데에 소모되는 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는 일하는 여가에 적당한 오락을 가져 심신의 휴식을 갖도록 할 것이다. 흔히 장기, 바둑만이 오락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직업적인 업무 외에 정신적 및 육체적 즐거움으로서 다음 취업 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모두 오락인 것이다. 고로 지휘관 또는 참모들은 건전한 오락물을 연구하여 장병에게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휴가:** 병영 생활은 엄격한 규율 하에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휴가와 외출은 영내자(營內者)에게는 최대의 관심사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 또는 외출을 금지시키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가 될 것이다.

**위생:** 제반 부대시설에 대한 위생 감독을 하여 안심하고 침식과 휴식,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각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사:** 공평무사한 인사관리를 하여 불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사 장교는 사기 양양, 활동의 조정 및 감독의 책임을 지고 인사 조치, 물질적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감독은 개인과의 면담과 지휘를 통하여 임무를 능률적으로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정신 상태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운동:** 운동경기는 체위(體位)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단체경기를 통하여 상호친선을 이룩하고 협조심을 여러 면으로 양양하는 등 의의 있는 것이다.

**훈련:** 행군 및 집총(執銃) 훈련 등 적절한 훈련은 사기 양양에 도움이 된다.

**음악:** 음악은 정서적인 감화를 줄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가치도 있어 많은 단체에서는 그 단계 고유의 음악을 만들어 단체의 기본 정신으로 단합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군가는 사기 양양에 기여하는 바 크다.

**종교:**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육체적으로 쇠약한 자를 정신적으로 안정시키고 사기를 양양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개인의 정신적 불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나 개인은 단체를 형성하는 단위체이므로 이들의 지도 편달이 등한 시되어서는 안 된다.

전력을 강화하려면 경제적인 배경이 튼튼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군인은 우선 직접적인 전력 증강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왕성한 전투의욕을 갖고 진군해 나갈 수 있고 맡은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왕성한 사기 양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양양 방법은 앞에 들은 것 외에도 장신구, 피복, 장구(裝具), 표식, 훈장 등 직접으로 전투원의 사기 양양에 실용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많다. 각 지휘관은 부대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기 양양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사기가 저하된 군인은 전투원으로서의 값어치가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필승의 신념이 있을 수 없으며 필승의 신념이 없는 군인을 가진 국가의 앞날에는 패망 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으므로 군인의 사기를 양양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전력을 보강하고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토록 전력 요소로서 사기를 중요시하는 것은 사기가 초인간적인 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휘관은 모름지기 이 마력을 사용할 줄 아는 마법사가 되기 위하여 부단한 관심과 정열을 가지고 전력 함양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筆者) · 공군대학 부교장〉

### ☆중남미의 공산세력

△ 칠레=총인구 732만에 공산당원 약 3만 명으로 인민 전선파(戰線派)와 더불어 불법화되어 있다. 이 나라의 공산세력은 중남미에서는 활발한 편이지만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정국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칠 정도는 못 된다. △ 콜롬비아=합법정당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당원 약 5천 명. 국회의 의석은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렇다 할 활동도 없다. 총인구는 약 320만. △ 코스타리카=당원 약 300명에 공산당은 1948년에 불법화하였다. 정식 명칭은 인민전위당(人民前衛黨). 이 나라는 총인구 103만 여의 소국이며 국민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어 개인 기업이 발달되고 있다. △ 도미니카=공산당은 없으나 야당 세력 속에 약간의 공산동조자들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는 270만이다. △ 에콰도르=당원 약 1천명. 2석의 국회의원이 있다. 총인구 390만. 자유 경제체제가 발달되어 있다. △ 엘살바도르=약 1천명의 공산당원이 있다. 이 나라는 소수의 재벌이 전 국가경제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성해질 소지가 있다. 총인구 235만. 1950년에 공산당은 불법화하였다. △ 과테말라=약 200명의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1954년에 공산주의자들이 일시 정권을 잡았으나 아르메스 대령이 영도(領導)하는 반공세력에 의해서 축출되었다. 총인구 335만. △ 하이티=총인구 338만.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 활동은 없고 극히 미약하다. 이 나라는 5년 전까지 독재 밑에서 신음한 빈곤한 나라이다. △ 온두라스=약 400명의 당원을 가졌던 공산당은 1946년에 불법화하였다. 이들은 최근 미국인이 경영하는 주조공장에서 파업을 선동한 바 있다. 총인구 176만.

## 내가 마지막 본 모스크바

—〈나는 모스크바 유학생이었다〉—

이 글은 젊은 아프리카인 학생이 모스크바에 체류하면서 겪은 생활을 엮은 것이다. 교육을 받고자 소련에 간 그는 자기가 국제공산주의의 도구로서 이용됨을 깨닫고 소련을 탈출했으며 지금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 나는 국제 음모다의 도구가 아님을 하느님께 감사한다.” (역자 주)



에베레스트·무레게지  
한기욱(韓基旭) 역

카 이로 주재 소련대사관의 젊은 문화관은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모스크바대학 장학금에 부수되는 특전을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우리들은 소련으로 가서 6년간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월 생활비로서 900루블(공정 환율 \$225) 의복대(衣服代)로서 3,000루블을 지급받고 매 2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모국 방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은 다만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는 당신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가로서 우리는 당신네들이 습득한 지식으로서 당신네들이 자신의 운명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라고 공산관리는 말하였다.

때는 1959년 10월 6일이었다. 수년간을 통한 영령(英領) 동아프리카의 조국 구간으로부터 카이로까지의 2,900마일의 주저와 실망의 여정 끝에 나의 사촌인 고로다노와 나는 철의 장막의 배후에서 무료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다. 교육이란 아프리카인에게에는 신에 의한 기적과 같은 것이며 자신과 조국의 존엄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전에 나는 워싱턴대학에서 1년간 수학하는 장학금을 받게 된 적이 있었으나 내가 여비를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국정부에서 여권을 발급치 않았던 것이다. 이제 소련에서는 학비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까지도 모두 지불하는 것이다.

### 소련의 호의

모스크바에 도착한 우리들은 전체 학생과 분리된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및 라틴 아메리카인 등 천을 헤아리는 우리들은 대학에서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세워진 두 개의 5층 건물에 수용되었으며 문에는 보초가 있었다. 우리들의 방은 가로 14피트 세로 16피트 넓이의 것이었으며 각 방에는 4명씩 수용되는데 둘은 우리를 외국 학생이고 나머지는 선발된 소련학생이었다.

첫날 아침 목욕을 하려고 일찍 일어났던 우리들은 수요일 저녁 5시부터 11시까지밖에 더운 물이 나오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불편쯤 우리는 개의치 않았다. 우리들은 배울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몇 주간을 통해서 소련 정부의 선전원들이 기숙사에 끊이지 않고 나타나서는 해외선전을 위한 사진을 달라고 하고 모국으로 방송을 하기위한 녹음 성명을 요구하였다.

“이곳의 모든 것이 서방의 식민주의와 얼마나 다른가를 말하는 것이 어떻소?” 라고 어느 면담자가 말하였다.

우리는 친선대회라는 것에도 참석하였으며 열광적인 군중에게 우리가 소련에 와서 구제를 받기 위해 필사적인 모험을 한 영웅으로 소개되었다.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우호적이었으며 우리는 악수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고 하였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네 가정으로 초대했으며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 증명의 제시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 우리는 사진을 촬영했으며 신상 조사를 기입하고 신분증과 통행증을 만들어야 했다. 학교 내에 들어가는데 통행증을 제시해야 했으며 32층의 교사 건물에 들어가려면 또 다른 통행증을 제시해야 했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통행증으로 또 다른 것을 가져야 했다. 한 번은 친구들을 무심코 기숙사로 초대했는데 통행증이 없었기 때문에 문에서 되돌아갔다.

언제인가는 기사(技師)인 친구에게 해외에서 보내준 입을거리들을 주었더니 그는 그러한 것들을 나 혼자만 보고 자기 집에도 오지 말아달라고 했으며 “통행증을 당신네들에게 준 것은 당국이 자기들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당신네들을 접촉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라고 그는 경고했다.

### 공산주의 교육과정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레닌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으로부터 공산주의 역사 그리고 흐루쇼프를 평화의 사도인 양 묘사한 전기물에 이르는 자료들을 교재로 하여 3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다섯 시간씩

소련어를 배웠다. 나의 사촌과 나는 언어 시험에 합격하면서부터 정규강의를 듣게 되었으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 6일씩 청강했다. 모든 과정은 사상교육으로 채워졌다.

교수들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가 냉담한가 또는 공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으며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등급 및 대우가 결정되었다. 강의의 내용은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것을 그럴 듯하게 암시했다. 언젠가는 역설이 아닌 사실을 알고 싶기에 강의에 참석할 것을 거부했더니 대학에서 제명 처분 하겠다고 위협했다.

### 아프리카의 허수아비

언젠가는 ‘우간다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다. 나와 함께 다른 4명의 우간다 학생들은 균장을 뚫고 단으로 끌려 나갔으며 그곳에서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영국을 욕하는 연설을 막 시작하고 있었다. 생면부지의 어떤 자가 우리들의 이름으로 우간다의 독립과 영국과의 단교(斷交) 및 소련과의 친선을 골자(骨子)로 하는 결의안을 투표에 회부했다. 우리가 미처 입도 폐기 전에 결의안은 채택되었으며 소련배우들이 둘러싸고 우리의 행동을 찬양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모국으로 방송하기 위한 녹음을 했다. 순식간에 이러한 모든 것이 끝났으며 우리들 우간다인들은 멍청하게 화가 나 있었다. 이것은 다만 하나의 예인 것이다.

이와 같은 날로서 ‘나이지리아의 날’, ‘기니의 날’ 등 아프리카 각국의 날이 따로 있었으며 게다가 ‘전 아프리카의 날’까지 있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했다. 대학에 있던 모든 아프리카인들은 다만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 반항

소련 당국은 우리들 전원을 좌익적인 아랍과 수단이 지배하는 아프리카-아랍 연맹에 가입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가입을 거절하고 흑인만의 전 아프리카 학생연맹을 결성하였다. 그곳에는 우간다의 학생 이외에도 에티오피아인과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의 수도)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젊은 케냐인도 있었다. 기니의 학생들은 모국에서의 강력한 공산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반소(反蘇)주의자였으며 소말리아, 카메룬, 콩고, 말리, 나이지리아 및 토고 등지의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 있는 거의 전 아프리카의 학생들이 반소적이었다. 더욱이나 많은 수단인, 모로코인, 튀니지인 및 이집트인이 우리에게 동조하였다. 대학의 부학장인 이 바노브 박사가 우리들 중 몇 명을 사무실로 불러 들어서는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우리는 당신네들의 연맹을 인정할 수 없소.”라고 외쳤다.

그러나 우리는 회의장으로서 객실을 이용하면서 모임을 계속했다. 학교 당국에서는 매수(買受)로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그들에게 협조적인 아프리카 학생은 학교 내의 좋은 숙사로 이사되었고 나머지는 처벌을 받았다. 친선 열차에 타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의 일부로서 약속된 1,500루블의 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친선열차란 다름 아니라 지방을 순회하며

지방민에게 즐거워하는 외국인의 인상을 주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타지 않았다.

우리들의 소련인 동거자들은 우리들을 공산주의로 인도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의 지방어들을 배우도록 지명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수년 후 그네들을 아프리카에 기술자나 외교관으로서 파견하고 우리들은 모국에서 그들을 맞아 공산 활동의 동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교리를 듣기에 지쳐버린 우리들은 모스크바에 올 때 가지고 온 재즈곡의 레코드를 들었으며 레코드 소리가 나자 소련인 학생들도 몰려와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흥에 겨워서 들었다. 보리스라고 하는 소련인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작곡가에게 이런 음악으로 작곡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요? 소련에서는 그런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요”

“이런 것을 작곡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모든 음악가들은 마음대로 작곡하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상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하고 내가 대답했다.

###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으며 다음날에는 자기 방으로 우리를 초대해서는 또 다른 토론을 하고 또 음악을 들었다. 토론은 보리스가 말하는 소위 ‘미 제국주의’에 관한 것으로 진전되었으며 보리스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이 비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침략행위라고 말했으나 소련의 위성국 지배와 식민주의는 어디에 두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보리스는 당황했다. 이러한 나의 주장을 예증(例證)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보내준 미국이나 영국의 발간물에 게재된 뉴스를 인용했다. 그리고는 신문과 잡지를 시간이 있으면 직접 읽으라고 보리스에게 주었다.

이러한 토론이 수주간 계속되었으며 결국 어느 날 저녁에 보리스는 말을 하지 않고 팔에 얼굴을 묻었다. 그가 얼굴을 들었을 때는 그는 긴장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요, 우리는 서방인이 마음대로 읽는 것을 읽을 자유가 없으며 서방을 방문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조차도 허가 없는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라고 보리스는 말했다.

“이런 바보! 보리스, 그런 생각을 하면 못 써.” 그의 소련인 동료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외쳤다.

모스크바대학에 다닌 모든 아프리카인 학생은 누구나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 소련은 공식적인 토론의 방법을 활용치 않는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에서 매일 밤 소련인 학생과 아프리카인 학생들이 비밀 결사의 단원들처럼 한 방에 6명 내지 12명씩 모여서는 방해물 하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그고 세계 문예 및 철학 등을 열심히 토론한다. 약간의 소련 학생들은 푸라우다(Pravda)의 사설을 인용했으나 또한 많은 소련 학생들이 보리스처럼 결국에는 그들 자신 및 공산주의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 단속

결국은 학교 총장이 현상을 알게 되었으며

재즈 레코드의 감상 및 일과 후의 토론을 금지하는 지시가 시달(示達)되었다. 우편으로 우리에게 송달되던 잡지 및 신문도 끊어졌다. 소련어과의 데칸 크진 교수가 노골적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즉 우리들은 학생들이 학비를 부담(自擔)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하여서는 안 되며 소련정부에서 학비를 부담하여주는 우리들은 그들의 지시대로 행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숙사의 각층마다 소련공산 청년 연맹인 콤포솔 위원회가 전 소련인 학생의 사상을 검토했다. 콤포솔은 그들 소련인 학생들에게 종신 노동을 의미하는 추방과 요주의 인물의 낙인을 찍는다는 위협으로서 우리들과의 교제를 금지시켰다.

불유쾌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콩고의 미첼 아위는 학교의 구내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다가 제지당하고 항의했다. 그러니까 소련인 학생이 소리쳤다. “네가 무슨 말할 거리가 있단 말이야? 너는 인간이 아니라 까만 원숭이란 말이야!” 한 번은 내가 모스크바의 중심가를 걷고 있으려니까 깡패가 따라오며 비웃고 밀치며 싸움을 걸었다. 내가 상대를 한다면 몰매를 맞을 것이 분명했다. 어느 날 밤 케냐인 학생 벤자민 옴부터가 버스 정류소에서 소련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경찰관이 보고 제지했다. 또 파티 석상에서 오마 카리고라는 소말리아인 학생은 공산주의 학생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정신을 잃도록 얻어맞고는 2주간이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 불상사의 연발

결국은 모스크바대학에 있는 아프리카인 학생은 가을에 외국인만을 위한 친선대학으로 전학될 것이라는 소문이 1960년 가을에 유포되었다. 아프리카의 14개국 학생이 참가하는 아프리카 연맹에서는 우간다에서 온 2학년에 재학 중인 의학생 스텐리 오모오겔로 하여금 아프리카인 학생을 차별대우치 않고 친선대학에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고등 교육자에 내도록 결의했다.

소련 당국에서는 서한에 대한 답으로서 스텐리는 추방했다. 스텐리가 런던에 도착하여서는 모든 사실을 언론인들에게 공표했다. 그러나 소련정부에서는 스텐리가 타락한 인간이며 술주정뱅이고 제국주의 단체에 가담했다는 허위 선전을 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자에게는 1,000루블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소련정부의 선전관리가 기숙사 안을 쏘다녔다. 이러한 공작을 2주일간이나 맹렬하게 전개했으나 불과 34명만이 이에 매수되어 서명했다.

이쯤 되고 보니 아프리카인 학생은 모두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는 그다지도 매혹적이던 공산주의의 내막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들은 아프리카 각국 정부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으나 소련정부는 중간에서 이를 가로챘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 아프리카인 학생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소련을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 서방으로 가는 길

우리들은 서방국가의 대사관에 몰려가서는 서방의 어디라도 좋으니 장학금을 달라고 호소했다. 서방 대사관의 관리들은

처음에는 소련정부의 아프리카인 학생 교육을 방해치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하였으나 반복하여 요청하자 결국 서독대사관에서 나의 사촌과 나이지리아인 학생 데오 오공귀 그리고 토고인 학생 미첼 바위에게 장학금을 제공해 주었다. 영국대사관에서는 영국 여권을 가진 우리나라 학생 앤드류 리처드 아버가 소련으로 오기 위하여 포기한 영국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다.

나는 결국 영국 정부의 여권만 받으면 나에게 협조를 하겠다는 미국대사관의 언질을 받았다. 나는 영국 정부의 여권을 얻었으며 전에 나에게 장학금을 제공키로 했던 워싱턴 주립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1960년 10월에 모스크바를 떠났다.

내가 다니던 모스크바대학의 총장은 나와 닷새 동안이나 다툰 후 내가 후회할 것이라고 하며 출국 허가를 주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후회치 않으며 또 영원히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물론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러한 인종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으나 소련에서는 인종차별이 국가정책인 것이다. 또한 오늘날 내가 받고 있는 경제적 원조를 내가 소련에서 받던 것과 비교한다면 훨씬 적은 것이지만 국제적인 음모단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미 국민의 호의에 의하여 내가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느님께 감사한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 국무성에서 나의 비행기료 밖에 부담할 수가 없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고 학교에 전화를 했으며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자문관인 도로서 캠프 씨가 학생 자조회, YMCA, ROTC 및 학생들을 통해서 밤을 새워 가며 나를 위해 돈을 거두었다.)

나는 행운아이다. 지금 수백을 헤아리는 젊은 아프리카인이 피로와 실망에 쌓여 동유럽을 방황하고 있다. 그들은 모스크바대학을 떠날 용기를 가지고 있으나 그곳을 떠나서 서방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이 헛수고로 그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철의 장막 배후에서 교육을 받는 아프리카 학생 수는 지금 소련의 원조 계획의 강화에 의하여 1,000명 혹은 1,500명을 헤아리고 있다.

나는 이들 젊은이들에게도 나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자유세계 특히 중립국들은 소련이 그들을 방문하는 외국 학생들을 어떻게 대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우리들의 공산주의 비판이 다른 학생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모스크바에 있는 아프리카 학생 연맹의 집행위원회는 전 아프리카인의 이름으로 소련 위정자의 아프리카인 학생 및 기타의 외국 학생 취급에 있어서의 기만, 위협, 압력, 잔인성 및 차별에 대한 전 아프리카 제국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다. 새롭고 위험한 식민주의 및 차별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있으며 이것은 아프리카의 장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식민주의는 기만적인 선전과 원조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우리가 만났으며 우정을 나누는 소련 국민을 중요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를 폭력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야욕에 가득 찬 소련독재자 및 그들 추종자들을 중요하는 것이다.”

(끝)

## 공산주의 세미나 ①

프랭클린 L. 버넷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정치문제연구소 소장인 프랭클린 버넷(Franklin L. Burdette) 교수의 저서 『A Primer on Communism』의 제1장의 편역이다.

저자는 이 저서에서 국제공산주의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문제 200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간명한 해답을 줌으로써 공산주의의 본질과 성격 및 그 정책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비판한 다음 최후로 이러한 공산주의와 어떻게 대결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논급하고 있다.

여기에 실리는 글은 그 첫 장 공산주의의 본질에 관한 부분이다.

1.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2. 현대 공산주의의 기원은 무엇인가?
3. 공산주의 하에서 개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4. 공산당은 언제나 공산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가?
5.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이며 그들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6. 공산당 활동은 어떤 사람들이 시작하는가?
7.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8.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9. 오늘날의 공산당은 그 목표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 〈제1장〉

## 본질(本質)

### 1.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선 공산주의란 생산과 분배의 모든 수단이 소위 인민 또는 국가에 의해서 공동으로 소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마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소유의 한계는 반드시 개인의 사유재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보아 공산주의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적 전제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모든 인민은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

을 위하여 노동해야 하며 이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그 생산물을 분배받는다.

2. 모든 형태의 노동은—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무계급사회 내에서 동일한 중요성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렇게 되면 계급적 구분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집중화된 권력은 불필요한 것이 되고 국가는 자연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의미의 공산주의는 지상 어느 공산주의국가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 이러한 경지에 도달되리라는 아무런 징조도 없는 것이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을 위한 설비, 장구(裝具) 등 일체의 생산수단이 국가 또는 그에 대리되는 것 예컨대 국영농장 같은 것에 속해 있다.

소련에 있어서 토지는 물론 국유이며 그 사회는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고도로 집중화된 권력체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적 물질적 자원은 복잡한 통치기구를 통하여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기구는 궁극적으로는 지도층에 있는 몇 사람에게 의하여 좌우되는 공산당이 전단(專斷)하고 있다. 또한 각 개인은 그가 종사하고 있는 노동의 성질과 봉사의 종류에 따라 계급이 분화되며 또한 관료적 계급제도 내의 개인적 지위에 따라 그것의 상하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련과는 달리 소위 인민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동유럽 제국과 공산중국 그리고 북부 베트남 및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상급(尙尙) 소련에 비하여 그 공산주의적 경제체제가 미숙한 단계에 있다. 이러한 나라들 중 일부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과 개인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궁극에 가서는 소련과 유사한 전체주의 국가를 조출(造出)하려는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공산주의 교설(敎說)은 소 연방 외부의 몇몇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사회주의로 가는 다른 길(공산주의)이 있다고 하는 주장으로 약간 전진한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이 안출(案出)한 이러한 주장은 공산주의의 본질의 변형이 아니라 공산주의로 가는 단계의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2. 현대 공산주의의 기원은 무엇인가?

공공 소유에 관한 학설은 여러 세기에 걸친 계승자와 실험자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원시사회에서 토지가 공동으로 경작되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마스와 엥겔스의 교설은 이보다 19세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19세기 중엽까지는 자본주의의 발달이 마스의 계급투쟁론을 지지할 만한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다.

마스는 자본주의와 그의 내적 모순에 관한 그의 과학적 분석 속에서 무산계급(無産階級)과 자본계급(또는 재산소유자들) 사이의 계급투쟁이 점점 더 가열해 질 것이라고 믿었다. 마스는 이 투쟁의 결과로서 무산계급의 혁명이 일어나 하나의 새로운 단계의 사회—곧 공산주의—가 재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리하여 막스와 그의 동료 엥겔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출판하였는데 이 속에는 나중에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전용된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918년 레닌에 의해서 영도된 볼셰비키(Bolsheviki)당은 그의 이름을 뒤에 소련 공산당이라 부르게 된 전 러시아 공산당으로 변경하였다.

### 3, 공산주의 하에서 개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공산주의 하에 있어서는 각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받는 임금 또는 그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불만을 말할 수 없다. 그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한 휴식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그와 그의 부인이 원하는 자녀들을 마음대로 양육할 수도 없다.

공산주의 하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통 정도의 가정주부들은 누구나 가외(家外)에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련 내에서 부녀자들은 막대한 양의 중노동과 비숙련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내에서의 개인은 실질적으로 그 자신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다만 주어진 정치제도를 무한정하게 용인하는 권리만이 허락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각 개인은 엄중한 각종 정치적 감독과 경찰의 감시 하에 놓여 있으며 결국 개인이란 전적으로 국가의 자비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된다.

경찰의 감시는 소련에서는 약간 이완되었으나 중공에서는 일층 강화되고 있다.

공산주의 제도는 개인의 필요나 원망(願望)에 대해서는 전연 배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노동자와 농민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법령이나 조치가 있을 뿐이다. 즉 때에 따라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에게 약간의 양보와 이익을 줌으로써 더 많은 생산자원을 획득해야 한다는 국가 목적에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산당의 외부 조직 혹은 표현인-은 소련사회를 필두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처음이요 마지막인 전부다. 또한 이들 국가의 전 제도는 소련의 그것을 본받고 있는 것이다.

### 4, 공산당은 언제나 공산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가?

대다수의 국가에서 공산당은 공산당이라는 이름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당이니 대중사회(주의자)당과 같은 이름으로 가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1)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던가

(2) 공산당이 '인민전선'이라는 연합계후전술을 써서 다른 정당을 끌어들이며 시적 동맹을 맺으려 할 때

(3) 공산당이 불온한 파괴적 정당으로서 인정되어 법적으로 그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 금지령을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 5,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이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공산주의자도 같은 사람인 이상 좁게로

식별할 수 없다. 그들은 어떤 직장의 직원일 수도 있고 학생 또는 선생일 수도 있다. 또한 무역협회의 회원일 수도 있고 정부기관의 공무원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 시민과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 즉 그들의 정치적 사고방식은 모든 자유국가들을 전복시키는 것을 그들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모스크-북경의 당 노선을 항상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 공산당원은 어떤 외부적 행동이나 행위로 무모하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대개 그들은 비밀히 활동한다. 만약 그가 공공연하게 활동할 경우에는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한다고 공언할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공산주의의 목표인 지배권의 장악을 위하여 항상 선동할 것이다.

지방 공산주의자는 결코 공산당의 조직이나 당 정책을 정직하게 비판하지 않는다.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은 모스크-북경 그렇지 않으면 그의 대리자들로부터의 지령에 충실히 추종하면서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공작 대상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전복하는 데 헌신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스탈린 격하(格下) 운동 이후에 일어난 각국 공산당의 대변들은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모스크의 노선에 대한 엄격한 집착을 말하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막스-레닌주의의 기본적 도그마는 새로운 공산지도자들에게서나 민족 공산주의라는 독립적 노선을 걷고 있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나 다 같이 거부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1956년 11월의 헝가리에 대한 소련의 무장간섭은 철의 장막 외부에 있는 많은 공산당의 분열과 위축을 유발하였다.

### 6, 공산당 활동은 어떤 사람들이 시작하는가?

한 나라에 공산주의를 끌어들이어 하나의 정당으로까지 만들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상에 불만을 가진 자 또는 정부를 전복시킴으로써 현상에 어떤 변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계층(階層)에 공산주의의 문학이나 선전 또는 공산당에 접촉함으로써 그 영향을 받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스크나 북경에서 파송되어 온 공산주의 정수분자(精粹分子)들의 괴뢰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공산주의 정수분자는 소련이나 중공 또는 그 밖의 공산주의 운동 본부에서 전문적인 공산주의 이론과 혁명전술을 습득한 자들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회질서를 바라는 이상주의자들은 누구나 공산주의의 본성과 그 진심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항상 공산주의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공산주의의 제자로 몰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핵국가 내의 공산당의 건설자가 되지는 않는다.

때때로 한 국가의 공산당은 그 창당을 위해서 모스크나 북경에서 파견된 이수자들에 의해서 조직된다. 예를 들면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 공산당 같은 것은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창당된 것이다.

더구나 2차 대전 후 동유럽에서 합법적으로 정부의 지배권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은 본국에서 추방되어 소 연방에 오래 망명하고 있던 자들이었고 그들 중 절대 다수가



소련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

### 7,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현대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막스와 엥겔스의 이론에 얼마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 정당에서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폭력을 쓴다든가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막스주의자들의 신조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는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의 계획에 대한 막스주의 이론의 영향을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형태의 독재를 거부하고 합헌적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선거를 옹호한다. 또한 각기 정도의 차가 많기는 하지만 개인 기업을 옹호한다. 그러나 기한 자원에 대한 국유화와 중요한 공공 봉사기관 및 생산설비의 국가 통제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공산주의 하에 있어서는 어디서나 하나의 정당(바로 자기네 자신의 것) 또는 그들의 괴뢰 정당, 아니면 그들이 지배할 수 있는 집단에게만 선거 시 후보자격을 준다. 뿐만 아니라 투표지에는 다만 한 후보자의 이름만 있다. 또한 공산주의자는 강제에 의한 힘으로 그들 자신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 8,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공산정권은 어디서나 개인을 단지 하나의 국가를 위한 노동자로서만 고려한다. 여기서는 개인은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 내지 부속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는 그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며 정권은 자유선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된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지배자가 죽는다거나 권력 투쟁의 결과로 지배집단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하나의 정권은 영구적인 것이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국민의 권리는 정부가 마음대로 제한하고 박탈할 수 있다.

민주주의란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바와 같이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막스와 엥겔스의 가르침에 따라 노동계급 혹은 무산계급의 중국적 승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비공산국가는 타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위한 것이면 어떤 수단일지라도 모두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레닌은 기록하기를 '모든 공산당은 합법적 공작과 비합법적 공작 그리고 합법적 조직과 비합법적 조직을 병용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산당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의 정당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하나의 현존하는 조직적 음모인 것이다.

### 9, 오늘날의 공산당은 그 목표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1956년 2월에 열린 제20차 소련(141면으로 계속)

## 자유(自由) 아니면 죽음을

—중공 치하를 벗어나려는 투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홍콩이나 마카오로 탈출해 오는 피난민은 북한 공산 치하를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동포나 오늘날 동독에서 서독으로 몰려드는 난민들과 같이 세기적 비극의 주인공이 아닐 수 없다. 1950년 중공 정권이 세워진 이래 1959년 말까지 죽(竹)의 장막을 뚫고 탈출해 온 중국 난민수는 통계에 의하면 약 200만이 되고 날이 갈수록 격증됨에 오늘 날에 와서는 상당한 숫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처자를 버리고 가재(家財)를 버리고 정든 고향을 등진 채 사선(死線)을 넘어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공산당 치하의 학정(虐政)과 박해가 그들로 하여금 일체를 버리고 자유를 찾아 돌진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탈출자들만이 이르는 헤아릴 수 없는 모험과 비극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 아래 중국 대륙과 홍콩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선전(深圳), 사타우콱(沙頭角), 서커우(蛇口, 광둥성 바오안(寶安)현에 속한다)이 세 지점은 부지부식간에 난민들이 탈출구를 찾는 도약대가 되어 버렸다. 중공 정권이 아무리 변경의 군사방위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또한 소위 정치공작원을 증파(增派)하여 출입국 검사를 강화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 증거로는 지나간 수년래 불과 수 마일의 이 엄중한 경계선을 무사히 돌파하여 자유의 창 홍콩으로 몰려드는 피난민은 날이 갈수록 격증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철의 장막 어딘가에 뚫린 구멍이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 뚫어진 구멍에서 자유를 찾는 대륙의 사람들은 탈출하여 재생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이 뚫어진 구멍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된 것과 인위적으로 된 것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겠다.

전자는 캄캄한 그믐밤이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틈을 타서 중공 수비병들의 갑시의 눈을 피해서 호구(虎口)를 탈출하는 것이고 후자는 즉 수비대 간부들의 이욕심을 이용해서 얼마간의 금품을 주어 눈을 감게 하는 방법이다.

작년 3월 하순경 캄캄한 그믐밤의 일이었다. 대륙과 홍콩의 인접지인 사타우록에서 촌민들의 잠을 깨게 한 일진의 요란스러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그 무엇을 느꼈다. 생명을 걸고 이 삼엄한 방위선을 돌파하려는 한 떼의 난민들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른 것이다. 다음 순간 맞지 않고 용히 탈출하였는지 아닌지 몸을 조이면서 걱정들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집밖에 나가지는 못하였다. 총성 뒤에는 음산하리만큼 정적이 깃들었다. 그것은 과연 일군의 어민들이 한 노인을 안내역으로 하여 이 봉쇄선을 탈출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알게 된 일인데 사타우록 부락의 왼쪽을 조용히 흐르고 있는 강둑에 선혈에 물든 두 어린 아이와 두 사람의 중년 부인의 무참한 시체가 넘어져 있었다. 결국 그들 가운데서 기운차게 달릴 수 있는 젊은 어부 네 사람만이 이 화마를 피해서 영국령에 도달하여 정치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사타우록이라고 하는 곳은 부락의 큰 행길 좌측이 중공에 속하고 우측이 홍콩에 속해 있는 것이다. 부락민들은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으나 이곳 경찰은 부락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발견되게 마련이다. 그 큰 행길에는 아무 방해물도 없고 중공과 홍콩이 공동관리 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히 뿔린 구멍의 일례인데 다음에는 인위적으로 된 구멍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은 요컨대 난민의 탈출을 전문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비밀기관이 그것이다. 그것은 거의 반공계적 기구로서 선전진(線)에 있는 어느 조그만 다방 안에 설치되어 있어 중공의 소위 변방공안국과는 불과 100미터도 안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곳의 두목은 놀랍게도 중공 변방공안국의 현역 경찰인 것이다.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동 지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하조직으로 (和)자의 두문자를 가진 '화리화(和利和)'와 '화안락(和安樂)'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그룹의 젊은 친구들이다. 홍콩에서는 이들을 '황우당(黃牛黨)'이라고 부르고 있다. 말하자면 폭력배들인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홍콩 방면에도 하나의 비밀연락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장소는 홍콩 성완(上環) 영락가(永樂街)에 위치하고 있는 무역상사 안에 있는데 ○○무역공사의 간판이 붙어 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탈출하려는 자는 누구나 이 '○○무역공사' 안의 비밀기관에 그 뜻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면 8·9할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탈출하려는 자가 현역 중공군 정관원이 아닐 것 또한 요시찰인 명부에 올라 있을 만한 유명한 인물이 아닐 것이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 수속은 중공 치하를 탈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홍콩 사람은 우선 그 구출자의 성명, 주소, 가정 상황, 호적, 개인의 인상 및 특징, 암호 같은 것을 상세히 열거하여 이 비밀기관에 신입(申込)하면 비밀기관은 이것을

연락책임자인 흑막의 인물에게 수교(手交)한다. 거기서 다시 앞에서 말한 황우당의 손을 거쳐 선전의 비밀기관의 형사 손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심사 결과 '좋다'고 하면 그 뜻이 다시 홍콩에 있는 기관에 연락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신청인은 우선 수속비용의 3분의1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홍콩불(弗)로 약 100불—이것을 납부하면 '○○무역공사'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이 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만약에 당해인(當該人)을 중공 치하에서 구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무역공사'가 이 수속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 각종 조사 수속비로서 50불만 공제하는 것이다. 지하조직이라 하더라도 이런 점에서는 어지간히 신용이 있는 편이다. 그 좋은 예로서 얼마 전에 홍콩의 어느 거상이 중공 치하에 있는 동생을 구출하려다가 실패하였는데 그 비밀기관이 지체 없이 돌려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선전의 비밀기관에서 OK가 되면 두 명의 형사는 극비리에 변방공안국의 출입국담당 중공간부와 타협하여 거래를 한다. 그리고 나서 대체로 1개월 반 가량 후면 필요한 출국증명서가 만들어져 그것이 홍콩에 있는 비밀기관에 보내져서 예의 신청인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동시에 언제까지 잔액인 3분의2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청인은 돈을 준비한 연후에 지시된 일시에 중공과 홍콩 경계선을 찾아가서 조그만 강을 격(隔)해서 대기하는 것이다. 그럴치 않으면 중공측에서 황우당의 안내를 받아 피구출자가 건너온다. (이 때 피구출자는) 백색 의복을 입어 표식으로 삼는다. 그리고 인수인인 신청자에게 보여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틀림이 없다고 하면 신청자는 다음날 주룽(九龍) 방면의 지정된 여관에 방을 잡아둔다. 거기에 출국증명서를 가진 피구출자를 황우당이 데리고 와서 인도한다는 순서로 되어 있다. 물론 이 때 신청인은 잔액인 3분의2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종류의 장사는 홍콩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 이런 방법으로 나온 사람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출국허가증의 대가는 일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차가 있다. 위탁을 받은 신청인의 경제 형편이 좋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던지 중공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고 싶어서 서두를 때는 대체로 3,000 내지 4,000 홍콩불이 든다고 한다. 또한 피구출자가 숙청된 지주라던가 소자산층이었다던가 혹은 단순한 일개의 망명자일 경우에는 1,500 홍콩불로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비밀기관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피구출자는 반드시 광둥성 내의 광저우, 산터우(汕頭) 후이양(惠陽), 동관(東莞), 타이산(台山), 언평(恩平), 카이핑(開平), 하이루핑(海陸豐), 바오안, 시양위(香遇) 등의 각 현시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 광저우 이북의 주민은 제 아무리 고액의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목적을 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록재(李綠載)>

공산주의자들은 꽃을 즐길 줄 모르고 열매만을 따먹을 안다.

-데레스-

# 한미(韓美) 상호(相互) 방위조약(防衛條約) 해결

신찬(申瓚)



조약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므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이 공동적인 방위행동을 취한다는 합의를 명문화하여 세계에 발표한 것이다. 현재의 국제사회는 어느 일국의 단독적인 행동을 등한시하지 않고 상호 작용하여 운영되므로 일국의 방위 문제는 자연히 타국과의 관계를 맺어 국제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자유 공산진영을 막론하고 수다한 군사동맹을 체결하여 단결과 상호 의존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안전보장책을 확립 강화하고 있다.

안전보장은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이고 국가 정책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립되며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제수단은 이 정책 수행의 도구로서 사용된다. 군사동맹은 정치적, 군사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이며 방위조약은 군사동맹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 합의 결정한 방위상의 권리 의무의 규정이며 또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유일한 방위조약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방위조약은 국토방위의 역사(役事)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군인이 의무적으로 숙지하여야 하는 지식이며 또 필수적인 상식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 괴뢰도 소련 및 중공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감하여 이 조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바 있다.

## 1. 체결 경위

1951년 6월, 소련의 국련(國聯) 대표였던 마리크가 UN에서 한국전란의 휴전을 처음으로 제기하자, 정전(停戰)의 기운이 성숙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李承晩) 박사는 북한이 재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휴전을 반대하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중공군 철수, 북한 괴뢰군의 무장해제, 북한에 대한 소련의 원조 중지, 그리고 북한에서의 UN 감시 하의 총선거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휴전회담은 이와 같은 한국의 의사와는 별도로 진행되어 이 대통령은 1953년 초 미국 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재침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보장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1953년 6월 6일부 서한을 통해서 동의해 왔으며, 동년 7월 12일에는 당시의 국무차관보였던 로버트슨 씨를 파한(派韓)시켜서 조약 내용과 원칙에 합의토록 하였다. 휴전협정이 조인(調印)된 직후인 1953년 8월 3일에는 미 국무장관인 고(故) 덜레스 씨가 내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이 조약의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자급의 회의가 열렸고, 동시에 이(李)·덜레스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북한이 재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동년 8월 8일에는 조약 내용의 합의에 따른 가조인(假調印)을 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밟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동년 10월 1일 한국측의 변영태(卞榮泰) 외무장관과 미국측의 덜레스 국무장관에 의하여 미국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익년 1월 15일에는 한국 국회가 또 동년 16일에는 미국 상원이 각각 이를 비준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 17일에 양국 정부가 비준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전문과 6조로 된 이 조약은 정식으로 발효하게 된 것이다.

## 2. 전문(前文)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조약은 보통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 전문이 제일 먼저 오고 다음에 그 조약의 주요 내용인 실질적 규정이 기재되며 마지막으로 유효기간, 비준, 가입, 폐기방법에 관한 절차 규정이 따른다. 그리고 전문에는 조약체결의 동기와 취지를 기재함이 통례로 되어 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전문은 우기(右記)한 바와 같이 그 체결의 동기와 조약 취지를 3단으로 나누어서 기재되었다. 즉 첫째 단에서 세계평화와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기구의 강화를 확인 강조했으며, 둘째 단에서는 가상적인 침략자에 대해서 경고를 발하였고 마지막 단에서는 본 조약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미국은 6·25 남침의 교훈을 받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유럽의 NATO와 같은 집단 안전보장기구의 설립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서유럽에 비해 반공의 조건이 서로 달라서 공통성이 희박하여 태평양 전역에 걸친 광범위하고 단일한 군사동맹 체제를 단번에 구축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그 준비적인 단계로서 안저스 조약(미국·뉴질랜드·호주—1951년 9월 1일 조인)을 비롯하여 필리핀(比律賓), 일본, 한국, 중국 등과 개별적으로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이들을 장차 동북아동맹이나 태평양동맹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가졌던 것이다. 그래서 본 조약 전문에 ‘태평양지역에 있어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란 전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또 안저스 조약, 미필 상호방위조약의 전문과 구(舊)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4조에도 동일한 전제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조약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공산측의 재침에 대한 능동적인 경고인 동시에 장차 이룩될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기구의 모체가 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주(註)—이와 같은 계획은 고(故) 딜레스 국무장관의 구상이었으나 1960년 1월 12일에 수정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는 태평양지역의 안보 체제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미국의 동북아동맹에 대한 구상이 변경되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다.

전문 조단(條段)에서 언급한 ‘집단적 방위’라 함은 국제연합헌장 중의 ‘……연합국(가맹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연합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현장은 막지 않는다……’(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 합법화된 행위인 것이다. 즉 국제연합헌장은 방위능력이 없는 약소국가가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여 국제평화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한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타국가가 피공격국과 공동으로 방위행위를 취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헌장은 지역적 협정과 지역적 기구의 존재까지도 인정하고 있으며 또 필요할 때에는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여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52조) 그러므로 이 ‘집단적 방위’의 행위는 어떠한 침략자에 대한 보복이나 제재를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기하려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3. 본문

####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야 할 것을 약속하다.”

제1조에는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과 무력 사용이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이 UN의 목적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무력행사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무력행사는 국제법상 자위권의 발동 시에 한해서 그 합법성이 인정되므로 오늘날의 합법적인 무력 사용은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을 위한 방위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다. 자위권이 발동되려면 자국에 대한 위협이 급박하고 또 방위 행위가 부득이하다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현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이 요건의 구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정하는 일정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의 인정은 자위권을 행사하는 국가 자신이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주관적임을 면치 못하여 빈번히 남용될 염려가 많다. 사실상 과거 여러 나라는 이 자위권의 이름으로 자기 행위를 변명할 일이 불과(不窮)하였으며 또 전쟁 개시에 있어서도 항상 자위권을 표방하여 개전(開戰)의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려고 급급하였던 사례가 허다하다. 그래서 본조는 자위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며 동시에 무력 사용의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일치되는 범위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인민의 평등 인권과 자유의 존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UN의 목적은 이 중에서도 특히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 행위, 그 외의 평화 파괴의 진압을 위하여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제1조 1항)를 지적하는 것이며, 본 조약 전문에서 언급한 집단적 방위의 지침을 더욱 선명하게 밝히는 동시에 UN 정신의 구현에 가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력행사의 한계 표시는 비단 본 조약에만 삼입된 것이 아니고 미중 상호 방위조약(제1조), 미일 안전보장조약(제1조), 안저스 조약(제1조), 미비 상호방위조약(제1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독단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협의 하에 취할 것이다.”

제2조에서는 본 조약의 이행을 위한 협의 조항과 방위력의 유지 발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따라서는 협의 조항의 취급을 위하여 협의체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조약에는 이 협의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일견 허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듯도 하나 협의체에 관해서 자유 진영의 주요한 군사동맹을 일괄(一瞥)해 본다면, 대개 3개국 이상이 체결한 다변적인 조약만이 협의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변적인 조약에는 협의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즉 북대서양 조약, 동남아 조약, 안저스 조약, 중앙조약, 전미 상호 원조조약 등은 각각 이사회를

비롯한 전문기관을 만들고 조약에 규정한 바를 여기서 협의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 미비, 미중, 한미의 각 방위조약은 일반 외교절차를 통하거나 또는 고문단을 설치함으로써 협의체의 역할을 대행케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에는 군사령부가 직접 위치하고 있으므로 본 조약의 협의체에 관한 허약성은 실제면에 있어서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조 후단의 규정은 방위력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군사 원조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이의 적당한 운영을 상호 협의하에 수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제3조

“각 당사국은 각자의 행정 관리 하에 있는 영토 또는 금후(今後) 1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3조는 본 조약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방위지역의 명시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공동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방위지역을 표시하는데 ‘각자의 행정 관리하에 있는……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를 삽입한 것은 한국의 현 헌법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島嶼)를 영토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며(제4조), 또 앞으로 기대되는 남북통일의 결과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 관리 하에 있는 지역이 확대 변경될 것을 예상한 기술적인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변경 시에는 타 당사국의 인정을 요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조약의 방위지역에는 제약성이 가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유 진영의 여러 군사동맹에 있어서 이 방위지역에 관한 규정은 각 조약에 따라 다양성이 있다. 미중 상호방위조약에 있어서는 방위지역에 포함되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대만과 평후(澎湖) 제도라고 규정하였으며 기타의 영역에 관해서는 상호 합의한다는 제약을 두고 있다(제6조). 그러기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을뿐더러 극동지역까지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제4조 및 6조).

본 조약의 방위지역에 관한 규정은 양국 영역의 변경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영역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즉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이라 했음은 미국의 영역 중에서 태평양지역 내에 있는 것에 한정하여 본 조약의 방위지역으로 하며 미 본토와 타 지역에 있는 미국 영토는 이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비 상호방위조약에 있어서는 양국의 본토가 그 방위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제5조), 안저스 조약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하다(제5조). 북태평양조약(제5조 및 6조)과 전미 상호원조조약에 있어서는 전 당사국의 전 영토를 방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남아조약에서는 전 당사국의 아세아지역에 있는 전 영토뿐만 아니라 서남태평양 지역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제8조). 이와 같이 본 조약의 방위지역은 자유 진영의 타 방위조약의 그것에 비하여 약간 협소한 감이 있다.

다음에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타 당사국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공동적 방위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자국의 국내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행동을 취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은 각 당사국이 공동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자국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 조항은 조문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적의 무력 공격이 명확하게 불법적인 경우에 한해서 당사국들은 상호 협조하여 공동행동을 취한다는 견제적인 조건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제적 조항은 미일, 미비, 미중간의 각 방위조약과 안저스 조약(제4조), 동남아조약(제4조 1항)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북태평양조약(제5조)이나 전미 상호원조조약(제3조), 또 공산 진영의 바르샤바 조약(제4조)과 소중 우호동맹·상호 원조조약(제1조)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조약은 이와 같은 각 조약에 비하면 다분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이 방위조약의 이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1950년 7월 7일의 안보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일군사령부의 일원으로서 그 결의사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괴뢰의 제침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즉각적인 반격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견제책은 실제면에 있어서 상호 견제의 효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견제하는 데 그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조약에 있어서는 미국이 한국의 단독적인 군사행동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조약이 체결될 당시, 한국의 이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하나의 명확한 견제책을 강구하였다. 즉 1954년 11월 17일 본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할 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정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어 전기한 이 대통령의 주장에 경고를 하였다. “……무력 공격은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것이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상호 원조를 하지 않는다……” 미국이 이와 같이 경계하는 진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경계를 위한 견제의 의정서나 유보적인 협정으로 역할케 하고 한미 상호방위의 근간이 되는 본 조약에는 전기한 조건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즉각적’이란 어구를 사용함으로써 한미 간의 공동방위의 이념을 강화시킴이 좋을 것 같다.

###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4조에서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주한미군은 1950년 7월 7일 UN 안보이사회에서 의결된 통일군 설치 결정에 의하여 미국에 위임된 UNC의 일원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고 있었으나, 본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그들의 법적

성질은 이중성을 띄게 되었다. 그런데 본조에서는 미군의 주둔 권리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였으며 주둔에 따르는 책임한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며 또 유보조항조차도 없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있어서는 “.....일본국에 있어서 미국 군대의 지위는.....별개의 협정 및 합의된 그 밖의 결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6조)란 유보조항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해서 ‘미일 안보조약 제6조에 의거하는 시설 및 구역과 일본국에 있어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따로이 체결함으로써 주일미군의 책임, 지위, 신분 기타 행정적인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규정하였다. 이런 행정협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유럽의 각국에서도 이미 체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에 대한 신분, 형사 관할권, 관세, 토지 및 시설의 사용과 보상, 그리고 출입국에 관한 제반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미관계는 보다 더 굳건한 기반 위에 놓여질 것이다.

####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기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의 규정은 본 조약의 비준에 관한 것이다. 조약은 그 전부가 반드시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조약의 비준 여부는 체결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조약을 비준하는 이유는 성립된 조약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묻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드는 데 있으며 비준의 방법은 국가 원수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확인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하고 서명하여 타 당사국과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 제42조와 제59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비준서의 교환은 그 조약을 확정적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때부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조약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을 대표한 변영태 외무장관과 미국을 대표한 딜레스 국무장관에 의하여 서명되었으며 1954년 1월 15일 한국의 국회가 이를 비준하였고 동월 16일에는 미국 상원이 역시 비준하였으며 동년 11월 18일에 한미 양 정부가 각각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이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어 금일에 이른 것이다.

조약은 발효한 후에 또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된다. 즉 국제연합헌장은 국련(國聯)가맹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1항). 이 등록제도는 국제연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국제연합이 답습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제도의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비밀조약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국련에 등록된 조약의 당사국은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그 조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제102조 2항). 본 조약은 미국에 의하여 UN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도 우기(右記)와 같은 채용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중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의 전원 위원들이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의 2통으로 작성되었다.”

제6조는 본 조약의 유효기간과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한 것은 영구적이란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일정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당사국이 폐기하지 않으면 이 유효기간은 무한정 계속될 것이며 또 금일이라도 어느 당사국이 폐기통고를 하면 1년 후에 본 조약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보장은 극히 희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 폐기방법이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고로서 족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면에 있어서 미국은 언제든지 이 방위조약을 자의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저스 조약, 미비 및 미중간의 방위조약, 동남아조약 등도 유효기간과 폐기방법에 관해서는 본 조약과 동일하나, 북태평양조약은 20년, 미일 안보조약은 10년의 유효기간을 각각 보장하고 있다. 일정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상호 합의하여 연장시키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조약의 유효를 계속시키는 조항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약도 일정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상호 합의하여 폐기시키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허약성과 불평등성을 제거하도록 할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 4. 결론

이상의 여러 고찰은 이 조약의 각 조문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감이 없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본 조약의 전반적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이 해설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본 조약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의 부산물로서 탄생하였고 동시에 태평양지역의 안보기구로 흡수될 전제적인 구상 밑에 체결되었으므로 그 내용 규정에 잠정적인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태평양지역의 평화기구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오늘날이 잠정적인 요소는 본 조약의 크나큰 기형성(畸形性)을 노정(露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협의체, 방위지역의 확대, 외침을 당했을 때의 즉각적인 격퇴, 그리고 유효기간의 보장과 합의에 의한 폐기 등에 관한 안정성 있고 영구적인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조약의 실제면에 있어서의 고찰로서 인정되는 비실효성, 허약성 및 불평등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전기한 새로운 규정과 주한미군에 관한 지위, 신분에 대한 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자유세계의 안전보장체제의 연쇄체의 일환으로 자유진영과 우리에게 대해서 생존적 열쇠의 중요성을 띄고 있는 반면에 전기한 미비점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만족치 않고 더욱 강화 완비할 필요성에서 우리 국방 및 외무 담당자들의 새로운 검토가 있기도 고언하는 바이다.

## 본호(本號)의 특집에 관하여

—편집 후기를 겸해서—



○… 재건—재건! 국가의 모든 기능은 방금 재건 사업에 집약되고 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보니 어찌 전 국민이 혼신의 역량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재건 사업은 각 분야에 걸쳐 눈부신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재건 사업이 민주주의를 대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집 <한국 민주주의 재건 운동의 방향>은 이러한 의미에서 꾸며 본 것이다. 각 분야에 걸쳐 사계(斯界)의 권위자의 집필을 보게 된 것을 독자와 더불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

○…한편 생각하면 민주주의 선진 국가는 과연 무엇에 의해서 오늘의 그 탐스러운 자세를 가져왔을까? 이 문제를 살펴봄은 다소나마 한국의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방향 잡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성장케 했다’는 또 하나의 묶음은 특집 <한국 민주주의 재건 운동의 방향>을 보다 의미 있게 하기 위한 뒷받침으로 수록해 보았다.

○…한국의 민주주의적 국가 재건은 5월 혁명의 지상목표요 따라서 우리들의 당면과업이려니와 이 과업의 수행은 반공과 더불어 가능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아니, 반공은 국가 재건 사업에 포함되는 가장 큰 비중을 가진 하나의 부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세계의 동태를 관찰하는 예안(銳眼)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국가 재건 문제가 우리들에게 절실한 문제라면 반공 문제 또한 그 절실함에 다를 바 없다. 특집 <공산주의와 오늘의 세계>는 이러한 의미에서 기획해 보았다.

현하(現下) 공산주의자들이 심상치 않은 동태를 보이고 있음은 격동적인 오늘의 세계정세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심대한 관심으로 그들의 언동을 경계하고 있는 바이지만 여기엔 수록한 특집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꾸며보았다. 첫째, 공산세계 내부의 동태 둘째, 대외적인 침략책동에 관한 동태로 분류해 보았다. 침략책동 동태에 있어서는 동남아시아, 중원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살펴보았다. 지면 관계로 중·남미지역은 쿠바에 한정되고 중·남미 전 지역을 살펴볼 수 못한 것은 유감이다. 다음 시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백을 이용해서 중남미 각국에 있어서의 공산세력에 관한 간단한 통계를 삽입하는 데 그쳤다.

○…끝으로 이번 호에서 무엇보다도 자랑해서 부끄럽지 않다고 자부하고 싶은 것은 권두에 수록한 이병도(李丙燾) 박사의 <한민족의 민주정신의 사적 고찰>이다. 이 글을 우리 한민족이 이미 상고시대에 있어서 훌륭한 민주적 정신과 그 정신의 발현이 있었음을 여러 가지 사실(史實)로서 입증해 주고 있다. 누구에게나 일독을 권해 마지않는다.

(고객자(孤客子))



지난 10월 7일 김(金) 참모총장은 진가상(陳嘉尙) 자유중국 국민총사령의 초청으로 자유중국을 방문하여 두 나라의 반공우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사진> 진총사령(좌)과 국민의아수를 교환하고 있는 김총장.

## 김 총장 방문 스냅

본토 수복의 결의가 넘쳐흐르는 자유중국의 최전방기지 금문도를 시찰하고 있는 김 총장. 포구(砲口)도 매섭게 북쪽을 노리고 있다.

코메트

發行處·空軍本部政調監室  
 發行人·空軍大領 朱貞鎬  
 印刷處·空軍教材廠  
 印刷人·空軍大領 金石桓

코메트 第48號  
 4294年11月20日 印刷  
 4294年11月25日 發行



THE COMET

지

공군6471



코메트  
 THE COMET

